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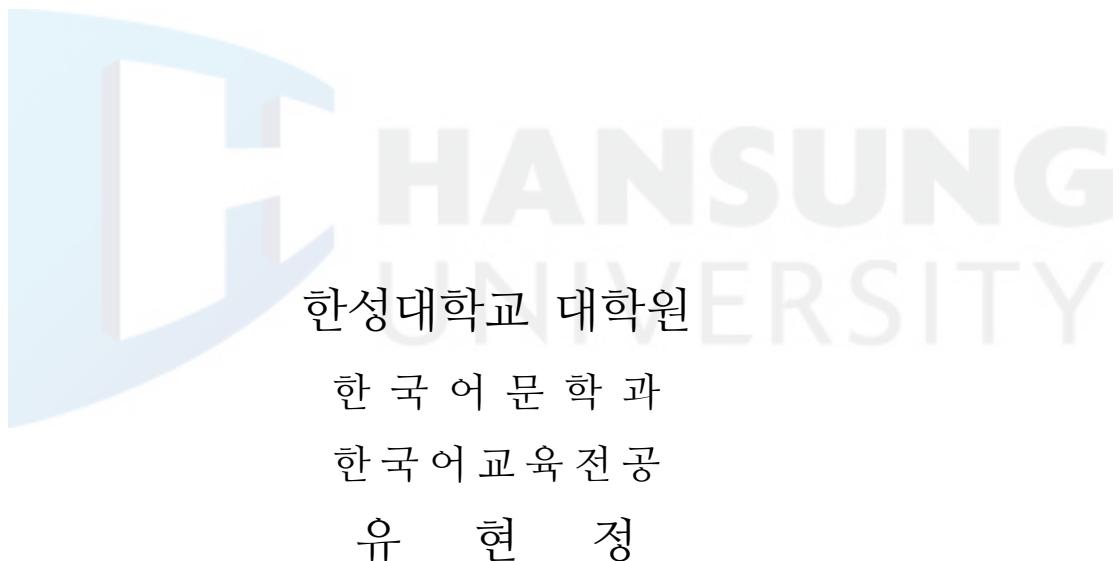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문화 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2015년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문화 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Taxonomy of Cultural Knowledge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유현정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문화 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Taxonomy of Cultural Knowledge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유현정

유현정의 문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이고규



심사위원

채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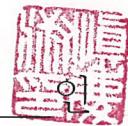
심사위원

권순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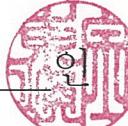
심사위원

신경숙



심사위원

기동민



국 문 초 록

문화 지식 분류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 전공

유 현 정

본 연구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이라는 언어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 구성 및 문화 교육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둔다.

최근 언어 교육 분야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내용은 여전히 언어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 지식은 언어 지식 습득의 부수적인 정보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문화 교육 내용은 주로 물리적 현상이나 단순한 사실적 정보의 전달에 그치고 있어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진정한 언어 능력 습득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어 교재에서 한국 고유의 문화 항목을 반영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문화 지식 위주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광범위한 문화의 개념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 문화와 교육에 관한 여러 이론을 고찰하여 문화를 교육의 내용인 지식으로 재개념화 하고, 지식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크게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다시 교재에 활용할 수 있는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문화 지식의 분류에서 사실적 지식은 물리적 사물 및 현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며, 방법적 지식은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 양식 및 행동 방식을 이해하여 실제 대화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대처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이 사실적 지식 위주로 이루어져 온 점을 주지하고,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위해서는 방법적 지식 위주의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화의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문화를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로 구분하였다.

또한 현행 한국어 교재의 내용 구성 및 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 문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에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언어 교육의 부수적 정보에 머물러 있던 문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사실적 지식 위주의 문화 교육에 대한 시각을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 지식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문화 항목에 관한 구체적 교육 방안 및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문화 교육, 문화 지식, 지식 분류, 사실적 지식, 방법적 지식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사 검토	6
3. 연구 방법	14
II. 지식으로서의 문화관과 문화 교육 항목	16
1.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반성적 접근	16
1) 문화 교육 목표에 관한 고찰	16
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위상에 관한 고찰	23
2. 문화 현상의 지식체계로의 전화(轉化)와 문화 항목의 선정	33
1) 문화 현상의 지식화	33
2) 지식으로서의 문화 항목의 분류	48
III. 지식으로서의 문화의 교육적 대상화의 방향	59
1. 기존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분석	59
1) 교재 구성의 양상	59
2) 수업 활동의 양상	82
2.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방안	88
1) 기본적인 틀	88
2) 사실적 지식	99
3) 방법적 지식	101

IV.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교수-학습의 실제	103
1. 교재 구성 방안	103
2. 텍스트 제시 방안	107
3. 교수-학습 활동의 설계	114
1) 사실적 지식	125
2) 방법적 지식	131
4. 교수-학습 활동의 실제	137
1) 사실적 지식	137
2) 방법적 지식	151
V. 결 론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74
ABSTRACT	190

표 목 차

〈표 1〉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의 예	17
〈표 2〉 한국어 급별 문화 영역 학습 목표	18
〈표 3〉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별 평가 기준	20
〈표 4〉 초급 한국어 교재의 단원별 문화 교육 내용 비교	30
〈표 5〉 한국 문화의 내용 분류	36
〈표 6〉 문화 유형별 범주 구분	48
〈표 7〉 문화 유형에 따른 분석 기준	50
〈표 8〉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과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비교	51
〈표 9〉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문화 영역의 등급별 목표	52
〈표 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문화 영역의 등급별 내용	53
〈표 11〉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1)	55
〈표 12〉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2)	55
〈표 13〉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3)	57
〈표 14〉 표준 모형의 성취문화 항목(2급)	59
〈표 15〉 표준 모형의 행동문화 항목 중 ‘호칭’ 항목(1-3급)	63
〈표 16〉 표준 모형의 행동문화 항목 중 ‘교통’ 항목(1-2급)	69
〈표 17〉 표준 모형의 정보문화 항목 중 ‘의생활’ 항목	71
〈표 18〉 표준 모형의 정보문화 항목 중 ‘식생활’ 항목	74
〈표 19〉 표준 모형의 정보문화 항목 중 ‘주생활’ 항목	78
〈표 20〉 표준 모형의 성취문화 항목 중 ‘한국의 역사’ 관련 항목	82
〈표 21〉 Anderson 외(2001)의 교육 목표 분류학 표	94
〈표 22〉 한국어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	99
〈표 23〉 선행 연구의 텍스트 유형 분류	108
〈표 24〉 Brinker(1983)의 실용 텍스트의 화행론적 텍스트 유형	109
〈표 25〉 이중진(2009)의 한국어 읽기 교재의 급수별 텍스트 유형	110
〈표 26〉 박진용(1998)의 문어 텍스트의 심리적 텍스트 유형	111
〈표 27〉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수업 구성	120

〈표 28〉 내용 중심 교수법의 수업 구성	121
〈표 29〉 과제 중심 교수법의 수업 구성	122
〈표 30〉 사실적 지식으로서 성취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126
〈표 31〉 사실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128
〈표 32〉 사실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130
〈표 33〉 방법적 지식으로서 성취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132
〈표 34〉 방법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134
〈표 35〉 방법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136



그 림 목 차

〈그림 1〉 Bloom(1956)의 교육 목표 분류학의 학습 단계	88
〈그림 2〉 Marzano & Kendall(2007)의 ‘신 교육 목표 분류학’	95
〈그림 3〉 한국 문화 지식의 학습 단계 및 단계별 학습 내용	96
〈그림 4〉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수업 단계별 구성	98
〈그림 5〉 사실적 지식의 교수-학습 과정의 단계별 활동	100
〈그림 6〉 방법적 지식의 교수-학습 과정의 단계별 활동	102
〈그림 7〉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 지식 습득 과정	124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외국어교육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게 되고 더 나아가 단순히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한 발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이라고 볼 때, 언어적 지식의 교육과 더불어 그 언어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문화 지식의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이른바 ‘한류’의 영향을 받은 세대인 만큼, 이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 접해보았을 한국 문화에 대한 구체적 교육 방안과 이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문화 교육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¹⁾

그러나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의 문화 교육 수준은 학습자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기초적이며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를 토대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어로 완벽한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데 다소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²⁾ 특히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어교육 과정 운영의 특성상 한국어 교재의 교수항목 선정 및 교육 방안 설계는 매우

1)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 결과,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묻는 항목에서 62%의 응답자가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을 접하고 나서’라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한류 상품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9.4%의 응답자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꼽았다.

김현정·박정아(2008), 「한류 애호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방향성 고찰」,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10쪽.

2) ‘문화’라는 개념은 본론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 범위가 워낙 방대한 것이어서 문화의 모든 측면을 교육 내용으로 삼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볼 때,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내용이 일정한 원리나 기준이 없이 교재의 단원별 주제나 기능별 목표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이해, 한국인의 의식주, 한국인의 사고방식, 취미생활과 여가생활, 한국사회의 예절, 한국의 자연, 지리, 관광지, 한국 문학 등 개별적인 항목 위주로 그 내용이 제시되다보니 교재별 편차가 크고, 일관된 기준이나 흐름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 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수업은 주로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다섯 단계에 따라 수업 내용을 조직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교재 내에서 수업 단계별로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후행 활동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성취도에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특히 광범위한 항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교재의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습자 입장에서는 보편적이고 평준화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고 교사의 측면에서도 수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리하여 권순희(2010)³⁾, 배재원·신윤경(2014)⁴⁾ 등에서 교사의 문화 교육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사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언어권 및 개인 능력별 편차가 매우 다양함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한국어 습득 능력 및 학업 성취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준화해줄 수 있는 보편성과 일관성을 갖춘 한국어 교재 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별 언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자체 제작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의 내용은 주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기능 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언어 능력 습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문화 항목이 언어 교육의 기능이나 주제의 일부로 편성되거나 부가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로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교재들을 통해 한국 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이라는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문화 교육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한국의 고유한 문화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 구성 및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재를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문제이고, 두 번

3) 권순희(2010), 「다문화시대의 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 세계한국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세계한국어문학회.

4) 배재원·신윤경(2014),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언어 교재를 ‘언어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정의할 때 그 언어와 관련된 ‘지식’이 바로 내용의 차원이 될 것이다.

근래의 지식론에서는 지식을 크게 사실적 지식, 방법적 지식, 친숙적 지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⁵⁾ 지금까지 언어 교육의 부수적 차원으로서 문화 교육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주로 사실적 지식의 이해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최근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에 관한 논의가 주로 문화 항목 선정 기준 설정 및 문화 항목 분류를 위주로 이루어진 것도 그러한 경향과 관련이 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언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이라고 볼 때 언어 현상에 대한 사실적 지식의 습득만으로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행(2008a)에서는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운전면허증을 받고도 도로연수를 해야 하는 것과, 의사가 의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에도 기나긴 수련의 기간을 거쳐야 함을 예로 들면서 ‘내용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차이를 구분하였다.⁶⁾ 그리하여 언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어의 내용적

5) ‘아는’(know) 것을 ‘지식’(knowledge)이라 한다. 별로 어려움이 없이 사용되는 일상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무엇이 지식인가를 설명하는 일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아서 인식론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을 철학사(정대현, 1990 : 11-43)는 보여준다. 이런 논의의 경과에 따르면 근래의 지식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과 속성으로 지식을 구분함을 볼 수 있다.

- a. 나는 서울이 한국의 수도임을 안다. – 사실적 지식 [명제, 인지]
- b. 나는 수영을 할 줄 안다. – 실천적 지식 [명제, 정도]
- c. 나는 이대통령을 안다. – 친숙적 지식 [인지, 정도]

이들은 이름 붙이기에 따라 달리 불리기도 한다. 사실적 지식(knowing that)은 ‘대상적 지식’이라고도 하고, 실천적 지식(knowing how)은 ‘방법적 지식, 절차적 지식, 능력적 지식’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친숙적 지식(acquaintance)은 달리 ‘직접지’라고도 한다. 용어는 달리 사용하지만 뜻하는 바는 같다.

김대행(2008a), 「한국어 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31-32쪽.

6) 이와 비슷한 예로 80년대 방송에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된 바 있는 천재 소년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돌이 되기 전 한글을 깨치고 3~4세 무렵에는 4개 국어에 능통하여 8살에 대학에 진학하고 미국 NASA에 연구원으로 초빙되어 당시 국내외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이 소년은 이후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최근 방송에 출연하여 이후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미국에서 생활할 때 또래 아이들과 다른 생활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다가 결국 귀국하여 현재는 국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평범한 연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어릴 적 일을 회상하면서, ‘나는 수학과 과학을 남들보다 조금 빨리 깨우쳤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부르면서 수영이나 스케이트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적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습득된 언어 지식을 그 언어 문화권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언어 교육은 지식 자체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므로 ‘언어 교육’은 ‘언어 활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였다.⁷⁾

또한 김대행(2008b)⁸⁾에서는 ‘정보가 곧 지식은 아니다’라고 한 정대현 외(2000)⁹⁾의 전제를 빌어 교육은 ‘실천’임을 강조하고, 앞서 언급한 교재의 내용(what to teach)과 방법(how to teach)이라는 두 차원 외에 교육의 이유 또는 목적(why teach)이라는 국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세 국면의 핵심을 ‘과제’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언어 활동 교육’과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환(2008)¹⁰⁾에서는 ‘어떤 말을 제 때 제 때, 필요에 맞게 생산해 내는 능력’을 ‘언어 활동 능력’으로 정의하고,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 언어 활동 주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서 자신의 힘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가 오히려 하나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문화 교육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기준의 한국 문화 교육의 목표에 더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딪히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및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책에서 읽은 지식만으로 자전거 타기나 자동차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재를 통해 배운 지식만으로 실제 대화에서

‘지식’과 ‘방법적 지식’에 관한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김대행(2008a), 28쪽.

8) 김대행(2008b),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과제」, 민족문화논총 4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9) 정대현 외(2000), 「표현인문학」, 생각의 나무, 254-257쪽.

10) 김동환(2008),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읽기텍스트 선정 전략 연구 - 문화 교육을 위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국어교육학회.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의 내용 구성이 언어 지식뿐 아니라 문화 지식에 있어서도 ‘사실적 지식’에 치우쳐 있었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는 ‘방법적 지식’의 습득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어 수업의 특성상 실제 의사소통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구현할 수 있는 지식 습득의 틀 안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 교육의 내용 및 수업 방안을 설계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에 관한 여러 이론을 고찰하고 지식의 분류 체계 안에서 한국어 교재의 한국 문화 항목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문화 교육과 차별화된 문화 교육 내용 및 교수 방안 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런 흐름을 문화 교육의 정체성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문화 교육의 구체적 내용 및 방안 마련이라는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 교육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화가 언어 기능 교육의 일부 배경이나 간접적 맥락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과, 문화가 그 자체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적 범주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으로 연구의 흐름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초기의 연구로, 문화는 언어 교육의 일부 또는 언어 교육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 후자에서는 문화 교육의 위상이 좀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초기의 연구로는 민현식(1996/2004), 김정숙(1997), 성기철(2001), 조항록(2002), 배현숙(2002), 박영순(2003) 등을 들 수 있다.

민현식(1996)에서는 언어와 문화는 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한국 문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는 한국어이므로 한국어와 문화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어와 문화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국어 문화론’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 국어 문화론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과 교수요목을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민현식(2004)에서는 외국어 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목표언어 습득과 목표언어 능력 향상으로 보고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의 문화적 표현들을 익힌다.
- 2) 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어 습득과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 3) 목표문화와 모어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바르게 이해,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다.

- 4) 목표문화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얻고 정리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 5) 목표문화와 모어문화의 교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김정숙(1997)에서는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언어의 사용은 문화적 범주와 맥락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교육 방향 등의 기초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여 이후 전개되는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성기철(2001)에서는 언어 교육은 기본적으로 언어 사용의 기능 교육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문화는 어느 하나도 언어와 무관한 것이 없으며 문화 교육이 언어 교육의 주요한 명시적 목표가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 교육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인 시각에서 문화 교육의 현황을 개관하고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이후 다수 이루어진 한국어 교재의 내용 분석에 관한 여러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조항록(2002), 배현숙(2002), 박영순(2003) 등의 연구에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것의 의의와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조항록(2002)에서는 한국어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을 문화에 대한 정의, 문화 교육의 수준과 범위, 문화 교육 방법론, 문화 항목 선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국 문화 교육론의 과제를 학습자 변인 및 학습자 요구 분석, 문화 항목과 문화 교수요목의 수립, 다양한 활동과 과제 및 방법론의 모색, 인접 학문과의 연계, 문화 능력의 평가 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배현숙(2002) 역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는 수단이 아닌 궁극적 목표 설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행 문화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순서를 고찰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으며

박영순(2003)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한국 문화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문제 등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구상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 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및 기본적인 교육방향 설정에 관한 논의들은 이후 김대행(2003/2008a), 성기철(2004a/2004b), 조항록(2004a) 등에서 ‘언어문화’라는 개념으로 정의되면서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김대행(2003)에서는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해 내용의 체계화가 시급함을 지적하고 한국 언어문화의 국면을 언어관, 인사법, 시간 읽기, 의미의 전이적 활용, ‘우리’ 의식, 맥락 일탈 현상, 남북한의 이질성 등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후 김대행(2008a)에서는 언어문화 교육의 내용이 전제, 지식, 경험, 수행, 태도 등의 측면에서 폭넓게 고찰되어야 하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성기철(2004a)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언어문화의 본질을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성기철(2004b)에서는 한국 언어문화라는 영역의 개념 설정과 범위, 그리고 그 연구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 성과가 모아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항록(2004a)에서는 한국 언어문화의 내용을 12개의 범주(언어 자체, 문화 어구 1-단일 어휘, 문화어구 2-구절/문장, 언어 예절, 언어와 사고방식, 언어의 산물, 방언, 이름, 비언어적/반언어적 의사소통, 매체와 언어, 언어와 사회 1-일상생활 영역, 언어와 사회 2-문물 영역)로 나누어 구성하고, 언어문화 교육 자료 및 교육 방법론의 개발을 통한 언어문화 교육의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 언어와 문화는 명확히 따로 떼어 구분하기 어려운 불가분적 관계에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는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위상을 넓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문화는 그 자체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적 범주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교육적 범주화 방안에 초점을 둔

연구로 김중섭(2005), 이선이(2007) 등이 있다.

김중섭(2005)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과정 안에 문화적 내용이 통합되어 유기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 연구의 동향을 크게 문화 교육 현황 및 과제, 문화 교육론, 문화 교육의 교재 반영, 단계별 문화 교육, 비언어 문화 교육, 문화 교육 내용 및 방안, 매개를 통한 문화 교육, 화용 교육 연구 등 8개의 주제로 나누어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1)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연구
- 2) 단계별 교육 내용 선정 연구
- 3) 교재 및 보조 자료 개발 연구
- 4)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교수요목 개발 연구
- 5) 다양한 학습자 활동 개발 연구

이선이(2007)에서는 한국 문화 교육에서 무엇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현행 연구의 흐름에서 탈피하여 타자(학습자) 중심으로 주체를 재구성하는 전향적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타문화 교육에서 문화인식방식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토대로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거시적 측면에서 문화 교육의 정체성에 따른 교육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실용적 측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한국 문화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교육내용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로 이석주(2002), 조항록(2004b), 박영순(2006), 김수현(2006) 등이 있다.

이석주(2002)에서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고유한 언어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의 내용 목록을 작성하고 수준별로 단계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문화의 내용을 언어 예절과 언어 내용으로 한정하여 분류한 것으로서 폭넓은 문화 내용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조항록(2004b)에서는 문화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토대로 한국어교육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 항목을 문화 내적 요소와 문화 외적 요소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 구성 및 평가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박영순(2006)에서는 구체적인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문화 교육의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론, 평가론에 이르기까지의 큰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 교육의 내용을 정신 문화, 언어 문화, 생활 문화, 예술 문화, 제도 문화, 과학기술 문화의 여섯 갈래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김수현(2006)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의 범위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맞는 문화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문화 교육의 방향을 문화 내용의 측면, 학습자의 요구 측면, 교사의 역할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박경자(1997)에서는 언어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문화의 유형을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배현숙(2002)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를 상징문화, 일상문화, 가치문화로 분류하는 등 항목 분류와 관련된 연구도 이어졌다.

이렇게 한국어교육의 문화 교육 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가 아직 타당하고 일관된 기준에 관한 토대를 갖지 못한 채 다소 소모적이며 반복적인 논의로 진행되고 있었던 한편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언어 교육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 실용적 측면이 우선되는 분야 중 하나로서 이런 실용적 차원의 인식은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 문학,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구상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문화 교육의 제재로 문학작품을 활용한 연구로는 이선이(2003)를 비롯하여 신주철(2003), 오세인(2004), 김종철(2005), 김수진(2009), 김동환(2010), 김정자(2014)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속담을 활용한 안경화(2001), 고전문학을 활용한 양민정(2005/2007), 안미영(2008), 김일(2010), 대중문화를 활용한 이미혜(2005), 영화를 활용한 나정선(2002), 이명주(2003), 한선(2007), 신문을 활용한 김훈(2008), 시를 활용한 김진호(2011), 수필을 활용한 최은영(2005) 등 다양한 제재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

이렇게 한국 문화 교육의 정체성이라는 거시적 측면과 구체적 교육 방안 마련이라는 미시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문화 교육에 대한 관점이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문화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좀 더 문화 자체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보면 언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문화는 언어 기능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적 접근의 출발점이며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의 가장 유력한 학습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더 나아가 언어 기능 교육의 목표가 결국 학습자를 해당 언어권 문화의 향유자로 거듭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문화를 궁극적으로 외국어교육이 도달해야 할 교육적 범주로 보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먼저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로는 김수진(2010), 배재원(2011), 송용실(2012) 등을 들 수 있다.

김수진(2010)에서는 문화 간 주체로서의 개인이 한국 문화와 모문화(母文化) 사이에서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문화 간 의사 소통 능력’으로 정의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인 분단시대 한국 문화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 문화 교육이 한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이 아닌 한국학 분야의 교육학적 연구 주제로서 학문적 정체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연구내용의 정리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분단시대 한국 문화 이외의 다른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배재원(2011)에서는 문화 교육의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서 ‘문화 이해 능력 (Cultural Literacy)’ 함양을 제안하였다. 교육 대상으로서의 한국 문화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 교육의 기본 원리를 도출하여 실제 한국 문화 교육의 접근 원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으로 인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송용실(2012)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 교육’ 또는 ‘이문화(異文化) 이해 교육’의 개념으로 ‘간문화(間文化) 능력’의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문화 능력이란 ‘지식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김동환(2009)에서 지적한 바 있는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소통장애’ 해소를 위한 ‘간문화적 언어능력 신장’이라는 맥락을 구체화한 논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외 박숙영(2007), 오승희(2008) 등의 연구에서도 문화 간 소통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언어가 중심이 되고 문화가 언어 교육을 위한 부수적 장치로 작용한다는 시각에서 점차 문화 중심적인 시각으로 이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문화 교육의 초기 연구가 언어 교육 중심으로 논의된 것은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국어교육 분야의 토대에서 처음 출발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이 국어교육의 내용적 차원과 외국어교육의 방법적 차원을 차용하여 그 토대를 수립하여 왔음을 볼 때, 내용면에서 국어교육의 체계를 차용한다 하더라도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좀 더 철저하게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다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문화 자체에 더욱 비중을 둔 시각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의 문화 교육 관련 연구는 주로 문화를 학습 내용의 범주로 설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왜’라는 부분이 약화된 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는 기능교육이 핵심이 되고 문화는 부수적

인 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언어가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언어가 문화의 하위 범주라는 입장과 언어가 곧 문화라는 입장, 즉 언어가 없이는 문화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선에서 교육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볼 때, 그동안의 문화 교육 관련 연구가 주로 문화를 학습 내용의 범주로 설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골몰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한국 문화를 ‘왜’ 배우는가, 즉 그들이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궁극적 목적과 그에 따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화 교육이 더 이상 언어 교육의 부수적 장치로서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면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목적에 맞는 문화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문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 교육 내용이 의사소통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사실적 지식’에 치우쳐 있었음을 인식하고,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에 필요한 ‘방법적 지식’으로 전환된 시각을 통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는 문화 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교육의 내용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문화와 교육 및 지식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화 와 한국 문화의 개념을 정의해 보고,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상관성 및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고찰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을 명시 한다.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가 언어가 중심이 되고 문화는 언어 교육을 위한 부수적 장치로 작용하는 것 으로 보았던 초기의 시각에서 점차 문화 중심적인 시각으로 이행해 온 흐름 을 따라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다.

2장에서는 먼저 기존 한국어교육 분야의 문화 교육의 목표 및 위상에 대해 반성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고찰한다. 교재를 만들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교육의 목표 설정과 교수요목 설계이므로 먼저 지금까지 문화 교육 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언어 수행 기능 평가의 기준과 비교하여 검토해 본다. 또한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판적 시각으로 비교, 검토한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언어 교육에서 주로 사실이나 현상 위주로 다루어졌던 문화의 개념을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에 필요한 문화 지식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리를 모색하고, 지식으로서의 문화 내용을 선 정 및 분류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문화’의 개념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문화’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본다. 즉, 지금까지 ‘문화’의 개념이 주로 과거의 문화적 업적 및 성취물 또는 예술과 관련이 있는 지적 유산 등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로 쓰였다면 언어 교육을 위한 ‘문화’의 개념은 인간이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룩해온 공동의 생활양식 및 행동 방식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확대된다.

이러한 문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상관관계 및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또한 문화와 교육에 관한 여러 이론을 고찰하여 교육 대상으로서의 문화 내용을 문화 지식의 개념으로 전환하

여 언어 교육에 필요한 문화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구안해 본다. 문화 지식은 Bloom(1956)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 분류 체계를 참고하여 크게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문화 항목 분류에 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한다.

3장에서는 지식의 개념으로 전환된 문화를 교육적 대상으로 삼기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먼저 앞 장에서 검토한 문화의 세부 항목을 토대로 현재 대학 기관별로 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한국 문화 교육 내용 및 수업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고 제시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문화 항목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방안의 토대를 마련한다.

다음으로 교육 목표 분류학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한국 문화 지식 교육을 위한 학습 단계를 설정하고,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누어 수업 내용을 구성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으로서의 문화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교수법에 관한 여러 이론을 검토하여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차원에서 문화 지식 중심의 교재 구성 방안 및 교육 방안을 설정하고, 텍스트 유형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재 내에서 텍스트를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의 실제를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측면으로 나누어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의 항목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의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행 연구 계획에 관해 언급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한다.

II. 지식으로서의 문화관과 문화 교육 항목

1.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반성적 접근

1) 문화 교육 목표에 관한 고찰

이 절에서는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문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 교육의 목표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교재의 내용을 분석, 검토해 본다.

먼저, 현재 주로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정규과정의 수업 과정을 살펴보면, 한 학기는 10주 과정(20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¹¹⁾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수업(주당 20시간)으로 구성된다.¹²⁾ 1년에 4학기가 진행되므로 1급부터 6급까지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 데는 약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계된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교재의 내용 구성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수업 교재로는 대학별로 발행되는 다양한 한국어 교재 및 부교재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국어교육 분야와 달리 한국어교육 분야의 교재는 각 대학별로 교육과정 및 수업내용 구성에 대한 개별적인 교재 개발 과정을 거쳐 발행되고 있어 대학별 교재들의 내용 구성이 각기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의 수업 활동도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국어교육 분야의 내용적 측면과 외국어교육 분야의 방법적 측면을 차용하고 있다고 볼 때, 한국어 교재의 주요 내용인 문법, 어휘, 표현 등의 내용적 측면은 국어교육 분야의 기준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그 외의 부가적인 내용 요소나 교수 방법의 차원에서는 여러 교재들의 장단점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1) 대학에 따라 15주, 16주, 20주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소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대학 기관에서 이러한 과정을 따르고 있다.

12) 정규과정 기준이며, 대학에 따라 문법 보충수업, 문화 체험 활동, 시험 대비반 등의 특별 과정 및 단기과정, 집중과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광범위한 항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게 되는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교재의 내용이 충실히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보편적이고 평준화된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고 교사의 측면에서도 수업 내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어 교재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재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적인 교수 요목을 설계하는 일일 것이다. 먼저 문화 교육의 목표 설정에 있어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그 기준점을 짚어볼 수 있다.

먼저 황인교(2008)13)에서 제시한 국내 대학 부설 교육 기관 한국어학당의 문화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문화 교육 목표의 예

급	목표	정리
1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	
2급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고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생활 적응 및 문화 이해
3급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한국의 예절과 풍습)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	
4급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한국의 풍습, 미신, 속담 등)를 이해한다.	문화 수용
5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의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	전문적 소개 및 설명 문화 소통

13) 황인교(2008),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의 실제」.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2008년 비교문화연구소 가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쪽.

여기서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 수준에 따라 초급에서는 기본 생활 적응 및 문화 이해, 중급에서는 문화 수용, 고급에서는 전문적 소개 및 설명, 문화 소통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단계별 문화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를 이해-수용-소통의 순서로 제시한 것은 언어 지식 습득과정인 이해-연습-표현의 과정을 고려하여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 것으로서 대략적인 교육과정 설계의 지침이 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구성 기준으로서는 아직 구체성이 부족하였다.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 구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곽지영 외 (2007)¹⁴⁾에서 제시한 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¹⁵⁾

〈표 2〉 한국어 급별 문화 영역 학습 목표

급	급별 학습 목표 중 사회문화적 능력
1급	<p>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을 갖는다.</p> <p>1) 인사말 중에 ‘어디 가요?’, ‘결혼했습니까?’ 등과 같은 개인적 질문을 친숙함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p> <p>2) 가족관계 어휘 구별</p> <p>3) 화자와 청자의 관계 : 상대 높임, 자기 낮춤</p> <p>4) 관계에 따른 호칭</p> <p>5) 의식주</p> <p>6) 상황에 따른 표현 : 공식적 표현, 문어체 등.</p>
2급	<p>1)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하지만 아직 이해의 정도가 충분하지는 못하다.</p> <p>2) 학생의 모국 문화와 다른 한국 문화의 독특한 양상을 거부감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p> <p>3)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문화적인 내용을 언어 학습의 주제와 연결해서 배운다.</p> <p>예) 식사습관, 교통 문화, 물건 사기, 여행 등.</p>

14) 곽지영 외, (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15) 곽지영 외(앞의 논문)에서는 한국어 급별 교수요목 설계의 예를 제시함에 있어 교수항목의 영역을 자모 체계, 발음 능력, 어휘·문법 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중 문화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회문화적 능력 항목을 참고하였다.

3급	<p>1)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소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간단히 소개할 수 있다. ② 일상생활에서 한국의 예절과 풍습 등을 소개할 수 있다. ③ 한국 풍습, 예절 등에 대한 지식을 요청할 수 있다. <p>2) 공적인 일을 어렵게 처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외국인에게 필요한 공적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②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공공장소에 문의할 수 있다.
4급	<p>1) 전문적인 것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직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2)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한다.</p> <p>3) 전화 대화나 방송의 알림, 방송 보도 등을 이해할 수 있다.</p> <p>4) 직설적이고 개인적 흥미 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텍스트라면 이를 이해하고 그 텍스트로부터 다음 단계의 진술이나 주제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p> <p>5) 일상적 사건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실용문, 일상적 주제에 대한 간단한 글쓰기를 할 수 있다.</p> <p>6) 자신의 학력, 경력 등 자신의 신상 자료의 요약을 쓸 수 있다.</p>
5급	<p>1) 교양적인 내용의 담화가 가능하고 매우 전문적 주제가 아니라면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 교환 등이 가능하다.</p> <p>2) 한국에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수행할 수 있다.</p> <p>3)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가능.</p> <p>4)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공공 기관에 자신의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 등을 호소할 수 있다.</p> <p>5) 일부 방언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향토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p>
6급	<p>1)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텍스트 생산이 가능하다.</p> <p>2) 한국 대학생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내용에 대한 집단적인 토론 및 사회자 역할을 할 수 있다.</p> <p>3) 한국에서 조직체 및 기업의 운영이 가능하고 조직 운영과 관련된 지시 및 비판, 토론 등을 수행할 수 있다.</p> <p>4)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p> <p>5) 재판, 소송과 같은 공적 업무의 이해와 참여가 가능하다.</p> <p>6) 준비된 내용으로 한국의 역사 및 전통 문화, 지역별 특성에 대한 소개 및 안내가 가능하다.</p>

이것은 앞서 살펴본 황인교(2008)과 비교할 때 문화 교육 목표의 대략적 기준에 언어 수행의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언어 교육의 목표를 생각할 때 언어 수행 기능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의 제시와 선정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 및 언어 수행 기능의 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표 3>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급별 평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표 3>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별 평가 기준¹⁶⁾

등급	평가 기준
1급	<p>‘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p> <p>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p> <p>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p>
2급	<p>‘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p>
3급	<p>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p> <p>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16) www.topik.go.kr

4급	<p>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5급	<p>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p> <p>‘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p> <p>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p>
6급	<p>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p> <p>‘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p>

이와 같이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설계를 위한 문화 교육의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살펴본 결과 등급별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수행 기능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학문적, 전문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원어민 화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 교육의 목표가 주로 한국 문화의 이해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문화 지식이 여전히 언어습득의 부수적 정보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어교육 분야와 한국어교육 분야의 가장 주요한 구분점 중의 하나인 학습자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모국어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국어 학습자와 달리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성

인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주체이다.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 및 경험적 지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로 여전히 지식의 전달 및 이해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이 고국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모국어와 모국어 문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성인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자국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학습의 주체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은 학습자가 자국의 문화와 비교, 대조를 거치고 경험적 지식과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진정한 문화 수용에 이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현재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과 수업 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위상에 관해 고찰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위상에 관한 고찰

먼저 각 대학별 초급 교재의 내용 구성을 비교해 본다.

현재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5개 대학의 교재¹⁷⁾를 대상으로 단원의 수와 단원별 내용 구성을 비교하고 1급 교재의 1~5단원까지의 교수요목을 검토하였다.

각 교재의 교수요목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언어 지식 부분인 문법 및 어휘는 제외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연관된 기능 수행 과제 및 수업 활동, 문화 내용 제시의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비교의 기준 항목을 통일하기 위해 단원의 제목은 ‘주제 및 상황’으로, 그에 따른 언어 활동을 ‘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하나의 대단원을 몇 개의 소단원으로 나눈 경우에는 각각의 소단원에 제시된 내용을 ‘기능’으로 함께 분류하였다. 이어지는 후속 활동은 ‘과제 및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문화’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문화’란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였다.

(1) ‘가’ 교재의 경우 :

각 급별로 1~30과로 구성되며, 각 단원은 주제 및 상황, 문법 및 표현, 활동, 어휘로 구성된다. 대표적인 문법 중심 교재로서 주로 교사의 설명, 연습문제 풀이를 통한 문법과 어휘 연습, 간단한 확장 활동 또는 심화 활동으로 구성되며 문화 내용은 따로 제시되지 않는다.

1과부터 5과까지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17) ‘가’ 교재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1~4」, 문진미디어.

‘나’ 교재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 한국어 1A~6B」, 연세대학교 출판부.

‘다’ 교재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1),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라’ 교재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 한국어 1~1 ~ 3~2, 4, 5, 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마’ 교재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8), 「서강 한국어 1A~5B, 읽기 6」, 서강대학교 출판부.

단원	주제 및 상황	기능	활동(과제)	문화
1과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문장 표현하기 · 교실 용어 익히기 · 지시어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주변의 사물 이름 묻고 대답하기 	
2과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 부정으로 묻고 대답하기 · 간단한 정보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의 사물 이름을 익히며 문답하기 · 사물 그림 보고 대화 완성하기 	
3과	자기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하기 · 격식체를 써서 인사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하는 글 쓰기 · 자기 물건에 대해 말하기 	-
4과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에 대해 표현하기 · 경어법으로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질문해 보기 · 특정 장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말하기 	
5과	간단한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문 표현하기 · 간단한 정보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조사를 활용하여 이야기 완성하기 · 긍정, 부정으로 대답하기 	

(2) ‘나’ 교재의 경우

각 급별로 1~10과로 구성되고 각 과는 4개의 소단원으로 나뉘므로 한 급은 총 40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진다. 각 소단원은 과제, 어휘, 문법, 문화로 구성되며 과제는 주로 기능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문화’란에는 단원별 주제와 관련된 보충 설명이 제시되는데 초급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의 학습자 모국어로 제시되고 중급, 고급에서는 한국어로 제시된다.

1과부터 5과까지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원	제목 (주제 및 상황)	소단원 제목 (기능)	과제(활동)	문화
1과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름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의 이름 한국인의 인사 예절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 말하기	
		회사원이 아닙니다.	직업 말하기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기	
2과	학교와 집	이것이 교과서입니까?	물건 이름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말에 갈만한 곳 한국의 위치와 크기
		지도도 있습니까?	교실 물건 말하기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시설물 위치 말하기	
		집이 어디입니까?	집 위치 말하기	
3과	가족과 친구	가족사진을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칭 아줌마와 아저씨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족 소개하기	
		공기도 좋고 조용합니다.	고향에 관해 말하 기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 합니다.	친구에 관해 말하 기	
4과	음식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식사 문화 한국인의 음식 인심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저는 불고기를 먹고 싶습 니다.	음식 고르고 권하 기	
		여기 물 좀 주십시오.	음식 주문하기	
5과	하루 생활	지금 몇 시예요?	시간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이삼’과 ‘하나둘셋’ 손가락으로 숫자 세기
		오늘이 몇 월 며칠이예요?	날짜와 요일 말하 기	
		일곱 시 반에 일어나요.	하루 생활 말하기	
		친구하고 무엇을 했어요?	과거 시제(행동) 말하기	

(3) ‘다’ 교재의 경우

각 급별로 1~15과로 구성되고 각 단원은 주제, 기능, 어휘, 문법, 활동, 발음, 문화 등으로 매우 세분되어 있는 편이다. 각 과의 주제에 맞는 간략한 보충 설명이 ‘문화’란에 제시되는데, 초급은 영어로, 중급·고급은 한국어로 제시된다.

1과부터 5과까지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원	주제 (상황)	기능	활동(과제)	문화
1과	인사 1	· 인사 · 자기소개	· 처음 만난 두 사람의 대화 듣기 · 이름, 국적, 직업 말하기 · 명함 읽기, 자기소개 글 읽기 · 자기소개 글 쓰기	인사하기 1
2과	일상 생활 1	· 일상생활 말하기	· 장소와 활동에 관한 대화 듣기 · 같이 갈 친구 찾기, 오늘 할 일 묻기 · 신호와 표지판 읽기 장소와 활동에 관한 글 읽기 · 장소와 활동에 관한 글 쓰기	인사하기 2
3과	물건 사기	· 물건 사기 · 가격 묻기	· 가게 점원과 손님의 대화 듣기 · 가게에서 물건 사기 · 영수증 읽기 · 사야 할 물건 목록 만들기	한국의 돈 (화폐)
4과	일상 생활 2	· 과거 일 말하기 · 일상생활 말하기	·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 듣기 · 일상생활에 관해 이야기하기 · 일상생활에 관한 글 읽기 · 어제와 오늘 한 일 쓰기	시간과 주소
5과	위치	· 장소와 물 건의 위치 말하기 · 길 묻기 · 길 알려주 기	· 길 묻고 대답하는 대화 듣기 · 길 묻기 · 길 묻는 글 읽기 · 길 묻는 글 쓰기	감사하기 와 사과하기

(4) ‘라’ 교재의 경우

각 급별로 1~15과로 구성되고 Part 1(준비, 말하기), Part 2(준비, 말하기), Part 3(듣기, 읽고 쓰기), 문화와 문학으로 나뉜다. ‘나’, ‘다’ 교재와 마찬가지로 문화 란에 주제와 관련된 설명과 간단한 질의응답용 질문이 제시되며 초급부터 매 단원에 문학을 다루고 있는 점이 다른 교재와 차별된다.

1과부터 5과까지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원	제목 (주제 및 상황)	기능	활동(과제)	문화와 문학
1과	한국어 와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익히기 · 문장 만들기 	-
2과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나누기 · 자기 소개하기 · 전화번호를 묻는 대화 듣기 · 자기소개 글 읽고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이름과 호칭 · 개구리(시)
3과	학교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생활에 대해 말하기 · 수업 일정에 대해 말하기 ·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듣기 · 동아리 안내문 읽고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교육 제도 · 일요일 행진곡(시)
4과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시설 위치 알려주기 · 장소, 위치 설명하기 · 물건 위치를 묻는 대화 듣기 · 집 소개의 글 읽고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 섬(시)
5과	하루 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정보 얻기 · 하루 일과 말하기 · 하숙집 생활에 대한 대화 듣기 · 하루 일과에 대한 글 읽고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수 · 오륙도(시조)

(5) ‘마’ 교재의 경우

각 급별로 1~8과로 구성되고 각 단원은 말하기(문법, 대화, 과제),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로 나뉜다. 다른 교재에서 1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한글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자모 및 발음을 익힐 수 있는 내용을 배치하는 것에 비해 이 교재에서는 한글 1~4, 준비 1~4 등 준비단계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문화’란을 따로 두지는 않았지만 각 단원별 활동에서 문화 관련 상황 및 어휘를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교재들 중에서는 문화 내용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구현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1과부터 5과까지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원 / 제목 (주제 및 상황)	대화(기능)	과제(활동)		문화
		과제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한글 1~4	-	한글 연습	-	
준비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분이 누구예요?	자기소개	-	
준비 2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 거예요?	의자?	-	
준비 3 커피 주세요	커피 있어요? 지우개 두 개 주세 요.	하나·둘·셋	-	
준비 4 서울역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잠실에 있어요	앤디 씨가 어디에 있 어요?	-	
1과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가 몇 번 이에요? 생일이 며칠이에 요? 얼마예요?	생일 축하 합니다.	집 전화번호가 705-7189예요. 5월 26일이 제 생일이에 요.	

2과 어디에 가요?	오늘 오후에 뭐 해 요? 어디에 가요? 몇 시에 학교에 가 요?	저는 매일 ...	서울은 아침 일곱 시예 요. 한 시에 시간이 있어요?
3과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주말에 뭐 해요? 영화를 봐요. 체육관에서 운동해 요.	거리에서 식사해요?	학교에서 태권도를 배워 요. 저도 영화를 좋아해요.
4과 어제 학교에 안 갔어요	3일 전에 쌌어요. 학교에 안 갔어요. 요리도 했어요.	누가 했어 요?	파티가 열한 시에 끝났 어요. 왜 약속 장소에 안 왔어 요?
5과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제 핸드폰 봤 어요? K 빌딩 앞에 있어 요. 운동하러 가요.	서점이 어 디에 있어 요?	은행은 서점하고 우체국 사이에 있습니다. 수잔 씨를 만나려 사무 실에 갔어요.

이와 같이 대학 기관별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및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교육 내용 선정에 일관성이 없고 교육 항목 제시에 있어서도 각각의 교재가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광범위한 내용을 주제 및 언어 기능과 적절히 부합되도록 제시해야 하기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문화 항목에 대해서는 문화를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한 경우, 각 단원별로 문화 란을 배치한 경우, 문화에 대한 설명적 텍스트를 필요에 따라 교재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게 분화한 형태로 교재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위의 교재 중 ‘문화’란을 별도로 구성한 ‘나’, ‘다’, ‘라’ 교재의 급별 주제 및 문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초급 한국어 교재의 단원별 문화 교육 내용 비교

급	과	내용	'나' 교재	'나' 교재	'라' 교재
초급	1과	제목 문화 제목 문화	인사 한국인의 이름 / 한국인의 인사 예절 학교와 집 주말에 갈만한 곳 / 한국의 위치와 크기	자기소개 한국인의 인사 예절 일상생활 I 한국인의 인사말 물건 사기	한국어와 한글 -
	2과	제목 문화	가족과 친구 호칭 / 아줌마와 아저씨	한국인의 이름과 호칭 / 개구리(ㅅ)	소개 한국인의 이름과 호칭 / 개구리(ㅅ)
	3과	문화	음식	한국의 화폐 한국의 화폐	학교생활 한국의 교육 제도 / 일요일 행진곡(ㅅ)
	4과	문화 제목 문화	한국의 식사 문화 / 한국인의 음식 인심 하루 생활	일상생활 II 시간, 주소 쓰는 방법 위치	지급 한국인과 수 / 오류도(시조)
	5과	문화 제목 문화	'일이상'과 '하나둘셋'/손가락으로 숫자 세기 물건 사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음식	한국인과 수 / 오류도(시조) 주말 한국인의 주말 활동 / 고백(ㅅ)
	6과	문화 제목 문화	숫자 입기 / 생일 교통	한국의 상차림 약속	가족 가족 호칭 / 엄마야 누나아(ㅅ)
	7과	문화 제목 문화	서울 관광 / 서울 지하철 전화	생각해 보겠습니다(기절) 날씨	물건 사기 한국의 돈 / 소금이 나오는 맷돌(전래동화) 계획
	8과	문화 제목 문화	한국인과 휴대전화 / 주요 전화번호 날씨와 계절	한국의 계절과 날씨 주말 활동	한국인의 새해 계획 / 새로운 길(ㅅ)
	9과	문화 제목 문화	한국의 봄꽃 / 장마와 흉사 휴일과 방학	한국인의 주말 활동 교통	음식 김치 / 호랑이와 꽃감(전래동화)
	10과	문화 제목 문화	한국 영화 / 즐거운 노래방	서울의 대중교통 전화	교통 서울의 대중교통 / 아리랑(민요)
	11과	문화 제목 문화	한국의 통신 문화 침마	한국인의 여름 / 청개구리(전래동화) 가족	날씨 한국인의 침마 생활
	12과	문화 제목 문화	-	가족 호칭 우체국·은행	전화 한국 생활에 유용한 전화번호 / 통화(ㅅ)
	13과	문화 제목 문화	-	한국의 신분 확인 수단 악극	약속 젊은이들의 거리, 신촌 / 사랑가(판소리) 침마
	14과	문화 제목 문화	-	한국의 악극	한국 시골의 침마, 등산 / 피아노(ㅅ)
	15과	문화	-	-	-

교재의 단원 구성에서 ‘문화’란을 별도로 할애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다른 교재들에 비해 문화 교육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란의 내용은 여전히 단원의 주제 및 내용 구성에서 중심적 정보가 아닌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정보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재의 내용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문화 내용이 필수적이고 중심적인 위치에서가 아니라 추가적이며 부수적인 시각으로 다루어지다보니 다른 교재에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단원이 있을 때 교재의 내용에 비해 ‘문화’란의 내용은 제각기 다른 내용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세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음식’이라는 단원 주제에서 ‘나’ 교재의 ‘문화’란에는 한국의 식사 문화와 한국인의 음식 인심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고, ‘다’ 교재에서는 한국의 상차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라’ 교재에서는 ‘김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이라는 단원 주제에 대해 ‘나’ 교재의 ‘문화’란에는 ‘일이삼’과 ‘하나 둘셋’, ‘손가락으로 숫자세기’에 대한 내용이 제시된 반면 ‘다’ 교재에서는 한국인의 인사말과 시간, 주소 쓰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라’ 교재에서는 한국인과 수에 대한 내용 및 오류도라는 시조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개별 교재의 교육 내용 구성이 각기 다르고 특히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소인 문화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 제시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다소 자의적인 문화 교육 목표 설정에 따른 문화 항목 구분 및 문화 항목별 교육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교재개발의 문제점과 개별 연구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내용 선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취합하는 방법으로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 확산 문화프로그램 연구’¹⁸⁾ 및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¹⁹⁾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8) 강현화(2011), 「한국어 확산 문화프로그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9) 김중섭(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중섭(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경희대학교

이것은 문화 항목 및 문화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관한 그간의 방대한 연구물들을 취합한 결과로서 한국 문화 교육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는 연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추출된 한국 문화 교육 항목들을 한국어 교육의 필수 요소인 문화 지식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문화 교육 방안 마련의 선행 과제로서 교육 대상으로서의 문화 지식 분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문화현상의 지식체계로의 전화(轉化)와 문화 항목의 선정

1) 문화 현상의 지식화

(1) ‘문화’의 개념

‘문화’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워낙 방대한 것으로서 연구되는 분야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어 왔다. 문화의 개념에 대한 연구는 본래 인류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분야에서 ‘문화’에 내린 정의만 해도 대략 3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²⁰⁾ 김대행(2008a)에서도 문화의 개념을 말하는 데만도 182쪽에 이르는 한 권의 책(Jenks, 1995)²¹⁾이 필요했다는 예를 보이면서, ‘문화’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다층적인 개념이어서 문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Brooks(1975)²²⁾는 문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big C' 문화(Culture)와 'little c'문화(culture)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여 정의를 내렸다.

- i) big C 문화 : 고전 음악, 무용, 문학, 예술, 건축,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등 문화적 관례를 일컫는 것.
- ii) little c 문화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양식, 태도, 신념, 가치체계 등 집단이 공유하는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개념.

Hendon(1980)²³⁾은 이렇게 문화를 big C와 little c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고급 문명의 성과들인 big C는 주로 과거와 관련되고 little c는 일상 생활 문화 중심으로서 현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20) 배재원(2011), 15쪽.

21) Jenks, C., (1995), 「Culture」, Routledge.

22) Brooks, Nelson., (1975). 「The Analysis of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In Robert Lafayette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ILL. : National Textbook.

23) Hendon, Ursula S.(1980), 「Introducing Culture in Elementary College Language Classes」 . Modern Language Journal 64 (2).

1960년대 이전에는 big C 문화, 즉 문화의 형식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의사소통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little c 문화에 대한 이해가 문화 학습에서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었다. 실제로 big C 문화는 목표 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며 목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해 주기는 하지만, big C 문화를 아는 것만으로 그 문화권의 사람들과 문화적 마찰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문화 지도에 있어 협의적 의미의 ‘Culture’가 아닌 포괄적 의미의 ‘culture’ 지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²⁴⁾

Tomalin & Stempleski(1993)에서는 문화를 역사, 지리, 제도, 문학, 미술, 음악, 생활 방식 등과 같이 그 사회 구성원이 성취한 총체적인 문물(big C)과 일반 행위 문화(little C)로 나누고, 그 중에서 언어생활과 생활 공동체에서 접하는 행위 문화(little C)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항록(2004b)에서는 이렇게 문화를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한 외국어 교육 분야의 문화 분류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정 및 평가의 측면을 고찰하였는데, 모든 등급에서 전통문화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통 보다는 현대 사회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외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의 개념은 크게 일상생활 문화와 성취문화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언어습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현대 일상생활 문화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김대행(2003)에서 문화를 크게 ‘삶의 방식(way of life)’과 ‘지적 세련(intellectual seriousness)²⁵⁾으로 구분하고 다시 문화의 성격에 따라

24) 김진철 외(1998), 「초등 영어 교수법」, 학문출판(주), 453-454쪽.

25) 유럽은 19세기 들어 민족주의(nationalism)'를 표방하면서 국민, 국가, 시대에 따른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문화는 '삶의 방식(way of life)'으로 이해되는 계기를 맞는다. 이런 사정 때문에 문화는 차이, 특수성, 개별성 등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이런 동향은 이어 낭만주의로 전개된다. 인류학이라는 학문의 발전도 이와 관계가 깊고, 오늘날 '음식문화'니 '쓰레기 문화'니 하는 말을 사용하는 기반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특히 영국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극심한 사회계급의 변동은 아놀드(Arnold, M.)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의 주도로 문화를 '지적 세련(intellectual refinement)'으로 재정의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문화는 삶의 방식 가운데 지적 진지성(seriousness)을 지닌 것만으로 한정된다는 관점을 낳게 된다. 예술, 철학, 학문 등을 문화라고 보는 관점은 이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를 일러 오늘날에는 '고급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대행(2008b), 4쪽.

‘성취문화(achievement culture)’와 ‘행동문화(behavior culture)’로 구분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과들을 토대로 이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의 개념은 주로 성취문화와 행동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이를 교육에 실제 적용하기 위해 다시 각각의 범주별로 세부 항목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가 이어지게 되었다.

곽지영 외(2007)에서는 이렇게 문화 범주와 세부 영역의 구분에 관해 논의한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i) 박경자 외(1997) :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
- ii) 배현숙(2002) : 상징문화, 사회제도를 포함한 일상문화, 가치문화
- iii) 박영순(2003) : 정신문화, 언어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제도문화, 과학기술 문화
- iv) 조향록(2004a) : 언어문화, 일상생활 문화, 성취 문화

이러한 초기의 구분은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을 감안한 구체성의 요구에 따라 점점 체계적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임경순(2009)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한국인의 정체성과 지리, 의식주, 여가와 관광, 세시풍속과 의례, 공동체 문화, 성(性)과 결혼, 정치와 교육, 경제와 과학기술, 정신문화, 대중문화와 예술문화, 언어와 문학 및 문화유산 등 11개 항목으로 세분하였고, 박영순(2010)에서는 정신문화, 언어문화, 문학, 예술문화, 생활문화, 제도, 역사, 자연과 산업기술, 문화재, 한류 등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안진숙(2010)²⁶⁾에서는 한국 문화의 유형을 크게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언어문화, 생활 문화(민속 문화), 역사문화, 정신문화, 정보문화(예술 문화)로 분류하여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 안진숙, (2010),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 연구 : 고급 교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표 5〉 한국 문화의 내용 분류

문화 유형	전통 문화	현대 문화
언어문화	속담, 격언, 고전문학(설화, 시조)	호칭, 존경 표현, 언어 게임, 문학 작품(시, 수필)
생활문화 (민속문화)	한복, 전통 음식, 한옥, 관혼상제, 명절, 생활 풍습, 세시풍습(놀이)	주말 여가 생활, 놀이문화(노래방), 집들이 문화, 선물, 관습(돌, 회갑), 생활 정보, 대중 매체
역사문화	사건과 인물, 문화재, 유적지	한국 소개, 지도와 관광지, 박물관 소개, 인물 소개
정신문화	꿈, 해몽, 미신, 사상체질 등	가치관 종교, 정서
정보문화 (예술문화)	판소리, 탈춤, 그림, 건축	대중가요, 영화, 드라마, 인물 소개

이렇게 문화를 범주화하고 세부 항목 위주로 분류하는 일련의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서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화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선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마련하였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는 일관된 기준이나 확고한 이론적 토대를 갖지 못하였고 다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대동소이한 결과들을 되풀이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이런 분류를 근거로 한국어 교재에 문화 내용을 제시한 경우 단편적 사실의 전달 및 정보의 나열에 그치게 되어 그를 통해 실제적 언어 기능을 습득하는 목표와 효율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것은 문화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다루는 기준이 위에서 언급한 기준 중 ‘삶의 방식’보다는 ‘지적 세련’이라는 수준에 좀 더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 교육은 실용적인 차원이 가장 중요시되는 분야의 하나로서 실제의 삶과 동떨어진 사실이나 정보의 제공만으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김대행(2008a)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언어, 문화, 교육이라는 세 가지 핵심어가 논의의 기본임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곧 광범위한 문화를 언어와의 관련성 및 교육에서의 필요성과 관련지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지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문화를 ‘삶의 방식(way of life)’과 ‘지적 세련(intellectual seriousness)’으로 구분하였던 앞의 연구와 관련하여 조애리 외(2011)²⁷⁾에서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 i) ‘예술과 예술적 활동’으로서의 문화
- ii)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 iii) 과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

여기서 1)을 ‘지적 세련’과, 2)와 3)을 ‘삶의 방식’과 관련지어 볼 때 문화의 개념을 주로 ‘지적 세련’이라고 보았던 이전의 연구에서보다 ‘삶의 방식’이라는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승혜 외(2010)²⁸⁾에서 제시한 김경수(1990)²⁹⁾ 및 최주열(2008)³⁰⁾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i) 김경수(1990)에서 제시한 ‘문화’의 정의 :

- E. B. Tylor : 문화는 지식, 신앙,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
- R. Linton : 문화는 특정 사회의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고 전승되는 지식, 태도 및 습관적 행위 유형의 총합.

ii) 최주열(2008)의 정의 :

- 인간에 의해 조작되고 형성된 문화는 인간 정신 작용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7) Elaine Baldwin 외 공저, 조애리 외 공역, (2011), 「문화 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도서출판 한울.

28) 강승혜 외, (2010), 「한국 문화 교육론」, 형설출판사.

29) Roger M. Keesing 저, 김경수 역(1990), 「현대 문화 인류학」. 현음사.

30) 최주열, (2008), 「한국 문화 교육 접근 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제4권 제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2-127쪽.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의 개념에 대한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간추려보면, 지금까지 문화의 개념은 주로 과거의 문화적 업적 및 성취물 또는 예술과 관련이 있는 지적 유산 등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룩해온 공동의 생활양식 및 행동방식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고급 과정을 수료하고도 여전히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토로한 것은 현재 한국어 교재의 내용 구성이 여전히 언어 지식 전달에 치중되어 있으며 언어습득에서 문화 지식 습득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실제 교육현장에는 이러한 문화 인식의 변화가 효율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 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구체적 내용 선정 및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문화의 개념이 광범위한 것과 같이 ‘한국 문화’로 이름붙일 수 있는 개념도 쉽게 한정지을 수 없으리만치 방대하며, 그 중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선별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문화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한국 문화의 항목을 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지식이라는 측면으로 한정하고, 다시 언어 교육에 필요한 문화 지식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눈 틀 안에서 한국어 교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한국 문화 내용에 대한 교육 방안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실적 지식은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배경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협의의 문화 개념을 포함하며, 방법적 지식은 그 문화적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창한 언어 사용과 자연스러운 행위의 표현으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광의의 문화 지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화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 문화 지식 분류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다음 절에서 언어 교육과 문

화 교육의 상관성 및 필요성, 지식의 분류 체계 및 분류 기준에 필요한 이론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를 계속한다.

(2)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

언어 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에 초점을 두게 된 1970년대 이후 ‘언어 능력’이란 그 언어가 쓰이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으로 인식되면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안진숙(2010)³¹⁾에서는 “타문화 사람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 지식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Seelye(1974)³²⁾와 Riverse(1981)³³⁾의 주장을 바탕으로,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i)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 ii) 타문화 사람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 iii) 문화 교육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내적 동기를 일으키며, 이러한 호기심은 교육을 활성화시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게 하므로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목표 언어 학습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으므로 외국어 학습자에게 있어 목표어 사회에 대한 문화 교육은 중요한 학습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재영 외(2005)에서도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위 양식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 언어의

31) 안진숙, (2010),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 연구 : 고급 교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 학과 석사학위 논문, 8-9쪽.

32) Seelye, H. N., (1974), 「Teaching Culture :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ational Textbook Company, 188쪽.

33) Reverse,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9쪽.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따라서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은 분리할 수 없으며,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문화 교육이 반드시 더 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i) 언어에는 그 언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양식이나 관습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속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ii)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 문화 오해로 인해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iii) 문화를 통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정숙(1997), 조항록(2001), 박영순(1989, 2001) 등 다수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관련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박영순(2007)에서는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 i)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의 대략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ii) 모문화와 목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iii)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 표현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알맞은 행동과 언어적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 iv)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비교·대조할 수 있다.
- v) 목표 언어를 구사할 때는 목표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 vi)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 문화와 목표 언어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두 언어문화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중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과 언어 표현을 이해하여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나 ‘목표 언어권의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에 따라 목표 언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법이나 어휘 등의 언어 지식뿐 아니라 문화적 지식이 체득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 지식이란 김수진(2010)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배재원(2011)의 ‘문화 이해 능력’, 김동환(2009) 및 송용실(2012)의 ‘간문화 능력’, 강승혜(2011)의 ‘상호문화적 능력’ 등에서 강조된 ‘문화 능력’의 토대가 되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교재를 통해 한국어의 언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인이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말하는 방식에서 시작하여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대중교통과 공공기관을 이용하며 불편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권의 언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 외에 그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러 연구의 결론이 일치점에 도달한다.

이것을 앞서 제시한 언어, 문화, 교육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상관성을 지니면서도 교육 대상이라는 차원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언어 지식과 문화 지식은 그 내용 면에서 어떻게 구분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지식의 분류 체계를 통하여 지식의 구체적인 개념과 분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본다. 언어 지식과 문화 지식의 내용 및 교육 방법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와 교재 구성을 위한 교수요목 선정 및 교육내용 배열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지식의 분류 체계

앞서 외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의 내용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교육 과정의 특성상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문화 내용을 한국어 교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으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 및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교재에 수록될 교육 내용, 즉 언어 교육에 필요한 ‘문화 지식’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화’의 개념이 광범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범위도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개념이므로 그 가운데 어떤 것을 교수-학습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교육내용으로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³⁴⁾

문화를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였던 김대행(2008a)에서는 지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i) 사실적 지식(knowing that), 또는 대상적 지식
[명제, 인지]
- ii) 실천적 지식(knowing how), 또는 방법적·절차적·능력적 지식
[명제, 정도]
- iii) 친숙적 지식(acquaintance), 또는 직접지
[인지, 정도]

이렇게 사실적 지식과 실천적(방법적, 절차적, 능력적) 지식을 분류한 것은 타문화권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실적 지식뿐 아니라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사실적 지식 전달 중심이었던 그동안의 문화 교육에서 방법적 지식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식의 분류를 교육의 대상으로서 좀 더 구조적이고 체

34) 한국의 언어문화 교육에서 교육할 내용으로서의 지식이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가는 이 방면의 일차적인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김대행(2008a). 33쪽.

계적으로 시도하기 위하여 Bloom(1956)³⁵⁾의 교육 목표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Bloom(1956)에서는 교육 목표를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지식(knowledge), 이해(comprehension),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종합(synthesis), 평가(evaluation)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지적 영역의 분류는 실제 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활용되어 왔다.

외국의 경우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학 표’에 기초하여 목표를 분석하고 수업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능력과 더 높은 인지 단계를 사용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³⁶⁾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로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시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지적 영역에서 지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특수사상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Specifics)
2. 특수사상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Ways and Means of Dealing with Specifics)
3. 보편적 및 추상적 사상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the Universals and Abstractions in a Field)

그리고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1. 특수사상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Specifics)
 - 1.1 용어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Terminology)
 - 1.2 특수사실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Specific Facts)

35) Bloom, B. S., et al,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 Handbook 1. Cognitive Domain」, David McKay Company.

36) 김명옥, (2013), 「Bloom의 신 교육 목표 분류학에 기반한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목표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쪽.

2. 특수사상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Ways and Means of Dealing with Specifics)

2.1 형식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Conventions)

2.2 경향과 순서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Trends and Sequences)

2.3 분류와 유목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Classification and Categories)

2.4 준거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Criteria)

2.5 방법론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Methodology)

3. 보편적 및 추상적 사상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the Universals and Abstractions in a Field)

3.1 원리와 통칙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Principles and Generalizations)

3.2 학설과 구조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Theories and Structures)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류된 지식은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로 설정된 지적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조직되고 학습된다.

〈지적 능력 및 지능〉

2. 이해력(Comprehension)

2.1 번역(Translation)

2.2 해석(Interpretation)

2.3 추론(Extrapolation)

3. 적용력(Application)

4. 분석력(Analysis)

- 4.1 요소의 분석력(Analysis of Elements)
- 4.2 관계의 분석력(Analysis of Relationships)
- 4.3 조직원리의 분석력(Analysis of Organizational Principles)

5. 종합력(Synthesis)

- 5.1 독특한 의사전달 자료의 창조(Production of a Unique Communication)
- 5.2 조작의 계획 및 절차의 창안(Production of a Plan, or Proposed Set of Operation)
- 5.3 추상적 관계의 도출(Derivation of a Set of Abstract Relations)

6. 평가력(Evaluation)

- 6.1 내적 증거에 의한 판단(Judgements in Terms of Internal Evidence)
- 6.2 외적 준거에 의한 판단(Judgements in Terms of External Criteria)

이것은 교육의 인지적 과정을 중요하게 인식한 교육 철학의 개념으로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기준에 맞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Bloom(1956)에서 지식을 ‘특수사상에 관한 지식’과 ‘특수사상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으로 구분한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수사상에 관한 지식’이란 어떠한 고정된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지식, 즉 사실적 지식의 성격을 띠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특수사상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이란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고 활용하여 의미 있는 행위로 연결되도록 하는 지식, 즉 방법적 지식의 성격을 띠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된 지식을 이후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개념에 적용해봄으로써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loom(1956)의 지식 분류는 이후 여러 학교 교과에 적용되면서 그 분류의 타당성 및 교육적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라는 교과에

적용된 예가 없는 것은 문화를 교육의 대상인 지식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재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가 더 이상 언어 교육의 부수적 정보의 차원이 아닌 필수적이며 중심적인 요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의 방법적 측면의 개발을 위하여 문화를 지식으로 정의하고 교육 목표에 따라 문화의 성격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해 고찰해보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4) 문화가 지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이유

문화 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사실적 지식(대상적 지식)을 위주로 이루어 졌던 것은 한국어교육의 현장이 매우 교재 의존적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즉, 한국어교육을 위한 언어 지식을 주제와 기능 중심으로 조직하여 나열하고 있는 기존 교재의 틀 속에서 문화 교육의 내용은 해당 단원의 주제와 기능에 맞는 부수적인 내용들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문화 항목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없고, 언어 기능과 문화 내용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 내용이 교재화를 위한 실용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에서 벗어나 방법적 지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자아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방법적 지식을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습득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과 시행착오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의 방법적 지식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교재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 및 언어 능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상황 대처 능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은 언어, 행동, 태도 모두를 포괄하며 이 모든 것에서 표출된다. 그러나 언어적 지식만으로는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방법적 지식의 중요성이 발견되며 문화가 교육 대상인 지식으로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문화 교육을 통해 언어 교육의 목표는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모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한 자기성장 및 자기발전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 지식이 교재에 효율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문화 지식의 항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학습자의 수준과 필요에 맞게 배열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식으로서의 문화 항목을 분류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2) 지식으로서의 문화 항목의 분류

이 절에서는 강현화(2011)와 김중섭(2011)에서 제시한 문화 유형 구분 및 문화 범주별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분류의 기준 및 분류 방안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강현화(2011)에서는 현행 한국어 교재와 선행연구³⁷⁾로부터 총 723개의 문화 항목을 추출하고 다음과 같이 문화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³⁸⁾

〈표 6〉 문화 유형별 범주 구분

구분	문화유형별 범주		
시대별	전통문화		
	현대문화		
문화유형별		성취문화	
행동문화	정보문화		
		언어문화	
행동문화		일상문화	
		가치문화	

이렇게 문화의 유형을 크게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 것은 Hammerly(1986)³⁹⁾의 문화 구분을 따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Hammerly(1986)에서의 항목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학위논문 61편, 학술지 논문 53편,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의 통합 교재 4종 21권, 문화 전문 교재 18종을 분석하여 문화 교육 항목을 추출하였다. 강현화(앞의 논문), 10쪽.

38) 문화유형별 세부항목은 부록 1 참조.

39) Hammerly, H., (1986), 「Synthesi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Second Language Publications.

- i) 정보문화(Information of factual culture) : 일반적인 교육을 받은 원어민이 그가 속한 문화권의 사회, 지리, 역사, 인물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과 관련된 문화
- ii) 행동문화(Behavioral culture) : 일상생활의 총합에 관련된 것.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물질적, 심리적 욕구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 그리고 전통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한 사회를 규정짓는 유형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 생활양식, 관습 등을 말한다.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형태로 외국어 학습에서 강조되어야 함
- iii) 성취문화(Achievement or accomplishment culture) : 편지, 미술, 음악 등 한 사회의 예술적, 문화적 업적

이와 관련하여 Stern(1992)⁴⁰⁾에서는 기존의 문화 분류가 백과사전식으로 너무 세부 항목으로 나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여 외국어 학습에서 문화 교육에 부합하도록 여섯 가지 문화 항목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지리, 환경(Places) : 지역, 날씨, 환경
- ii) 개인과 생활방식(Individual persons and ways of life) : 목표문화권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 가치관 등
- iii) 일반적인 사회와 사람들(People and society in general) : 목표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연령 차이로 구분되는 사회집단, 직업이나 사회의 계층구조 등
- iv) 역사(History) : 목표 문화 국가 또는 지역의 역사적인 상징, 주목할 만한 사건이나 경향, 역사적 인물 등
- v) 제도(Institutions) : 정부, 교육 시스템, 사회복지, 경제기구, 군대와 경찰, 종교, 정치, 언론 매체 등

40) Stern, H. H., (1992), 「Issues and Option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210~211쪽.

vi) 미술, 음악, 문학 등 주요 성취(Art, music, literature, and other major achievement) : 미술가, 음악가, 작가, 그 작품에 대한 지식,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흔히 알려질 정도로 유적에 공을 세운 위대한 인물과 업적 등

이상에서 살펴본 Hammerly(1986)과 Stern(1992)의 분류 기준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문화 유형에 따른 분석 기준

	Hammerly(1986)	Stern(1992)
정보문화	지리, 환경	주거, 지리 날씨 등 자연 현상
	사람들, 사회 전반	사회, 직업, 경제집단 지역 특성, 사회의 가치관
	역사	역사적인 사건, 인물, 상징
	제도	정부, 교육, 복지, 경제, 정치, 언론매체
행동문화	개인, 생활양식	가족, 의식주, 가정생활 친구, 교우관계, 학교생활 일상생활, 생활방식 건강, 운동, 여가생활, 취미, 봉사 가치관, 사고 예절, 관습
성취문화	미술, 음악, 문학 외 다른 업적	미술, 음악, 문학, 과학적 업적, 탐험 등

강현화(2011)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언어·문화 연계형 교수과정, 한국 문화 독립형 교육과정, 한국 문화 행사형 프로그램 등 세 가지 목적과 기능에 맞는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추출한 723개 문화 항목은 이후 한국 문화 관련 연구의 기본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었다.

한편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의 1단계 연구에서는 국내·외 한국어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표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한국어교육 표준 등급을 7등급으로 나누고⁴¹⁾ 각 등급의 교육 범주를 화제(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 기술(과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였다. 먼저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8〉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과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비교

한국어능력시험	표준 교육과정
고급(5-6급)	최상급(7급)
중급(3-4급)	고급(5-6급)
초급(1-2급)	중급(3-4급)
	초급(1-2급)

41)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설정은 초급 1-2급, 중급 3-4급, 고급 5-6급, 최상급 7급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단계화의 목적은 현재 한국어교육의 준거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6등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어 학습의 목적(한국 사회로의 정착, 학문 목적, 직업 목적, 취미 등),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변화(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자 함이다.

이와 같은 최상급의 설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한국어 학습자의 비중으로 볼 때 초급 수준의 학습자에 비해 중, 고급 수준의 학습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동시에 아카데믹 토픽(Academic Topik)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6등급 체계가 유학 등의 학술적 성격이 강하여 전체적으로 등급 수준이 높았다면 최상급을 설정함으로써 등급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고 등급의 하향 조정은 국내 학습자와 국외 학습자, 정규 과정 학습자와 비정규 과정 학습자 등의 다양한 변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중섭(2010), 136-137.

이렇게 1~7급으로 구분된 각 등급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 교육 범주 중 문화 영역의 등급별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문화 영역의 등급별 목표

등급	내용
1급	1.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나이가 많고 적음에 의한 기본적인 위계가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2급	1. 한국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3급	1.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는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한국인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나이, 성,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 사회적 변수를 이해할 수 있다.
4급	1.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바탕이 되는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5급	1.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2. 공적이고 격식적인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4.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견해를 가질 수 있다.
6급	1.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2. 미술, 음악, 문학 등의 성취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3. 스스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할 수 있다. 4. 한국 사회의 정치, 행정, 교육, 군사, 종교, 경제 등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7급	1.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와 성취 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들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표 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문화 영역의 등급별 내용

등급	내용
1급	1.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2급	1. 한국인의 행동 양식(인사법, 손짓, 몸짓 등)을 이해한다. 2. 한국인의 주생활(주거, 건축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3. 한국인의 식생활(음식, 음주, 식사 예절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4. 한국의 교통 문화(교통, 운동, 길 찾기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5. 한국인의 경제 활동(화폐, 구매 등)을 이해한다. 6. 한국인의 예절(예법에 맞는 의례적 행동)을 이해한다. 7. 한국의 기후(날씨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8. 한국인의 의생활(한국인의 옷차림, 한복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3급	1. 한국인의 여가 문화(여행, 취미 생활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2. 한국인의 가족 관계, 친족 호칭 등을 이해한다. 3. 한국인의 개인적 활동(동아리, 친목 모임 등)을 이해한다. 4. 한국인의 사회적 활동(직장생활, 학교생활 등)을 이해한다. 5. 한국의 지리적 특징을 이해한다. 6. 한국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안다. 7. 한국의 문화유산(무형 문화 : 노래, 춤 등)을 이해한다. 8. 한국인의 가족 제도(대가족, 혁가족 등)의 특징을 이해한다.
4급	1. 한국인의 세시 풍속을 이해한다. 2. 비언어 행위(가슴을 치다 등)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 3. 기본적인 한국의 사회적 규범과 관습(제도, 관습, 의식, 의례 등)을 이해한다. 4. 한국의 문화유산(유형 문화 : 도자기, 사찰 등)을 이해한다. 5. 한국의 교육 제도를 이해한다. 6. 한국의 대중문화(가요, 영화 등)을 이해한다. 7. 한국의 국가 상징물(태극기, 애국가 등)을 이해한다.
5급	1. 대략적인 한국의 역사를 이해한다. 2.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역사적 인물, 현대 유명 인사 등)에 대해 이해한다. 3. 한국의 교육 문화의 특징(입시, 학원, 교육열 등)을 이해한다.
6급	1. 한국의 특징적인 역사(식민 지배, 한국전쟁, 분단 상황 등)를 이해한다.
7급	1. 한국인의 종료, 철학, 윤리, 민간신앙에 반영된 가치관을 이해한다.

이러한 1단계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연구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을 주제,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기능/과제, 문화의 일곱 가지 범주로 나누어 범주별로 구체적인 설계 내용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중 문화 범주는 앞의 강현화(2011)에서 추출한 문화 항목과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문화 교육 항목을 추출하였는데⁴²⁾, 총 7개의 대분류 항목, 23개의 중분류 항목, 55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세부화하였고, 소분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의 문화 항목 분류에 관한 연구가 다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광범위한 연구 결과 및 분석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먼저 대분류 항목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생활, 한국 사회, 한국의 예술과 문학, 한국인의 가치관,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유산, 외국인의 한국생활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그것을 다시 구체적인 중분류, 소분류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한국 문화의 광범위한 항목들이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배열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 교육과정의 문화 항목 분류를 참고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 지식의 내용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지식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 문화 교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표준 모형 2단계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 범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 표준 모형 2단계의 문화 영역은 강현화(2011)에서 추출한 문화 항목 및 국내 주요 한국어 교육기관의 통합 교재 12종과 문화 분리 교재 29종을 선정하여 이에 나타난 문화 교육 항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보완하여 문화 교육 항목을 추출하였다.

〈표 11〉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인 의 생활	일상 생활	의생활	현대 의생활,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유행 등
		주생활	현대의 주거 형태(아파트, 기숙사, 원룸 등), 전월세, 하숙/자취 등
		식생활	대표적 음식 : 김치, 특별한 날 먹는 음식 : 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등, 계절 음식 : 삼계탕, 팥빙수, 냉면, 팥죽, 상차림
		계절활동	벚꽃놀이, 단풍놀이 등
		경제활동	소비문화(쇼핑), 재래시장, 흥정과 덤, 재테크, 근검절약(자린고비), 기부 등
	여가 생활	여행	숙박 종류와 시설, 유명한 여행지, 여행의 종류(수학여행, 신혼여행 등) 등
		친목모임 / 동호회	인터넷 동호회, 친구모임,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조기축구회, 등산 모임 등
		스포츠	등산, 야구, 축구, 응원(붉은 악마) 등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가족형태(맞벌이, 1인 가족 등), 출산, 육아, 경조사(돌, 환갑 등), 공공기관 이용(세금 납부 등), 식사예절 등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 아르바이트, 축제, 동아리 등
		직장생활	위계질서, 회식문화(뒤풀이, 음주 등), 야유회, 직장 내 예절(약속하기, 직책 부르기 등)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친족 호칭, 호칭 확대, 사회적 호칭(OO 씨, 선배 호칭), 별명,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 등
		인사	인사말(인사예절 포함), 빙말 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등)
		한글과 한국어	한글 창제와 원리, 한국어의 특징(속담, 색채어 등)
		몸짓언어	비언어적 행위(가슴을 치다 등) 등

〈표 12〉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 (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 사회	세시 풍속	명절	설, 추석
		주요 절기	한식, 단오, 삼복, 대보름, 칠석 등

관 혼 상 제	관례/혼례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제례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정 치	남북관계	38선, 비무장지대(DMZ), 핵별정책, 통일, 남북교류(남북회담,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등) 등
	국제관계	원조 주는 나라, 친일/반일 감정, 친미/반미 감정 등
	정치제도	선거, 투표 등
경 제	경제제도	화폐단위, 은행(ATM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경제정책	한국 경제의 성장, 물가안정정책, 고용정책, IMF, 자유무역협정(FTA) 등
교 육	교육열	조기 교육 및 유학, 사교육 열풍, 대안교육, 평생 교육 등
	교육제도	초중등, 대학(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교육문제	교권 추락, 체벌 금지 등
사 회	복지정책	주 5일,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제도	쓰레기 종량제, 자동차 요일제, 신분증명제도, 출산장려정책 등
	공휴일	국경일(한글날,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 기념일(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성년의 날 등)
	사회문제	고령화, 저출산, 이혼율, 청년 실업, 자살, 인터넷 중독, 빈부격차, 도농 격차, 지역차, 지역감정, 환경문제 등
	한국의 지리/지형	기후, 계절, 날씨 등
지 리	대표 지역 과 축제	부산, 강릉 단오제, 경주 신라문화제, 남원 춘향제, 여주 도자기 축제, 보령 머드축제, 태백산 해돋이 축제 등
	교통수단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배, 비행기 등)
교 통	교통체계	버스전용차선, 지하철노선, 버스 종류, 환승, 교통카드, 교통예절 등
	통신	IT 강국, 통신예절, 통신언어(문자 보내기, 이모티콘 사용하기), 인터넷에서의 연락망(소셜네트워크) 등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	다문화, 국제결혼, 이주근로자 등

〈표 13〉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 (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음악	아리랑, 판소리, 민요, K-POP, 전래동요 등
		전통/현대 미술	김홍도, 신윤복 등의 그림,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등
		전통/현대 공연	마당놀이, 탈춤, 부채춤, B-boy, 난타 등
	문학	문학작품	고대, 근현대 소설, 수필, 시, 전래동화, 건국신화, 설화, 전설, 민담 등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가족주의	‘우리’의 사용, 정(情), 한(恨), 신명 등
		건강	웰빙, 민간요법, 보약, 한의원, 침, 목욕(대중탕) 등
		성역할	남존여비의 변화(직업의 변화) 등
		가치관의 변화	미(美)의 기준 변화, 세대 차이 등
	사고 방식	빨리빨리 행동	퀵서비스, 음식배달, 경제발전의 원동력 등
		민간신앙	점, 미신, 금기 등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고대, 근대, 현대 등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화폐 인물,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스타, 역사적 위인 등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전통놀이(윷놀이, 널뛰기, 그네타기, 공기놀이, 덮싸움, 제기타기 등), 전통무예(태권도, 씨름 등), 유적지(경복궁, 숭례문 등), 한옥(기와, 초가, 온돌 등)
		무형 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전통혼례, 농악 등
		세계문화 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상징물	한국의 상징	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도자기, 인삼, 무궁화 등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 생활	공공기관 이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구를 토대로 한국어교육의 문화 항목을 급별로 등급화하여 성취문화, 행동문화, 정보문화로 재분류하였고 학습자 단계를 1~7급으로 등급화 하여 각 급별로 문화의 세부 항목을 선정, 배열하였다.⁴³⁾

이것은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 문화 교육의 기본 목표와 내용, 구체적인 항목 선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광범위한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 문화의 교육 내용을 총정리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 항목을 크게 성취문화, 행동문화, 정보문화로 구분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차원에서 문화 항목별 교육 내용을 재분류해 보고, 현행 한국어 교재의 구성 및 수업 활동을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43) 문화 등급화 및 급별 문화 항목은 [부록 2], [부록 3] 참조.

III. 지식으로서의 문화의 교육적 대상화 방안

1. 기존 문화 교육 방안에 대한 분석

1) 교재 구성의 양상

(1) 성취문화

김중섭(2011)에 제시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이하 표준 모형)의 등급별 세부 내용에서 1급에는 성취문화가 없고 2급부터 한국의 문화유산(문화재)을 중심으로 성취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준 모형에서 초급(2급)에서 다루어져야 할 성취문화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4〉 표준 모형의 성취문화 항목(2급)

성취문화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문화재	유적지(승례문,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무형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세계 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성취문화는 한 나라의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거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성취문화가 교재에 제시될 경우에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급 단계 학습자의 이해능력의 한계로 인해 실제 교재에서는 설명이 없이 어휘만 노출되거나 매우 단편적인 정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급에서 성취문화에 관한 내용은 ‘다’ 교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교재 내용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교재의 1급 9과 <주말 활동>의 ‘읽기’

- 여러분은 다음 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경복궁, 남산, 서울타워

- 다음 글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저는 주말에 보통 서울 시내를 구경해요. 지난 주말에는 친구하고 같이 경복궁에 갔어요. 경복궁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좀 피곤했어요. 그렇지만 경복궁이 아주 아름다워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번 주말에는 남산에 가려고 해요. 서울 타워에 가서 서울 시내를 구경할 거예요. 서울은 정말 크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주말에 서울을 구경해 보세요.

- (1) 마이클 씨는 보통 주말에 집에서 쉬어요. (O , X)
- (2) 마이클 씨는 지난 주말에 경복궁에 갔어요. (O , X)
- (3) 마이클 씨는 서울 구경을 많이 했어요. (O , X)
- (4) 마이클 씨는 남산에 가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O , X)

이것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표현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 내용으로서 ‘경복궁’이라는 성취문화 항목에 대해서는 ‘아주 아름답다’라는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다.

일부 학습자 중에는 경복궁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에 온지 몇 달 되지 않은 초급 단계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복궁에 아직 가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학습자는 ‘아주 아름다운 경복궁’이라는 곳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설명은 교사의 자의적인 설명에 의존하게 된다.

2급에서는 좀 더 많은 장소가 제시되고 약간의 설명이 곁들여진다.

· ‘다’ 교재의 2급 10과 <여행>의 ‘대화 & 이야기’

저는 지난 연휴에 친구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는 남쪽에 있는 섬이어서 서울보다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3월인데 노란 유채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 민속촌과 유명한 관광지 몇 곳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에 가서 말도 타 보았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제주도에는 볼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2박 3일밖에 여행을 못했지만 다음에는 길게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문화> 한국의 여행지

- 여러분은 다음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다음 도시들이 아래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각 도시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 부여, 전주, 제주, 부산, 경주, 속초

- 다음은 각 도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도시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a. 서울 :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iggest and the most populous city
 - b. 부여 : the capital of Baekje dynasty, you can enjoy the simple beauty of the ancient kingdom from castles on a hill and the remains
 - c. 전주 : a city famous for Hanok(a Korean style house) Village and boiled rice with assorted mixtures
 - d. 제주 : a city in the Jeju Island, the Southern part of Korea
 - e. 부산 : the second largest city in Korea.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ens every year.
 - f. 경주 : the capital of Shilla dynasty, a city famous for cultural heritages like Bulguksa Temple and Seokguram Grotto and the gigantic royal tombs
 - g. 속초 : a city in the East sea. There is mountain Seorak near the city.
- 이 도시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았습니까?
이 도시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보기>와 같이 연습하고, 친구와 여행지에 대해 묻고 대답해 보세요.

보기

- 가 : 주말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 나 : 제주도에 가거나 설악산에 가는 것이 어때요?

① 방학 / 경주, 부여

② 방학 / 자리산, 태백산

③ 이번 휴가 / 광주, 부산

④ 이번 휴가 / 온천, 놀이동산

⑤ 주말 / 바닷가, 섬

⑥ 일요일 / 가까운 바다, 산

이 단원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였고, <문화>란에서 그 외 대표적인 여행지로 서울, 부여, 전주, 제주, 부산, 경주, 속초 등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덧붙였다.

그러나 표준 모형에서 ‘제주’라는 항목을 통해 요구한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유채꽃, 민속촌, 승마장 등 단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역시 언어 기능 연습을 위한 부수적 정보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교재들 중 ‘나’ 교재에서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금강산, 설악산, 수원, 유성 온천, 경주, 홍도, 제주도 등을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고, 또 다른 교재인 ‘라’ 교재에서는 제주도, 부산, 경주, 설악산 등의 관광지와 함께 한국 요리, 서예, 탈춤, 부채춤, 태권도, 사물놀이, 한지 공예, 도자기 공예 등을 한국의 또 다른 성취문화로서 <한국 문화> 란에 소개하고 있다.

성취문화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후 단계별로 언어기능 수준 향상에 따라 여행, 예약, 지역 문화 등 여러 문화적 요소와 연관되는 배경 지식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문화 항목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내용이 제시되고 언어기능 습득을 위한 부수적인 정보로 한정되어 있을 뿐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2) 행동문화

행동문화에서는 언어생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호칭과 인사말 등의 언어생활 항목이 초급(1~3급)에서 단계적으로 제시된다.

그 중 호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표준 모형의 행동문화 중 ‘호칭’ 항목(1~3급)

행동문화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급별	예시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족 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누나, 언니,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사회적 호칭(OO 씨, 선후배 호칭)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흔한 성씨, 별명 호칭의 확대 현상(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것 : 언니, 오빠, 이모 등)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가 친척관계, 외가 친척관계 친족 호칭(친가와 외가의 가족 호칭)

먼저 1급에서는 가족끼리 부르는 호칭과 사회적 호칭에 대해 알아보고, 2급에서는 가족이 아니어도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가족 호칭으로 부르는 한국어 특유의 언어습관에 대해 제시한다. 3급에서는 기본적인 가족 호칭이 아닌 친가와 외가의 친척관계의 가족 호칭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호칭과 인사말은 이렇게 한국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언어습관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에 와서 처음 접하는 어려움 중 하나이며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출발�이 되는 만큼 행동문화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항목이다.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호칭에 관한 설명은 주로 ‘문화’란에 소개되어 있었다. 호칭의 문제도 역시 단원 내에서 적극적인 설명텍스트로 다루어지기보다 교재에서 등장인물들의 대화 등을 통해 노출되는 호칭의 쓰임을 이해하기 위한 부가적 정보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칭에 관한 설명을 비교적 상세하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라’ 교재로서 2급과 3급의 ‘문화’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라’ 교재 2급 2과 <문화 알아보기>

- <독특한 호칭 ‘언니’, ‘오빠’>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를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선배’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한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배를 ‘언니’, ‘오빠’ 또는 ‘형’, ‘누나’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로 친한 선배를 부를 때 언니, 오빠 또는 형, 누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처음 만났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상급생을 부를 때는 선배로 부르지만, 친해지면서 언니, 오빠 등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관계의 호칭을 사용해서 친근함을 표현하는 한국인의 사고가 반영된 것입니다.

1. 한국 사람들은 왜 선배를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부를까요?
2. 여러분 나라에서는 선배를 어떻게 부릅니까? 혹시 특별히 사용하는 호칭이 있습니까?

이 교재에서는 선후배 관계에서 친한 사이가 되면 가족 호칭을 쓸 수 있다 는 점을 설명하고, 자기 나라에도 비슷한 예가 있는지를 묻는 활동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과 활동을 통해 호칭 문제를 다루고 한국 사람들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이후 경어법 사용이나 인사말 등을 배울 때에도 유용한 배경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급인 점을 감안해서인지 ‘언니’, ‘오빠’, ‘누나’, ‘형’ 등으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대부분의 초급교재에서 학습자 수준을 감안하여 한국어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로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 학습자는 성인 학습자임을 고려할 때 언어 능력만을 감안하여 부족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설명을 제시하거나 교사가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후 3급에서는 좀 더 긴 텍스트를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 ‘라’ 교재 3급 13과 <언어와 생활>

- <한국인의 호칭>

여러분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길을 물어볼 때 등 모르는 사람에게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을 잘못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 옛날부터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서로 가깝고 친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가족이 아닌데도 ‘언니’, ‘오빠’, ‘이모’, ‘아가씨’ 같은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나 남성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 싫어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는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그 호칭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상대방을 가리키는 호칭이 아니라 그 안에 상대방을 낚춰 부르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실례가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적당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선배나 상사에게 ‘박영민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박영민 부장님’, ‘박 부장님’처럼 직함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가족관계, 친족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계에서 이름보다는 그와의 관계를 고려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칭은 잘 사용하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실례가 되고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칭을 인간관계에서 잘 사용한다면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2. 여러분 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는 호칭을 조심해야 한다’, ‘호칭을 잘 사용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자세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로 후속활동에서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를 묻고 있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대답을 찾기 힘든 질문일 수 있다.

호칭 문제는 특히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러한 일반적 설명보다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습득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교재와 ‘다’ 교재에서도 호칭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보 제시의 방식은 ‘라’ 교재와 큰 차이가 없었다.

- ‘나’ 교재 1급 3과 <제임스가 본 한국>

- '아줌마(auntie)'와 '아저씨(uncle)'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가족이나 친척 호칭을 사용한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친척이 정말 많은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그런 호칭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궁금증이 풀렸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호칭은 아줌마와 아저씨이다. 원래 아줌마와 아저씨는 가족끼리 쓰는 호칭이지만 사람들은 결혼한 여자와 남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 보통 30대부터 60대 초반 정도까지 이렇게 부른다. 손주가 있는 사람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대개 60대 후반부터 이렇게 부른다.

그렇지만 이런 호칭에는 분명한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호칭을 잘못 불렀다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여자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힘들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에게 쓰는 호칭을 쓰는 것이 좋다.

나는 식당에서 ‘아줌마’를 ‘아가씨’라고 불렸을 때 그 분이 매우 기분 좋아 하시면서 반찬을 많이 주셨던 일을 기억한다.⁴⁴⁾

-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44) 영어판의 영어 설명을 번역함.

· ‘다’ 교재 2급 11과 <문화>

- <가족 호칭어의 다른 쓰임>

- 아래 그림의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언니’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친밀함을 표현하기 위해 가족 호칭을 씁니다. 직장과 같은 공적인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부를 때 OO 씨 또는 부장님, 언니, 오빠, 누나, 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잘 아는 사이인 경우에는 친척을 부를 때처럼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릅니다. 가끔 식당이나 가게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인을 언니, 이모 같은 친밀한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의 부모님에게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친구의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⁴⁵⁾

- 우리 반 친구들을 한국 사람처럼 불러 보세요.

위의 두 교재에서는 공통적으로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아줌마’가 아닌 ‘아가씨’, 또는 ‘언니, 이모’라고 부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줌마’의 나이 기준도 30대부터 60대까지로 매우 애매하며 그마저도 분명한 기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도 ‘아줌마’를 ‘아가씨’나 ‘언니, 이모’라고 부르는 언어습관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느 교재에서도 실제로 식당이나 가게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는 대화문에서 나이든 여자에게 ‘아가씨’나 ‘언니, 이모’라고 표현한 예가 없으며 주로 ‘여기요’나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일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정보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다음은 고급에 해당하는 5급에서 호칭과 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제시된 텍스트이다.

45) 영어판의 영어 설명을 번역함.

· ‘나’ 교재의 5급 1과 <문화>

- <한국어의 호칭이나 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인>

한국어의 호칭이나 경어법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의 순위는 어떨까? 그 요인은 일단 서열과 친분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연령, 직위, 항렬 등은 세분하면 모두 중요한 요인들이지만 이들은 결국 서열로 통합되는 요인들이다.

한국어에서는 서열과 친분 두 요인 중에서 역시 서열이 앞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물론 형이나 누나도 ‘너’라고 부를 수 없으며 고등학교 1년 선배도 ‘너’라고 부를 수 없다. 친분보다는 서열이 훨씬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형의 친구나 언니의 친구도 ‘너’라는 호칭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말을 쓰기도 어렵다. 친분이 서열에 압도당하기도 한다. 친구 사이에서 한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되면 적어도 남들 앞에서는 상호 평교 관계를 깨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 한 사람이 오빠 부인이 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그만큼 한국어에서는 서열이 친분보다 훨씬 강력한 요인이 된다.

서열이 친분보다 경어법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열의 하위 요인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떠할까?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나이 어린 상사와 연상의 부하 직원 사이에서 직위와 나이 중 어느 것이 힘이 더 센 것일까? 직위가 앞선다고 생각된다. 상사는 연하라도 존대를 해야 한다. 물론 부하 직원도 연상이면 존대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의무 사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항렬과 연령이 갈등을 일으킬 때는 어떨까? 예를 들어 20년 연하의 아저씨와 20년 연상의 조카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항렬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저씨뻘이라면 존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친족 안에서의 서열과 직장 안에서의 서열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는 어떨까? 예를 들어 조카가 사장이고 삼촌이 과장이라면 어떨까? 이 경우는 친족 안에서의 서열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같은 직장에 다니고 직위가 낮아도 삼촌을 하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직위의 권세가 친족 서열에서의 권세를 앞지를 수는 없다.

1. 한국어 경어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요인들을 우선순위 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친분, 직장 서열(직위), 친족 서열(항렬), 연령 서열(나이)

2.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호칭과 경어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서열관계를 결정짓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 모형에서 호칭 문제를 초급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행동문화 항목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실제 교재에서는 고급에 해당하는 5급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고려한 배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도 급별로 선정된 항목과 그에 해당하는 설명적 텍스트의 적절한 배열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행동문화의 또 다른 항목 중 교통수단 이용과 교통예절에 대한 내용 역시 초급에서 다루어져야 할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준 모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표준 모형의 행동문화 항목 중 ‘교통’ 항목(1-2급)

행동문화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급별	예시	
한국 사회	교통	교통 수단	1급	·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2급	·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스 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교통 체계	2급	·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앉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가방 받아주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석이 있는 줄 몰랐거나 노약자석 표시를 발견하지 못해서 노약자석에 앉았던 경험은 한국 생활 중의 경험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그런데 노약자석에 관한 교재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분석대상인 5종의 교재 중 2종에는 내용이 없고, 2종에는 ‘주변에 노약자, 장애인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간단한 설명만 제시되어 있었다. 나머지 1종에서는 중급에 해당하는 3급에서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도입자료로 노약자석 표시를 나타내는 그림만 제시되어 있었고, 4급에서는 〈한국인의 의식 구조〉 단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에 앉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가

방이나 무거운 물건을 받아주는 행동이 묘사되어 있었다.

행동문화는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내지는 문제 해결 능력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으로서 방법적 지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교재의 내용은 이러한 행동문화의 기본적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언어기능 위주의 교재 구성에서 부수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데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동문화 항목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에 관한 내용이 부수적인 위치에서가 아니라 주된 주제로서 부각되어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정보문화

정보문화는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사실적 지식에 가까운 항목이 있고 방법적 지식에 가까운 항목이 있다. 따라서 항목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이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내용이 제시되는 상황이나 기능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정보문화 중 일상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표준 모형의 정보문화 부분에 제시된 의생활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7〉 표준 모형의 정보문화 항목 중 ‘의생활’ 항목

정보문화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급별	예시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의생활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한국 사회	세시 풍속	명절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관례 혼례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견례, 결혼 준비 과정 전통혼례식과 현대결혼식, 축의금, 어울리는 옷차림 	
	관혼 상제	상례 제례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례방법, 풍수지리, 장례절차, 부조, 어울리는 옷차림 제사상 차리기, 제사 지내는 순서, 어울리는 옷차림 	

표준 모형의 내용을 보면 먼저 초급에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과 고무신, 짚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항목이 설정되어 있고 이후 설, 추석 등의 명절에 입는 설빔과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어울리는 옷차림 순으로 내용 확장이 이루어진다.

앞서 초급의 성취문화 중에도 한복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은 항목이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것은 급별, 항목별로 문화 항목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제시되어야 함을 뜻한다. 즉, 초급의 성취문화로서의 ‘한복’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 및 설빔 등에 대한 사실적 지식 위주로 교수-학습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문화 중 일상생활 문화로서의 ‘한복’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생활에서 한복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보를 배경지식으로 하여 이후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사나 특별한 날에 실제로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방법적 지식으로 자연스럽게 이행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초급에서 한복 등의 전통의상에 대한 설명적 텍스트를 찾기 어려웠으며 이 역시 ‘옷 주문하기’ 등의 기능적 요소에 맞추어 부수적인 제재로 등장하고 있었다.

다음 예는 ‘라’ 교재의 초급에 처음 등장하는 한복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은 다른 교재에서 한복이 아닌 다른 옷을 주문하는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주로 디자인, 가격, 치수에 관한 내용을 묻고 답한 후 원하는 옷을 주문하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한복에 관한 정보로는 ‘치마를 먼저 입고 저고리를 입는다’ 정도만 제시되어 있고 ‘소매와 치마가 좀 짧은 것 같다’는 표현을 듣고 제시된 그림 중에서 내용에 맞는 그림을 고르는 후속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복 값을 깎아주는 대신에 ‘한복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것’을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후의 급별 교재들에서도 명절이나 결혼식과 관련된 행사에서 한복을 입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한복을 입으니 딴사람 같다’거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한복에 대한 사실적 지식으로 볼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사진을 통해 한복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단순화된 삽화로 표현되거나 전래동화나 역사 같은 단원에서 시대별로 조금씩 다른 모양의 한복이 제시되는 등 한복의 모양이나 종류, 용도 등에 관한 명시적 설명이나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부족하였다.

· ‘라’ 교재 2급 14과 <들어 봅시다>

- <한복을 주문하는 대화 듣기>

1. 여러분은 한복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또는 한복을 입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입니까?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2. 다음은 한복 가게에서 점원과 장소이 씨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점 원 :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장소이 : 한복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점 원 : 네. 언제 입으실 거예요?

장소이 :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때 입을 거예요.

점 원 : 그래요? 요즘은 화려한 디자인을 많이 입어요. 이건 어떠세요?

장소이 : 글쎄요.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요.

점 원 : 그럼 이건요? 요즘에도 인기가 있지만 한동안 손님들이 꽤 많이 찾던 거예요. 가격은 20만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건 24만원이고요.

장소이 : 좀 싸게 안 되나요?

점 원 :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저희가 깎아 드리는 대신에 한복 입을 때 머리에 쓰는 걸 그냥 드릴게요.

장소이 : 네. 그럼 이걸로 한번 입어 볼 수 있어요?

점 원 : 그럼요. 한복을 입을 줄 아시지요? 치마를 먼저 입고 저고리를 입으시면 돼요.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럼 제가 도와 드릴게요. 탈의실은 거기예요.

(입은 후)

장소이 : 소매도, 치마도 좀 짧은 것 같아요. 한 치수 큰 걸로 주세요.

점 원 : 그건 따로 주문하셔야 해요. 오늘 주문하면 3일 후쯤 나와요.

장소이 : 알겠습니다. 하나 큰 걸로 주문할게요.

점 원 : 네. 그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1) 장소이 씨는 왜 한복을 사려고 합니까?

(2) 다음 중 장소이 씨가 갈아입고 나온 한복은 무엇입니까?

(3) 맞는 것에 V표 하세요.

- ① 장소이 씨가 고른 것은 최근에 인기를 끌기 시작한 화려한 디자인의 한복이다.
- ② 장소이 씨는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있어서 입는 방법을 알고 있다.
- ③ 주인은 값도 깎아 주고 머리에 쓰는 것도 서비스로 주었다.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표준 모형에서 정보문화 중 식생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표준 모형의 정보문화 중 ‘식생활’ 항목

식생활					교수 내용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급별	예시
정보 문화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식생활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람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찌개류, 국류 등)·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 등)· 숟가락과 젓가락의 사용 용도 및 사용법(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반찬을 먹을 때 사용)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음식(삼계탕, 팥빙수, 냉면, 팥죽)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의 종류(간장, 된장, 청국장, 고추장)· 김치의 종류(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오이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백김치 등)· 떡의 종류(백설기, 인절미, 송편, 가래떡, 쑥떡, 절편 등)· 전통음료의 종류(식혜, 수정과, 매실차, 국화차 등)와 전통주· 각 지역의 유명음식

한국 사회	세시 풍속	명절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주요 절기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보름 : 부럼 깨물기, 단오 : 창포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삼복 : 개장국/복죽 먹기, 동지 : 팥죽 먹기 등
	관혼 상제	장례 제례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사상 차리기(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과 상차림 방법)

식생활에 관련된 정보문화에서도 역시 초급에서는 한국의 음식 종류, 식기의 종류와 용도 및 사용법 등 사실적 지식에서 출발하여 제사상 차리기 등의 방법적 지식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

식생활은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식주 중에서도 교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의 하나로 음식 주문하기, 음식 맛 표현하기, 음식 만들기, 요리법 비교하기 등의 다양한 단원별 주제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문화의 차이에 따라 음식에 관한 전통과 관습도 매우 달라서 문화의 비교나 대조 등의 토론활동에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고유한 음식문화인 개장국(보신탕)에 관해 토론하는 내용을 다른 교재를 정보문화의 예로 살펴본다.

· ‘마’ 교재의 4급 1과 <문화 차이>

- <보신탕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 한국 사람들이 보신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기 활동>⁴⁶⁾

- 보신탕 찬성 이유 : 보신탕을 즐겨 먹는 사람이 많다.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다.
오래 전부터 먹었으니까 한국 문화이다.
- 보신탕 반대 이유 : 개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
개는 사람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몸에 좋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 보신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세요.

- 보신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쓰세요.

46) 듣기 지문의 내용 중 찬성, 반대 의견을 요약함.

표준 모형에서 개장국(보신탕)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세시풍속 중 주요 절기의 하나인 삼복에 먹는 음식으로 소개하도록 되어 있다. 즉, 더운 계절에 체력 손실을 보충하고 농사에 중요한 시기인 여름의 무더위를 잘 넘기기 위해 영양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였던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소는 농사에 필요한 동물로서 쉽게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축으로 손쉽게 키우고 구할 수 있는 개고기를 먹었을 것이라는 보충 설명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체적 정보의 전달을 통해 사계절이 뚜렷한 농경사회라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배타적 시선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말이나 양의 고기 또는 곤충 등을 먹는 것처럼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타문화권의 식습관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선입견을 버리고 상호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교재에서는 위와 같이 한국에 보신탕을 즐겨 먹는 사람이 많고, 영양 가가 많은 음식이며, 오래 전부터 먹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라는 내용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혐오식품’이라는 뿐리 깊은 선입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심화된 토론행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재의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은 교사의 재량에 맡겨진 경향이 있어 교사의 주관적 지식이나 의견에 따라 수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향된 정보를 전달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문화 교육에서 교사의 자질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거나 교사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준에 의해 배열되고 제시된다면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문화 차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 확장된 심화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주생활에 관한 정보문화 항목을 살펴본다.

표준 모형에서 주생활은 초급(2급)에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문화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19〉 표준 모형의 정보문화 중 ‘주생활’ 항목

정보문화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급별	예시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주생활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주거형태(한옥,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기숙사 등)· 전월세, 하숙/자취· 온돌생활, 좌식생활

정보문화 중 주생활의 예시항목을 보면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거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온돌이라는 전통적인 난방법으로 인해 좌식생활에 익숙한 한국인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 처음 온 많은 외국인들이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습관을 낯설게 여기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 난방법의 차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재에서는 문화 이해를 위한 사실적 지식보다는 실제 한국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집 구하기’라는 주제의 부수적인 정보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거형태도 일반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라기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사, 원룸 등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주생활에 대한 지식의 이해라기보다 학생들이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생활정보의 수준에서 단편적인 기능연습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나’ 교재 2급 10과 <보증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 마리아 씨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마리아 : 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좋은 방이 있습니까?

직원 : 전세로 하실 거예요? 월세로 하실 거예요?

마리아 : 월세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직원 : 교통편도 좋고 전망도 좋은 원룸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정도 주셔야 합니다.

마리아 : 제 생각보다 좀 비싼데 다른 방은 없습니까?

직원 : 세가 싸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시설이 좋지 않아요.

- 이사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빈칸을 채우십시오.

부동산 소개소에 가다	집 구경을 하다	계약을 하다
소개비를 주다	이사를 하다	

이사를 하려면 먼저 ()어야/아야/여야 합니다.

집을 팔고 싶은 사람, 집을 사고 싶은 사람, 집을 빌리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갑니다.

혼자 집을 사고 파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면 집주인과 ().

계약금은 집값의 10퍼센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소개소에 ()지 않아도 됩니다.

- 광고를 보고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하십시오. 왜 그 곳에 살고 싶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원룸 40m ² 보증금 : 1,000만 원 월세 : 45만 원 층수 : 3층 침대, 책상, 냉장고, 에어컨, 화장실 있음.	하숙집 (2인 1실) 하숙비 : 월 35만 원 아침, 저녁 식사 포함. 책상, 침대 있음.	아파트 66m ² (방 2, 화장실 1, 부엌 1, 7층) 전세 : 8,000만 원 가구 없음.	하숙집(독방) 하숙비 : 월 65만 원 침대, 책상, 화장실, 텔레비전, 소파, 에어 컨 있음. 아침식사 포함.	기숙사 (2인 1실) 기숙사비 : 3달에 100만원. 침대, 책상, 옷장 있음.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실. 음식은 만들 수 없음.

이 교재에서는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는 대화를 물건 사기나 음식 주문하기처럼 원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를 하려면 부동산에 가야 한다’거나 ‘부동산 대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지만 실제 부동산을 이용할 때 알아야 할 점이나 인터넷에서 원하는 집을 찾아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집 구하기’라는 주제는 대표적인 방법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용적인 정보를 요하는 주제인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교재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 교재 2급 15과 <집 구하기>

- <한국의 주거 문화>

- 여러분 나라에서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많아요,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알고 있어요?
 - 위 사진(부동산 광고)에 있는 매매, 전세, 월세 같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결혼의 첫째 조건으로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매매). 그러나 신혼부부가 집을 사는데는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전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합니다. 전세는 일정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월세는 매달 정해진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리는 것입니다. 큰돈이 들지 않지만 매달 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합니다. 월세로 집을 빌릴 때에도 전세보다는 적지만 보증금을 내야하며 보증금은 나갈 때 돌려받습니다. 대학이나 역 근처의 원룸은 대부분 월세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여러분 나라의 주거 형태는 어떤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 교재에서는 매매/전세/월세에 관한 설명텍스트를 제시하고 나라마다 다른 주거 형태에 관해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표준 모형에서 제시된 주거 형태는 한옥,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기숙사 등을 말하는 개념이었는데 여기서는 집을 사거나 빌리는 방법을 주거 형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주거 형태에 관해 이야기하는 활동의 주제로는 나라마다 대동소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매매/전세/월세에 관한 내용보다는 그 나라의 주생활 문화에 다른 다양한 가옥 형태 및 전통적인 난방법 등에 관한 주제가 좀 더 흥미롭고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항목별로 교재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성격을 띠는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제시가 부족하였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사실적 지식의 이해를 시작으로 실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방법적 지식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지식의 조직, 배열 및 유기적 연결의 측면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식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개념은 언어학습에서 읽기, 듣기를 통한 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말하기, 쓰기 등 심화활동에서 표현 능력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현행 교재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제시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후속활동 및 심화활동 단계에서도 각기 다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문화 항목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것 또한 해당 항목의 문화적 지식이 아닌 언어기능의 습득 및 연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문화 내용에 대해 각기 다른 수업활동으로 구성된 교재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수업활동의 양상

표준 모형에서는 고급 단계의 성취문화 항목으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고급 단계는 자유로운 표현능력을 토대로 의견 발표나 토론 등의 심화활동에 중점을 두는 단계이다. 이러한 심화활동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국어 문화에 관한 배경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한국 문화와 비교, 대조를 거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토론활동에 적합한 대표적인 항목으로 역사 관련 항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준 모형에서 고급(5-7급)의 성취문화 중 한국의 역사와 인물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0〉 표준 모형의 성취문화 항목 중 ‘한국의 역사’ 관련 항목(5-7급)⁴⁷⁾

성취문화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급별	예시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5급	·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 근현대사(조선후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6급	· 식민지배, 한국전쟁, 남북분단, 민주화, 경제발전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5급	· 화폐 속 인물, 역사적 위인 · 한국의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연예인
	한국의 예술과 문학	문학	7급	· 건국신화, 설화, 전설, 민담

이 중 고조선 건국과 단군신화에 관한 교재 내용은 각 교재에서 비교적 비

47) 한국의 예술과 문학에서 건국신화는 시대별 역사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역사 관련 항목과 함께 정리, 제시하였다.

슷한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교재의 성격에 따라 새로운 어휘나 문법 활용을 위한 연습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급 단계인 만큼 최종적으로는 학습자가 주어진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표현하게 하는 심화활동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각 교재에서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제시한 활동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교재의 활동

1. 본문을 잘 읽고 대답하세요.

- 1) 환인은 환웅에게 무엇을 허락했습니까?
- 2) 환웅은 무엇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갔습니까?
- 3) 호랑이와 곰은 환웅에게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 4) 곰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 5) 단군은 누구이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2. (어휘 연습)

3. (문법 연습)

4. 그림을 보면서 단군 신화를 이야기로 만들어 봅시다.

5.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 1) 신화는 인간 생활과는 관계가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낸 신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 2) 단군 신화를 보고 그때 사람들이 굴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한국의 신화는 대부분 나라를 세운 것과 관계가 많다.

6.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 1) 나라를 세운 것에 관한 이야기
- 2) 역사적인 사건 중 한 가지

	나라를 세운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
나오는 인물		
때		
장소		
사건		

· ‘다’ 교재의 활동

- <읽기>

다음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를 설명한 글이다. 잘 읽고 질문에 답해 보자.

- 건국 신화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이야기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아래의 글을 읽어 보자.

(본문)

- 1) 이 신화에 등장한 인물들은 누구인지 각 인물들 간의 관계도를 그려 설명 해 보자.
 - 2)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곰이 한 일은 무엇인가?
 - 3)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내려온 것은 무엇을 상징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4)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 인간이 된 까닭은 무엇일지 이야기해 보자.
- 여러분 나라의 신화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 ‘마’ 교재의 활동

가.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 알 수 없으면 △ 하십시오.

- ① 환웅은 하늘나라 왕 환인의 아들인데 하늘에서 살고 싶어 했다.
- ② 환웅은 호랑이와 곰에게 1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③ 호랑이는 인내심이 없어서 사람이 되지 못했다.
- ④ 곰은 사람이 된 후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 ⑤ 고조선의 백성들은 단군이 만든 법을 잘 지켰다.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 ① 환인은 환웅한테 거울을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 ② 호랑이와 곰은 환웅을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했어요?
- ③ 환웅은 호랑이와 곰한테 어떻게 하라고 시켰어요?
- ④ 동굴 속에 들어간 호랑이와 곰은 어떻게 됐어요?
- ⑤ 단군은 나라를 세운 후에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다. 관계도를 이용해서 읽은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라. 해 봅시다.

[활동 1] 그림을 보면서 단군 신화를 이야기해 보세요.

[활동 2]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라를 세운다면 어떤 법을 만들고 싶어요?

(예) ‘모든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마. 써 봅시다.

‘라[활동 2]’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쓰세요.

먼저 ‘가’ 교재의 활동에서는 본문 내용 파악하기-어휘 연습-문법 연습-그림을 보고 이야기 재구성하기 같은 연습활동과 신화에 대한 지식을 묻는 내용, 자기 나라의 건국신화 소개하기 등의 심화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 교재에서는 본문 내용 파악하기 외에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함께 내려온 것이 상징하는 것’, ‘호랑이가 아니라 곰이 된 까닭’ 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 추가되었다.

‘마’ 교재 역시 본문 내용 파악 후 ‘나라를 세울 때 만들고 싶은 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함께 구성하였다.

이렇듯 같은 문화 항목의 내용에 따라 후속 활동이 각기 다르게 설정되는 것은 그 항목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지식의 내용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모든 교재에서 표준 모형에 제시된 항목들의 배열을 바탕으로 천편일률적인 수업내용과 수업활동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재의 내용과 수업활동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앞서 다른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의 내용이 그 본질적 목적과 성질에 맞게 전달되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언어 기능의 습득을 위주로 구성된 교재에서 연습이나 활용을 위한 부수적인 소재나 제재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문화 자체의 내용보다는 주제, 기능 등과의 연계성에서 문법, 어휘 등의 요소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하위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정작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심화활동 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활동들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재 구성의 첫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한 문화 내용의 노출과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각 교재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제시되는 항목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른 수업활동 역시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문화의 제시 내용이 실제적 의사소통 능력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후 단계별로 제시되는 한국 문화 내용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일관성과 체계성이 없이 배열된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진정한 문화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을 구현하기 어렵다.

항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김중섭(2011)의 표준 모형이 어느 정도 표준화된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제시되는 설명과 그에 따른 수업활동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언어 기능 교육의 부수적인 측면으로 다루었던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고찰한 문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볼 때 문화를 사실적 지식, 즉 한 언어권의 물리적 결과물이나 각각의 개별적 현상으로 보았던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언어 습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과 관련된 방법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교재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통해 한정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이해와 분석의 주체로서 지식을 수용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지식으로서의 문화’라는 개념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교육 방안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논의한다.

2.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방안

1) 기본적인 틀

이 절에서는 언어 습득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지식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을 Bloom(1956)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 제시한 학습 단계에 적용해 본다.

먼저 Bloom(1956)에서 제시한 지식의 학습 단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Bloom(1956)의 교육 목표 분류학의 학습 단계

Bloom(1956)의 분류학은 학습의 인지 과정을 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⁴⁸⁾

(1) 지식

지식(knowledge) 단계는 정보를 인출해내는 것으로 재생이나 재인에 의해 아이디어나 자료, 혹은 현상을 기억해내는 것을 말한다. Bloom(1956)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목들과 하위 유목들을 포함하는 특정한 지식의 형태를 언급하고 있다.

1.10 특수 사상(事象)에 관한 지식

1.11 용어에 관한 지식

1.12 특수 사실에 관한 지식

1.20 특수 사상을 다루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식

1.21 형식에 관한 지식

1.22 경향과 순서에 관한 지식

1.23 분류와 유목에 관한 지식

1.24 준거에 관한 지식

1.25 방법론에 관한 지식

1.30 보편적 및 추상적 사상에 관한 지식

1.31 원리와 통칙에 관한 지식

1.32 이론과 구조에 관한 지식

Bloom의 지식 유목은 인출되는 인지 과정과, 인출되는 다양한 지식의 형태를 포괄한다.

48) 강현석 외(2012), 26~31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2) 이해

이해(comprehension)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어떤 의사소통의 형식을 거쳐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의사소통에 직면하였을 때,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 포함된 자료나 아이디어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분류학은 의사소통을 정보의 언어적 형태(말하거나 쓰여진 형태)로 제시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는 상징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연의 밑바탕에 있는 아이디어를 이해(understand)하려고 시도하는 학생은 이해(comprehension)의 행위에 연관되어 있게 되는 것이다.

분류학에는 이해의 세 가지 형식이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번역, 해석, 추론인데, 번역은 들어오는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번역이 입수 정보의 기저에 있는 어구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해석은 아이디어를 마음속의 새로운 형태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론은 이해의 문자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의사소통에서의 글자 정보와 학습자가 이미 소유한 원리와 통칙에 기초한 추리 및 예언과 관련된다.

(3) 적용

정신적 기능의 세 번째 유목인 적용(application)은 분류학의 다른 단계와 어떻게 비교되는가에 비추어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loom은 추상 개념의 이해는 학생이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 개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추상 개념의 사용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용’은 이것을 넘어서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 학생에게 어떤 새로운 문제가 주어진다면, 그는 어느 추상 개념이 정확한지에 관하여 주어지는 단서 없이 혹은 그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보기의 제시 없이 적합한 추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Bloom은 이해 단계에서 이해된 추상은 그 추상 개념의 사용을

위한 조건이 명세화 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술하고 있다. 그러나 추상 개념의 적용은 해결의 어려운 방식도 명세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상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할 때 실현된다.

(4) 분석

적용이 Bloom의 분류학의 하위 유목에 의해 정의되는 것처럼 분석(analysis)은 적용과 이해에 의해 정의된다. Bloom은 분석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해에서는 자료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적용에서는 기억이 강조되고 자료가 주어지는 반면, 분석에서는 적합한 통칙과 원리를 구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분석은 부분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부분들이 조직되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을 강조한다.”

분석은 요소, 요소들 간의 관련성, 그리고 요소들을 통제하는 조직 원리들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 등의 세 가지 하위 유목으로 나뉜다.

이 유목은 이해와 평가의 유목과 중첩된다. 이에 대해 Bloom은 “한쪽 끝에서 전적으로 분명한 선이 분석과 이해 사이에 설정될 수 없으며, 다른 쪽 끝의 분석과 평가 사이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설명하였다.

(5) 종합

종합(synthesis)은 일차적으로 새로운 지식 구조의 창출과 관련된다. 종합은 요소와 부분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요소와 부분들 간의 작업이며, 거기에서 전에는 분명하지 않았던 유형이나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전 경험의 부분들을 새로운 자료와 재결합하고, 새롭고 다소 잘 통합된 전체로 재구조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Bloom은 이 유목이 새롭게 구조화되고 종종 독특한 산출에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행동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

명한다. 산출의 세 가지 유목은 독특한 의사소통능력, 계획이나 조작의 세계, 일련의 추상관계의 도출로 정의된다.

다시 Bloom은 다음과 같이 이 유목과 선행 유목간의 많은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종합은 이해, 적용, 그리고 분석 시 요소들을 조합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이것들은 수많은 과제에서 종합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경향이 있으며 덜 조화롭다.”

(6) 평가

평가(evaluation)는 지식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Bloom에 따르면 평가는 특정한 상황들이 정확하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또는 만족을 주는 지의 정도를 평정하기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준거의 사용과 관련된다. 판단은 양적일 수도 있고 질적일 수도 있으며 준거는 학생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준거나 증거의 두 가지 형식(내적 증거, 외적 증거)이 이 유목 안에서 언급된다. 정의상 평가는 의식적인 사고 없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의식적이고 사려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형태이다. Bloom은 전자를 정의상 평가와 관련되는 ‘판단’과는 대조적으로 ‘견해’로 지칭한다.

이상으로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학의 각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았다. 1956년에 간단하고 기술적인 한권의 핸드북으로 출판된 Bloom의 분류학은 교육자들이 교과 영역과 학년 수준에 맞는 위계적인 조직을 가진 학습 목표를 설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교육과 심리학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Bloom의 분류학은 교육실제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만큼 다양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 분류학이 사고의 본질과 그것이 가지는 학습과의 관련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것이다. 분류학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를 분리하는 특징으로서 단순한 난이도 구인

을 반영하였는데, 다시 말해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보다 어려운 인지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Bloom의 분류학의 위계적 구조는 논리적 혹은 경험적 조망으로부터 잘 조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그 저자들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부분이었다.⁴⁹⁾

이후 학계에서는 Bloom의 분류학을 발전시키고 개정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어 왔다. 개정되었거나 업데이트된 연구가 대략 20개 이상이며⁵⁰⁾ 그 중 Bloom의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Anderson 외(2001)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Anderson 외(2001)의 분류학은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차원에서 수정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⁵¹⁾ 첫 번째는 지식 영역으로서 네 가지 유형의 지식(사실적, 개념적, 절차적, 그리고 메타인지적 지식)을 포함한다. 각 지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i) 사실적 지식 : 훈련 또는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학생들이 알아야만 하는 기본적인 요소.
- ii) 개념적 지식 : 사실적 지식을 함께 작용하게 만드는 보다 큰 구조 속에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 간의 상호관련성.
- iii) 절차적 지식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방법 그리고 사용기능의 준거, 알고리즘, 기술, 그리고 방법.
- iv) 메타인지적 지식 : 일반적으로 인지 지식뿐 아니라 어떤 이의 인지 지식의 자각을 포함하는 것.

49) “평가가 행동의 또 다른 모든 유목들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록 평가가 인지적 영역

에서 가장 높은 마지막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사고나 문제 해결에서 항상 마지막 단계일 필요는 없다. 평가과

정은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 또는 새로운 분석과 종합에 있

어 이전 단계가 될 수 있다.

강현석 외(앞의 책), 32쪽.

50) 강현석 외(앞의 책), 33쪽.

51) 강현석 외(앞의 책), 33-35쪽.

두 번째 과정은 인지과정 영역으로 불리며,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안의 6가지 사고 유형과 관련된다. 각 유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기억 : 장기 기억으로부터 적절한 지식을 인출하는 것.
- ii) 이해 : 구두의사소통, 쓰여진 자료를 통한 의사소통, 그래픽 의사소통 (graphic communication) 등 어떤 메시지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것
- iii) 적용 :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의 절차를 실행하거나 사용하는 것.
- iv) 분석 : 어떤 자료를 구성요소로 나누고, 그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전체 구조 또는 목적에 있어 종합적으로 서로 연관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
- v) 평가 : 준거와 기준에 기초를 두고 판단하는 것.
- vi) 창안 : 어떤 요소들을 정합적이거나 기능적 전체로 조합시키고 그 요소들을 새로운 형태나 구조로 재조직하는 것.

이것은 다음과 같은 분류학 표로 제시된다.

〈표 23〉 Anderson 외(2001)의 교육 목표 분류학 표

지식 차원	인지과정 차원					
	1. 기억	2. 이해	3. 적용	4. 분석	5. 평가	6. 창안
A. 사실적 지식						
B. 개념적 지식						
C. 절차적 지식						
D. 메타인지 지식						

이것은 인지심리학의 차원에서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외에 메타인지 지식의 측면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지과정 차원은 Bloom(1956)의 단계를 따랐다. Anderson 외(2001)에서는 이 분류학 표를 적용할 수 있는 예로 교사가 과학 수업에서 설정하게 되는 목표의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Bloom(1956)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단계를 나이도의 차이로 구분한 이러한 인지과정 차원이 학습자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Marzano & Kendall(2007)에서는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추론, 비교, 분류 등과 같은 분석적 조작이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추론해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 후 과제 수행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점으로 인해 ‘신 교육 목표 분류학’으로 이름 붙여진 Marzano & Kendall(2007)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Marzano & Kendall(2007)의 ‘신 교육 목표 분류학’

이것을 앞서 Anderson 외(2001)에 제시된 분류학 표와 비교하면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Anderson 외(2001)에서 지식 차원으로 분류되었던 메타인지적 측면을 인지체제의 상위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며, 두 번째는 지식의 학습 과정에서 분석과 활용의 단계가 바뀌어 제시된 것이다. 즉, 기억으로부터 인출되고 이해된 지식(또는 정보)은 분석 단계를 거친 후 활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특히 분석 단계에서 Bloom(1956)과 Anderson 외(2001)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학습자의 경험적 지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고에서는 언어 및 문화 교육에서 학습자가 한국어의 언어, 문화 지식의 이해 단계를 거친 후 자국의 언어, 문화에 대한 기존 지식과 경험을 이끌어내어 비교분석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서 올바르게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능동적 문화 주체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기에, ‘이해’와 ‘활용’ 사이에 ‘분석’ 과정을 위치시킨 Marzano & Kendall(2007)의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 문화 지식의 학습 단계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림 3〉 한국 문화 지식의 학습 단계 및 단계별 학습 내용

이것은 지식으로서의 문화 항목이 외부적 정보에서 학습자 내면으로 이행하는 인지적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학습의 과정 전체에서 일방적인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수준 및 학습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나선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지식 학습의 기본 모형을 토대로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항목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로 구분하여 구체적 교육 모형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사실적 지식은 주로 문화적 업적이나 성취물 등의 물리적 사물 및 문화 현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말하며, 방법적 지식은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 방식을 이해하여 실제 대화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대처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문화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는 문화적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사실적 지식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법적 지식의 습득으로 이행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구분하고, 앞에서 살펴본 학습 단계별로 수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해볼 수 있다.

먼저 사실적 지식은 지식-이해-평가의 과정으로 구성한다.

지식 단계는 학습 목표에 맞게 구성된 교재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사실적 지식의 내용은 한국의 문화재 및 일반적인 문화 현상을 다루는 성취문화 및 한국 사회 전반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문화 현상 위주로 구성된다.

이해 단계는 Bloom(1956)에서 번역-해석-추론으로 제시되어 있는 과정으로, 학습자는 제시된 내용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주어진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기억에 저장한다.

평가 단계는 학습자가 기존에 저장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비교·대조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수용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주어

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고 출력하는 능력뿐 아니라 정보를 적절히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판단 능력을 갖춘 학습의 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법적 지식 차원은 사실적 지식의 학습과정에 분석, 적용, 종합 등 인지적 영역의 모든 단계가 적용되어야 하는 입체적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의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문화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한국 문화와의 비교, 대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적용 및 종합 단계에서는 문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해 진정한 문화 이해와 수용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 단계에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발화와 태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언어 수행 능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수업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수업 단계별 구성

이러한 수업 단계별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문화 교육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은 교재의 내용과 교사의 설명, 학습자의 이해와 설명, 그리고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평가 단계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비교문화적 수용 능력이 중요시되는데 이것을 기존의 교수-학습 단계와 비교해 봄으로써 차별성을 모색할 수 있다.

기존의 교수-학습 과정은 주로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정리)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계별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표 22〉 한국어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

단계	수업 내용
도입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대화나 자료를 통해 미리 제시함으로써 수업 내용을 예고하고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제시	교재를 통해 해당 차시의 교육 내용을 학습한다.
연습	교사와의 질의응답이나 연습문제 등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연습한다.
활용	배운 내용과 관련된 심화활동을 통해 이해를 확장하고 표현능력을 키운다.
마무리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도입-제시-연습의 과정은 주로 교재에 제시된 읽기/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교사의 설명과 함께 발음, 문법, 어휘, 표현 등을 배우고 연습문제를 통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활용 단계는 교재에서 배우고 연습한 내용을 다양한 상황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심화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문법 및 어휘의 자유로운 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것은 외국어교육의 전통적인 수업 구성으로서 주로 언어 지식의 습득과

활용에 유용한 수업 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화적 지식의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 문화의 개념과 범위가 매우 다층적이므로 이렇게 평면적인 수업 구성에서는 진정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주로 어휘 이해에 치중하는 표면적 지식의 전달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수업 구성의 활용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에서 제시되는 문화적 지식이 더 이상 언어 지식 습득의 부수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주된 주제로서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교재 내용 및 수업활동 역시 문화중심적인 형태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적 지식의 전달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사실적 지식 교수-학습 과정의 단계별 활동

3) 방법적 지식으로서의 문화 교육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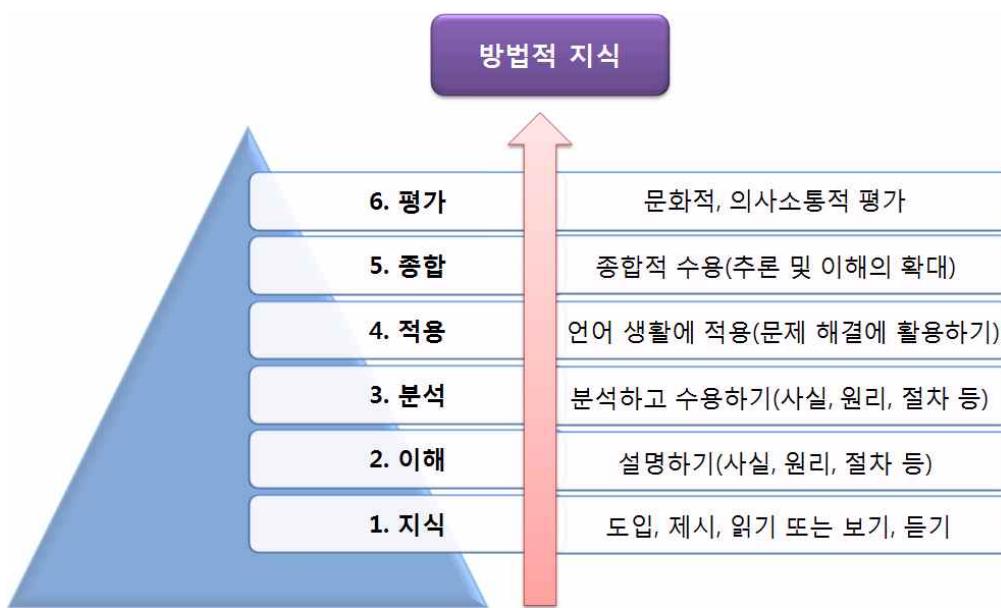
방법적 지식은 타문화권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및 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이러한 방법적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는 사실적 지식의 전달과정에 더하여 여러 추가적 인지과정에 대한 설계가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지식과 이해 차원에서 학습자는 사실적 지식의 전달과정과 같이 교재의 내용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제시된 정보를 이해한다.

다음으로 제시된 문화적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주로 자국의 문화와 비교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러한 차이점이 생기게 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하여 수용하는 과정이다.

적용 단계는 분석 단계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용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연습내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언어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해당 문화 지식의 활용에 필수적인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업활동으로 구성한다.

종합 및 평가에서는 기본적인 목표였던 자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 인식을 통한 적절한 언어사용 능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권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폭넓은 범문화적 지식을 갖춤으로써 학습자의 자기발전과 자아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방법적 지식의 전달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6〉 방법적 지식 교수-학습 과정의 단계별 활동

이렇게 지식의 습득 과정을 이용하여 학습의 단계를 구분한 것은 문화 항목의 내용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차원이 아니라 학습자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쳐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기존에 수업 단계를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5단계로 평면적으로 구성한 것과 차별된다.

다음 장에서는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차원으로 나누어 마련한 이러한 수업 구성의 틀을 다시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의 차원으로 세분하여 수업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를 계속한다.

IV. 지식으로서의 문화의 교수-학습의 실제

1. 교재 구성 방안

앞 장에서 현행 한국어 교재 구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화적 지식은 더 이상 언어기능 습득 활동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서 구조화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문화 지식은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나뉘며 이것을 개별 문화 항목의 특징 및 교수-학습 목표와의 연관성에 따라 지식-이해-분석-적용-종합-평가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교재에서 문화 교육을 제시할 때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문화는 언어 지식 습득의 부수적인 장치가 아닌 중심적 주제로 구성한다.

둘째, 지식 및 이해 단계에서 텍스트를 제시할 때는 한국 문화의 항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학습자가 자국 문화와 비교, 대조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보편성을 고려한다.

셋째, 분석 과정에서는 문화 지식의 형성 과정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제시한다.

넷째, 적용 과정에서는 여러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 문화적 지식을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습활동 및 후속활동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종합, 평가 단계에서는 문화 지식을 이용한 언어 활용의 적절성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한국 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현상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여 범문화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의견 발표 및 토론 등의 심화활동을 제시한다.

위와 같이 문화 지식 중심의 교재 구성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본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첫 번째 항목으로, 문화는 언어 지식 습득의 부수적인 장치가 아닌 중심적 주제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는 궁극적으로 언어 습득을 제 1의 목표로 하며, 학습자가 문화 중심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휘, 문법, 표현 등의 언어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교재 내에서 언어 지식과의 유기적 배열 및 제시가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언어 지식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재의 내용이 문화 지식 중심의 내용 구성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 지식과의 유기적 배열 및 제시에 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현행 한국어 교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지식 중심의 교재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현행 한국어 교재의 내용을 문화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교사는 필요에 따라 한국어 교재와 문화 교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간단한 키워드나 부수적 정보로 제공되어 있는 문화 주제에 대하여 추가적이거나 심화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문화 교재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문화 중심의 심화 활동이나 확장 활동(발표, 토론 등)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문화 중심 수업의 과제 활동을 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와 병행하는 경우 수업 내용에 문화 교육 내용을 안배하기 위한 수업 차시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기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교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 교사의 측면에서 수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현재 한국어 교재의 내용을 문화 지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언어 지식 중심 단원과 문화 지식 중심 단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때 언어 지식 중심 단원은 기존 한국어 교재의 기본 구성을 따를 것이며 문화 지식 중심 단원은 본고에서 제시한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차원의 수업 단계를 활용하여 구성한다. 이때 문화 지식 단원의 주제는 언어 지식 단원에서 키워드로 제공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후 문화 지식 단원 수업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화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재 한국어 교재에는 각급별로 한 단원 내지 두 단원 정도를 한국 문화 관련 단원으로 구성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적으로도 학습자의 요구 및 필요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의 내용과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따라서 문화 단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에는급별 교수요목을 고려하여 다른 단원과 내용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진 대단원 내에서 언어 지식 중심의 소단원과 문화 지식 중심의 소단원을 따로 구성하는 방법이다.

문화 지식 중심 단원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 차원의 단계별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표현활동 및 심화된 과제활동에 필요한 언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문화 지식 중심 단원 수업 이전에 언어 지식 중심 단원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한다. 이를 토대로 문화 지식 중심 단원에서 과제활동 수행 시 좀 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사 측면에서도 별도의 부가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하여 수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소단원을 요일별 수업으로 구성할 때, 언어 지식 단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과제를 내주어 이후 수업을 위한 충분한 이해와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문화 지식의 주제로 이루어진 단원 수업에서 언어 지식 수업과 문화 지식 수업을 차시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요일별로 수업을 구성할 때보다 언어 지식에 관한 연습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문화 지식 수업의 이해와 연습 단계에서 텍스트에 제시된 문법, 어휘, 표현 등을 충분히 연습한 후 확장 및 심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한다.

요일별 구성의 장점으로는 학습자가 충분한 언어 지식 습득 및 연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문화 중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 차시별 구성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배운 언어 지식 내용을 곧바로 활용 단계에서 과제활동에 응용함으로써 학습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문화 지식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은 기본적으로 언어 지식

중심의 현행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 지식이 중심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은 다양한 교재 구성 방안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안을 기본적 토대로 하여, 각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응용이 가능한 기본적인 교수 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한국어 교재 내에서 언어 지식과 문화 지식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언어 지식과 문화 지식은 기본적으로 한 단원 내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단원 구성 시에는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소단원으로 구분하여 요일별 수업으로 구성하거나 같은 단원에서 차시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모형을 토대로 이후 학습자 수준 및 주제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문화 지식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모형의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한다.



2. 텍스트 제시 방안

교재 내에서 해당 단원의 지식 내용 전달을 위해 텍스트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수업 과정 구성에서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은 언어 지식 전달 중심의 텍스트 안에서 문화 지식은 단편적인 어휘나 그림 또는 간략한 설명 위주로 제시되고 있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현, 전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 구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을 참고하여 문화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유형과 구성 및 제시 방안에 관해 고찰한다.

먼저 텍스트 유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Brinker(1983)⁵²⁾는 텍스트를 그 기능에 따라 제보 기능, 호소 기능, 책무 기능, 접촉 기능, 선언 기능으로 나누었으며, 송금숙(2002)은 제보적 기능, 표상적 기능, 조작적 기능, 상상적 기능, 친교적 기능으로, 김희경(2010)은 정보 및 설명 텍스트, 비판 및 요구 텍스트, 사회적 상호작용 텍스트, 표현 텍스트, 선언 텍스트로, 장미경(2012)은 제보적 텍스트, 설득적 텍스트, 친교적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로 나누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텍스트의 유형 분류를 시도했던 논의들은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이중진(2009)⁵³⁾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한국어 읽기교육의 목표를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사회라는 담화 공동체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텍스트들을 해독하고 그에 적절한 과제를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읽기 교재의 텍스트 구성 방안을 제보 텍스트, 호소 텍스트, 책무 텍스트, 접촉 텍스트, 선언 텍스트, 작품 텍스트 등의 여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 연구의 텍스트 유형 분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2) Klaus Brinker 저, 이성만 역(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53) 이중진(2009), 「한국어 읽기 교재의 텍스트 구성방안」,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표 23〉 선행 연구의 텍스트 유형 분류

		선행 연구			
	Brinker (1983)	송금숙 (2002)	이중진 (2009)	김희경 (2010)	장미경 (2012)
텍스트 유형 분류	· 제보 텍스트	· 제보적 기능	· 제보 텍스트	· 정보 및 설명 텍스트	
	· 호소 텍스트	· 표상적 기능	· 호소 텍스트	· 비판 및 요구 텍스트	· 제보적 텍스트
	· 책무 텍스트	· 조작적 기능	· 책무 텍스트	· 사회적 상호작용 텍스트	· 설득적 텍스트
	· 접촉 텍스트	· 상상적 기능	· 접촉 텍스트	· 친교적 텍스트	· 친교적 텍스트
	· 선언 텍스트	· 친교적 기능	· 선언 텍스트	· 표현 텍스트	· 표현적 텍스트
			· 작품 텍스트	· 선언 텍스트	

본고에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읽기 텍스트의 유형을 고찰한 이중진(2009)의 분류를 중심으로 텍스트 제시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중진(2009)에서는 Brinker(1983)의 ‘화행론적 실용 텍스트 유형 분류’, 고영근(1999)⁵⁴⁾의 ‘매체 성격에 따른 텍스트 유형 분류’, 박진용(1998)⁵⁵⁾의 ‘심리적 텍스트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한국어 읽기 교재의 급수별 텍스트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Brinker(1983)에서는 Searle(1976)⁵⁶⁾의 화행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기본 기능을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용 텍스트에 한하여 텍스트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4)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아르케.

55) 박진용(1998), 「국어과 교육의 텍스트 유형 분류」, 청람어문학 20, 청람어문교육학회.

56) Searle, John(1976). 「The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 1-24.

〈표 24〉 Brinker(1983)의 실용텍스트의 화행론적 텍스트 유형

텍스트 유형	텍스트 기능	지배적 화행	텍스트 종류
제보 텍스트	정보 전달	설명, 주장, 추측, 통보, 보고, 전달, 확인, 평가, 제보	뉴스(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기사, 안내문, 초대장, 보고서, 일지, 진술서, 부고, 공고문, 진단서, 사유서, 일기예보, 소견서, 서평, 신간소개, 교통주의/교통지시표시, 상호(商號), 기관명
호소 텍스트	호소	명령, 요청, 지시, 권고, 충고, 청구, 제안, 지시, 처방	상품광고, 요리법, (공구) 조작법, 표어, 교통 규제표지, 논증,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논평, 변론, 사설, 설교, 성명서, 이미지 광고, 사용설명서, 지원서, 신청서, 요청서, 처방전, 청구서, 청원서(탄원서), 추천서, 광고 선전, 홍보 텍스트, 작업 안내서, 법률텍스트
책무 텍스트	책무	맹세, 서약, 승인, 약속, 허락, 확약, 내기, 제안, 제의	(흔인)서약서, 선서문, 맹세문, (품질)보증서, 계약서, 각서, 승인서, 제안서, 합의서, 맹서
접촉 텍스트	접촉	감사, 사과, 축하, 인사, 위로, 애도, 격려, 환영, 우려	감사편지, 격려문, 사과문, 연하장, 조문편지, 축하카드, 환영사, 연애편지
선언 텍스트	선언	세례, 해임, 사면, 임명, 사임, 정의	임명장, (성혼)선언문, 위임장, 유언장, 증명서, 증서, 해임장, 헌장, 담화문, 결의문, 위촉장, 판결문, 각종 증명서, 기부증서, 상속증서, 학위증서, 졸업증서, 출생증명서, 해약고지서, 회원증명서

이중진(2009)에서는 Brinker(1983)의 5가지 텍스트 유형 분류에 고영근(1999)⁵⁷⁾에서 제시된 ‘작품 텍스트’ 유형을 추가하여 텍스트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의 1급-6급에 맞게 등급별로 내용을 분류하였다.⁵⁸⁾ 특히 제보 텍스트 유형에 문화설명문을 포함시키고 각 급별로 문화설명문으로 제시될 수 있는 문화 항목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중진(2009)에 나타난 한국어 읽기 교재의 급수별 텍스트 유형 중 제보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이중진(2009)의 한국어 읽기 교재의 급수별 텍스트 유형

제보 텍스트	
1급	안내문, 시간표, 초대장, 일기, 문화설명문(한글, 국가, 국화, 국기, 무예 등)
2급	안내-공고문, 일기예보, 문화설명문(명절, 음식, 주거, 의복, 음악 등)
3급	사유서, 이력서, 신문기사, 실험보고서, 문화설명문(교육, 결혼, 장례, 스포츠 등)
4급	신문기사, 실험보고서, 기행문, 독후감, 감상문(영화, 음악), 도표나 통계자료 글, 문화설명문(역사, 경제, 인터넷 등)
5급	신문기사, 각종 보고서, 진술서, 신간소개, 문화설명문(정치제도, 경제, 지리 등)
6급	신문기사, 각종 보고서, 진술서, 부고, 서평, 문화설명문(환경, 국제외교 등)

57) 고영근(1999)에서는 텍스트의 유형을 매체의 성격에 따라 발화 텍스트, 작품 텍스트, 문서 텍스트, 영상 텍스트로 나누고 각각의 텍스트 유형의 예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i) 발화 텍스트 : 대화, 독백, 독화, 서사
- ii) 작품 텍스트 : 시, 소설, 희곡, 수필류
- iii) 문서 텍스트 : 공문서, 영수증, 논문, 신문, 광고
- iv) 영상 텍스트 : 영화, TV, 컴퓨터
이중진(앞의 논문), 134-135쪽.

58) 급수별 텍스트 유형의 세부 내용은 [부록 4] 참조.

한편 박진용(1998)에서는 텍스트 생산자의 ‘인지적 구도’와 ‘텍스트 목적’이라는 두 가지 심리적 차원의 기준에 따라 문어 텍스트를 구분한 Brewer(1980)⁵⁹⁾의 분류를 바탕으로 텍스트 유형을 기술적 텍스트, 이야기, 설명적 텍스트 등 3가지로 분류하고 다시 텍스트 사용 목적에 따라 정보적 텍스트, 오락적 텍스트, 설득적 텍스트, 심미적 텍스트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총 12가지 문어텍스트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박진용(1998)의 문어 텍스트의 심리적 텍스트 유형

목적		정보성	오락성	설득성	심미성
생산자	인지구조				
기술	기술	기술보고서, 식물학, 지리학 등	일상묘사	가옥광고	시적묘사
이야기	이야기	신문기사, 역사기록문, 절차 안내문, 처방전, 전기문 등	추리소설, 서부소설, 공상과학소설, 괴기소설, 단편소설, 전기문, 드라마	교훈소설, 우화, 설화, 광고문, 드라마	예술소설, 단편소설, 드라마
설명	설명	과학적인 글, 철학, 추상적 정의 등		설교문, 선전문, 사설, 광고문, 논문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 지식은 주로 정보 전달 및 설명 기능에 초점을 둔 제보 텍스트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 텍스트 유형의 차원에서 생산자의 기술, 이야기, 설명의 유형에서 정보적 성격을 띠는 세부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문화 지식 중심의 텍스트 유형을 논함에 있어 기

59) Brewer, W. F.,(1980). Literary theory, rhetoric, and Stylistics : Implications for psychology. In Spiro, R. J., Bruce, B. C. & Brewer, W. F.(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Hillsdale, NJ:LEA.

존의 방식과 구별되어야 할 점은 단순히 설명적 읽기 텍스트에 활용할 수 있는 문종(文種)으로서가 아닌 좀 더 넓은 의미의 텍스트 유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 지식 중심의 텍스트로는 정보 제공 기능을 하는 설명적 텍스트 유형을 중심으로 하되 앞의 논의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텍스트들을 고루 활용하며, 최근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그 효용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매체 텍스트(시각자료, 동영상, 방송, 인터넷 등)를 함께 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습자 수준별로 구체적인 수업 단계별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수준에 맞는 텍스트 유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김희경(2010)⁶⁰⁾에서는 한국어의 읽기 텍스트 유형을 정보 및 설명 텍스트, 비판 및 요구 텍스트, 사회적 상호작용 텍스트, 표현 텍스트, 선언 텍스트의 5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교재 구성 방안을 설명하였다. 그 중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문화 내용 제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및 설명 텍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 정보 텍스트 : 정보의 전달 및 정보 찾기 활동을 위한 텍스트.
백과사전, 메뉴, 가격표, 식단, 상품 전단지, 강의계획표, 신상명세서, 전화번호부, 주소록, 상표, 지도 등.
- (2) 설명 텍스트 : 어떤 사실이나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파악하는 활동을 위한 텍스트.
설명문, 기행문, 실용서, 안내문, 사용설명서, 요리법, 프로그램(방송, 공연, 전시회) 등.

또한 김희경(2010)에서는 내용 교과에서 지식 학습을 위한 가장 적절한 텍스트 유형은 설명 텍스트라고 제시하면서도 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화된 설명이 학문 목적의 학술적 글에는 유용하지만 일반 목적의 의사소통 중심 수업에서는 지루한 구성으로 학습자에게 덜 흥미로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인

60) 김희경(2010), 「읽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교재 구성 방식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포 텍스트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문자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설명 텍스트에서는 내용 전개가 순차적으로 구성되므로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읽고 내용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자 텍스트로만 설명하다보면 내용이 장황해지고 텍스트가 길어져 가독성이 낮아지고 학습자의 흥미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그래프나 도표를 넣어 정보성을 강조하거나 숫자, 기호 등을 함께 넣어 문자 언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목표로 하는 문화 지식 중심 수업은 텍스트 내에서 지식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지식을 이끌어내어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매체 텍스트 및 인포 텍스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중진(2009)에서는 한국어 읽기 교재의 텍스트 유형을 편의상 등급별로 구분하였으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의 습득을 요하는 문화 지식의 차원에서는 활용 가능한 텍스트의 유형이 급별 난이도에 따라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텍스트 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각 단원의 주제 및 교수요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교수-학습 활동의 설계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기 위하여 먼저 기본적인 교수법 이론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해 본다.

김재욱 외(2010)⁶¹⁾에서는 한국어 교수법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문법번역식 교수법, 직접식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공동체 언어 학습법, 전신 반응 교수법, 암시 교수법, 의사소통식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내용 중심 교수법 등 10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교수법의 특징 및 장단점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김재욱 외(2010)의 분류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언어 교수 방식인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최근 언어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의사소통식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내용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의 외국어 교수 과정은 고전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탈피하여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주어진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치중하였다면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듣기 등의 언어 기능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측면을 중요하게 부각시킨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²⁾

(1) 문법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

이성주의 시대에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던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문법 규칙의 자세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문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 초기부터 상당한 양의 어휘와 상세한 문법 설명이 따르는 번역 수업을 한다. 전적으로 모국어에 의존하여 수업을 하게 되며 초기 단계부터 어휘와 철자를 중시한 읽기와 쓰기를 강조하고 발음을 무시하며 규칙의 암기에 의한 문법을 교수한다.

61) 김재욱 외(2010), 「한국어 교수법」, 형설출판사.

62) 교수법 관련 내용은 김재욱 외(앞의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장점으로는 학습자 모국어로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수업 준비와 평가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라틴어의 수업방식을 따른 어려운 교재의 사용과 읽기 위주의 수업으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기 어렵고, 문법 규칙 위주의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으로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거나 창의력을 고취시키기 어려우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실용적인 내용들로 교과서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많은 단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1960년대까지 외국어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말하기의 중요성이 반영된 새로운 교수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의사소통식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과 사용을 중시하는 교수법으로 '기능적/의미적 교수법'이라고도 불린다. 1970년대에 이르러 외국어교육계에서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언어 구조나 어휘가 아닌 의사소통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출현하게 된 교수법이다.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의사소통 기능에 중점을 두고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유창성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방법론으로, 초급 단계에서는 구조적 교수요목과 함께 병행하고 중급 이후부터 의사소통적 기능 중심으로 구성한다.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학습자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작성하고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전략을 배우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을 유도한다. 또한 이 교수법은 학습자를 학습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높은 동기 부여를 가능하게 하며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자의 경험을 의사소통의 소재로 삼아 유의미한 학습이 되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교재는 문법 구조보다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구성되므로 학습자들이 문법 구조를 혼동할 수 있고 체계적인 문법 습득과 문장 생성 능력 습득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목표 언어에 대한 문법 능력의 습득이 선행되어야 하

며, 문법은 학습자의 실질적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물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에는 의사소통식 교수 방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업과 평가의 용이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실제 교육현장에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형태가 일부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으로 통제된 교실 환경 속에서 주어진 교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연습하고 평가받는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 지식 부분은 여전히 언어 지식 전달의 부차적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기에 적극적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언어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당 문화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교재의 내용은 교실이라는 통제된 상황에서 과제 중심 활동을 통해 언어 기능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 과제 중심 교수법과 내용 중심 교수법의 수업 내용 및 과제 활동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등 학습자 중심의 수업 활동들이 개발되고 있다. 과제 중심 교수법과 내용 중심 교수법의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제 중심 교수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

과제 중심 교수법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한 갈래로 언어 교수에서 수업의 필수 단위인 과제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다. 이 교수법은 교사 중심, 결과의 평가 중심이던 기존의 교수법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활동 과제 위주로 수업이 구성된다. 퍼즐, 지도 찾기, 길 안내, 전화하기, 편지 쓰기, 안내문 읽기, 장난감 조립하기 등 문제 해결 위주의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는 동료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해 나가며 언어 숙달도 및 유창성을 배양하고 자신감을 고양시킬 수 있다.

과제 중심 교수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며 최근 제2언어 습득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어휘 요소가 필수적으로 다루어진다. 과제 활동과 성취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부여를 고취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여 학습들 촉진한다.

다만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한 과제 활동에서 어휘와 문법 능력이 부족한 초급 학습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제된 교실에서 행해지는 과제 활동이 교실 밖의 실제 언어 사용 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과제 중심 교수법의 기본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 시 의사소통적 측면에서 의미의 교환을 위한 다양한 전략 활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과제는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내용 중심 교수법은 의사소통식 교수법과 총체적 언어 교수법을 기반으로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학습자가 학습하게 될 언어와 내용을 통합하여 교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교수법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하게 될 언어와 내용을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보다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수요목을 조직하여 가르치는 것이 언어 습득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내용’이란 전통적 교수법에는 문법 구조, 어휘, 음성 패턴을 나타내고 의사소통식 교수법에서는 질문하기, 초대하기, 거절하기 등의 개념과 기능을 나타내는 반면 내용 중심 교수법에서는 학습자가 관심을 갖거나 필요로 하는 주제 또는 화제, 특수 목적 언어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직업상 필요로 하는 것, 학문 목적 언어 교육에서는 학교에서 직면하게 될 학문적 과제 등을 말한다.

내용 중심 교수법에서 학습자는 의미있고 맥락화된 상황 속에서 목표어로 된 자료를 학습하게 되는데, 언어가 학습자들에게 흥미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될 때 학습자는 언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즉, 언어가 내용 학습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절한 역할을 할 때 학습자는 내용 학습의 부산물로서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내용 중심 교수법의 가장 큰 장점은 유의미한 맥락이 있는 담화를 통해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되며, 학문적 또는 직업적 필요성을 반영한 내용을 통해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의 내적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용 중심 교수법의 단점은 교사의 입장에서 교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고 언어와 내용이 통합된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내용 학습을 위한 충분한 언어 학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용 중심 교수법은 주로 주제 중심 교수 활동으로 진행되는데, 다양한 주제 중심 교수 활동을 통해 내용과 언어의 통합, 언어 기능의 통합, 학습 기술의 통합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꾀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제 중심 교수법과 내용 중심 교수법은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따라 다양한 수업 활동 및 과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활동들이 의사소통 능력과 효율적으로 연계된 유의미한 활동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고찰하면서 제기하였던 적극적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이끌어내어 반영할 수 있는 문화 중심의 수업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화가 언어학습의 부차적 요소가 아닌 중심적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학문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문화 교육을 통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모형으로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바탕으로 과제 중심 교수법과 내용 중심 교수법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국 문화 교육의 모형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한국 문화 교육의 기본 틀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며, 사실적 지식에 있어서는 내용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식의 전달과 평가에 중점을 두고 방법적 지식에 있어서는 과제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의 발표 및 토론 활동을 통한 비교문화적 지식 습득에 중점을

을 둔다.

이를 위해 앞서 대략적으로 검토하였던 의사소통식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내용 중심 교수법의 구체적인 수업 방법 및 수업 단계별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에 적합한 수업 모델을 구상해 볼 것이다.

먼저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수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표 27〉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수업 구성

교수 목표	맥락과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교수 중점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교육한다.		
교수 방식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두고, 실제적 과제를 활용하고, 오류 수정을 최소화 한다.		
단계	과정	활동 및 역할	
		교사	학습자
도입	인사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사진, 질문 등을 통한 학습 내용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내용에 대해 추측하기
제시	상황 제시 및 학습할 표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의사소통 상황 제시 · 학습할 내용 판서 및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를 보고 학습 내용이 사용되는 상황 맥락 이해 · 교사의 설명 듣고 이해하기
연습	통제적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 및 주요 구문 연습 · 짹 활동을 통한 통제적인 연습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지시에 따라 배운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
활용	의사소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극, 게임 등 다양한 과제를 통해 실제 맥락과 유사한 의사소통 활동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시켜 여러 사람과 함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하기
마무리	학습 내용 확인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통해 학습 내용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표현 정리하기

다음으로 내용 중심 교수법의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표 28〉 내용 중심 교수법의 수업 구성

교수 목표	언어와 내용을 동시에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 중점	학습자들의 생활에 중요한 내용 지식을 학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특수 목적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수 방식	읽기를 통한 내용 학습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말하기, 쓰기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계	활동 및 역할	
	교사	학습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준비해 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실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관련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 · 주제 관련 자료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읽거나 들으면서 다루려는 내용에 대한 지식을 넓힘
어휘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관련 어휘, 읽기의 핵심 어휘 제공 · 어휘를 숙지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활동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휘를 익혀 읽기 활동을 도우며 주제에 대한 표현 활동을 함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관련 읽기를 제공해 이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움 · 전략을 알려 주고 이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대한 읽기 자료를 읽고 이에 대한 내용 이해 및 자신의 생각을 전략을 활용해 말하기로 연습함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관련된 말하기 활동을 할 확장 주제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를 확장한 말하기 활동. 주제에 관련하여 자신의 나라의 경우, 다른 환경의 경우 등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의 토의 활동을 수행함
쓰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학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 활동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쓰기 활동으로 함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에서 배운 내용의 주제를 확인함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알림 	

다음으로 과제 중심 교수법의 수업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9〉 과제 중심 교수법의 수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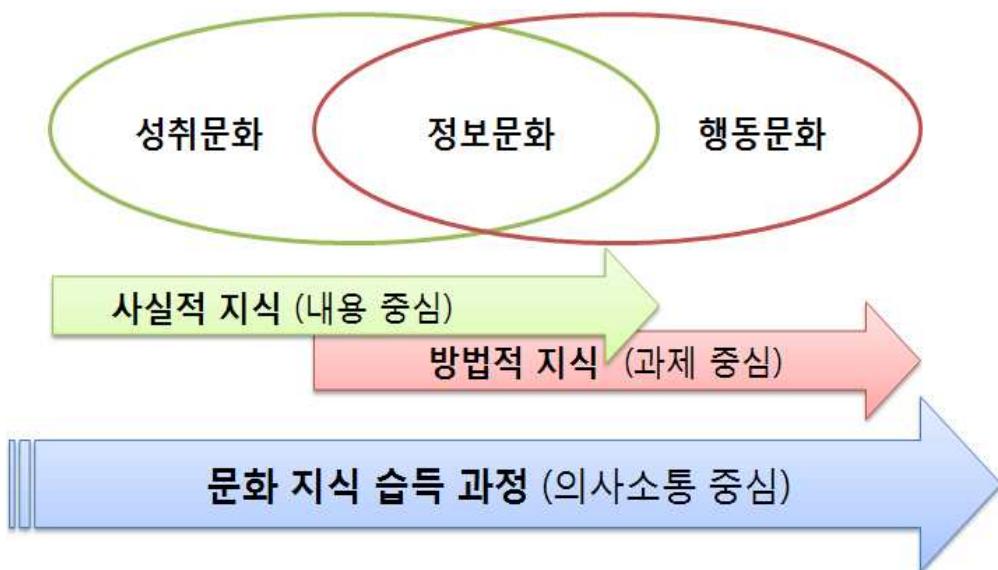
교수 목표	실제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		
교수 중점	학습 목표에 맞는 바람직한 과제를 선택하여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과제 참여를 유도한다.		
교수 방식	과제를 중심으로 가르칠 내용을 조직하여 간접적으로 언어를 학습하게 한다.		
단계	과정	활동 및 역할	
		교사	학습자
도입	동기 유발 /학습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시청각 자료, 질문 등을 통한 동기 유발 · 학습할 내용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인 자세로 교사의 지시에 따름 · 학습할 내용을 추측
과제 1	1차 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과제 제시 및 소개 · 과제 해결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1차 과제 수행하기
학습	어휘/표현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학습 내용 정리 및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중 학습의 필요성을 느낀 어휘와 표현을 학습함
과제 2	2차 과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과제와 성격이 비슷하나 보다 심화된 2차 과제 제시 및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과제 수행하기
마무리	학습 내용 정리 / 활동 후 감상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결과 확인하기 · 질문을 통한 학습 내용 복습 · 학습자들에게 과제 수행 후 느낀 점 질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학습 내용 확인하기 · 과제 수행 시 느낀 점 발표하기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기본 틀로 하여 사실적 지식에 있어서는 문화적 정보 및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춘 내용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방법적 지식에 있어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 과제 위주의 과제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표준 모형의 항목들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라는 틀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한다.

먼저 표준 모형의 성취문화는 한국의 문화재나 문화유산 등 물적(物的) 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 측면에서 이해 위주로 교육되어야 할 사실적 지식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고, 행동문화는 사실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행동 방식 및 대처 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 지식의 성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보문화는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사실적 지식으로서의 성취문화 교육이 이해 측면에 치중되었다면 정보문화 교육은 학습자들이 자기 나라 문화권에 대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와 비교, 대조하여 문화에 대해 분석적, 비판적 시각을 키울 수 있는 능동적 과정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제시된 문화 항목의 내용만으로 지식적 성격을 구분 짓기 모호한 경우는 교재의 단원 구성 시 설정한 학습목표를 고려하여 수업의 단계와 방향에 맞게 적절히 내용을 구성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의 항목별 속성을 고려하여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라는 구분에 적용하여 문화 지식의 습득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의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림 7〉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 지식 습득 과정

먼저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구분에서는 문화에 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실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를 토대로 점차 방법적 지식의 측면으로 전이되도록 하며, 각각의 지식 차원에서는 성취문화 → 정보문화 → 행동문화의 순서로 습득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에서 ‘한복’을 예로 들면, 성취문화로서의 ‘한복’ 항목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그 모양과 종류, 쓰임 등에 대한 현상적, 사실적 설명의 측면이 중요시될 것이고 정보문화의 차원에서는 한국인들이 한복을 입게 된 유래나 입었던 시기 등에 대한 배경지식이 제공될 것이며, 행동문화의 차원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아직까지 한복을 입는 전통을 이해하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옷차림을 할 수 있는 실제적 지식 위주로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각 문화 항목별로 그 특성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교수방법론의 개념과 연관하여 교수-학습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을 토대로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교수방안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1) 사실적 지식

(1) 성취문화

사실적 지식으로서의 성취문화는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예술, 문학, 역사와 관련된 사물이나 현상적 사실 위주의 문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적 지식으로서 성취문화의 학습은 평면적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이후 방법적 지식 습득의 배경지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항목 및 언어 기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구성하여야 한다.

성취문화는 사실적 지식의 학습 단계인 지식-이해-평가의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사실적 지식의 학습 단계에서 기준의 수업 활동과 차별화 되어야 할 점은 지식의 구조화 방법이다.

지식은 표현방식, 경제성, 생성력을 통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다시 행동적 표상, 상징적 표상, 영상적 표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⁶³⁾ 이렇게 지식을 구조화 하는 것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법뿐 아니라 수업 단계별로 활동을 고안하고 학습자 수준별, 단계별 수업 항목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 모형의 급별 문화 항목에는 1급에 해당하는 성취문화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초급 교재가 한국의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우선적 과제로 하여 구성되었다는 점 외에 초급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서 읽기나 듣기 텍스트를 통한 명시적 설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텍스트 구성방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텍스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영상이나 시각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실적 지식으로서 성취문화의 수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63) 1) 행동적 표상 : 학습자의 행위에 초점을 줌. 사물을 직접 접하고 조작하면서 이해
2) 영상적 표상 : 사물과 현상에 대한 그림이나 영상 또는 모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면서 이해
3) 상징적 표상 : 언어나 기호 등을 사용하는 언어적 진술이나 공식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이해
김영봉·권순희 외(2007).

〈표 30〉 사실적 지식으로서 성취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단계	수업 내용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문화 항목에 관한 시각 자료(사진, 그림, 안내문, 동영상 등)를 통해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주제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주제와 자료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노출하고, 학습자는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내용에 대해 추측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각자 주제 관련 자료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 다른 학습자들과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주제와 관련하여 읽기나 듣기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어휘 및 표현에 대해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나 듣기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p>자료는 한국의 성취문화에 대한 설명적 텍스트를 활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읽거나 들으면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습자는 제시된 텍스트를 학습한다.
	<p>텍스트에 처음 나오는 어휘, 문법, 표현, 발음 등에 대해 학습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p>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교사와의 질의응답 및 연습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극, 짹활동, 그룹 활동, 게임 등 다양한 과제활동을 및 연습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내용에 대해 각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학생들의 말하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해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배운 내용 및 활용 단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쓰기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제를 내 준다.

(2) 정보문화

사실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경제, 교육 등의 항목까지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적 지식으로서의 정보문화의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설계는 앞서 살펴본 사실적 지식으로서의 성취문화의 교수-학습 단계를 따르되 이후 방법적 지식 차원의 수업 단계에서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국어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과의 비교, 대조라는 상호문화적 분석 과정을 통해 발표 및 토론 활동을 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한국어 학습자는 자국에서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마친 성인 학습자가 대부분이므로 자국의 문화 및 역사에 대해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문화 비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 지식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은 학습자의 언어수준을 고려한 난이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어 학습자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을 드러낸다.

앞 장에서 현행 한국어 교재의 내용을 검토한 예를 보면, 의생활에 해당하는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항목에서는 한국 전통의상에 대한 사실적 지식의 전달이 없이 웃이나 물건 주문하기와 같은 수업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진정한 정보전달이라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고, 식생활에서는 한국의 절기애 따른 세시풍속과 음식 먹는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채로 보신탕을 먹는 문화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연결하여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교재에서 문화적 지식의 전달 및 학습 과정이 위계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했던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주어진 수업과정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토로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실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의 수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표 31〉 사실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단계	수업 내용
도입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관련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자료는 한국의 정보문화 항목에 관한 내용 및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 학습자는 한국의 정보문화 항목과 비교하여 자기나라 문화 항목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본다.
제시 제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주제와 관련하여 읽기나 듣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설명하고, 읽기나 듣기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읽기나 듣기 텍스트는 각 나라 정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그 형성 배경에 관한 설명적 텍스트를 활용한다. · 학습자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읽거나 들으면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연습 활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습자는 제시된 텍스트를 학습한다. 텍스트에 처음 나오는 어휘, 문법, 표현, 발음 등에 대해 학습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교사와의 질의응답 및 연습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과제활동을 및 연습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 배운 내용에 대해 각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교사는 학생들의 말하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해 준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배운 내용 및 활용 단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쓰기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제를 내 준다.

(3) 행동문화

행동문화 항목은 그 자체로 방법적 지식의 측면에 가까운 특징을 갖는다. 즉 한국인의 생활 방식 및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여 실제 의사소통 현장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진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문화에 대해서는 행동의 배경이 되는 사실적 지식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한국어 교재의 내용은 사실적 지식에 대한 배경지식의 제공이 부족한 채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단편적 활용이 가능한 기능 중심의 이해와 연습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의 배경이 되는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상황에 어울리는 언어표현만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가 없이 그때그때 증상에 맞는 약만을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언어능력의 습득이라 보기 어렵고,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잦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언어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된다.

따라서 행동문화 항목이 방법적 지식으로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 항목의 의미뿐 아니라 그 문화 항목의 내용이 성립되게 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한국 사람들의 실제 쓰임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사실적 지식 측면의 배경지식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처음 접했을 때 다소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한국인의 행동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이후 발생하는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적절히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반대로 한국인의 눈에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행동에 위축되지 않고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실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의 수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표 32〉 사실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단계	수업 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관련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이때 시각 자료는 한국인의 행동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등으로 제시한다.(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 학습자는 동영상을 보면서 평소 한국인의 행동 특성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해 본다.
지식	<p>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주제와 관련하여 읽기나 듣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어휘와 표현을 설명하고, 읽기나 듣기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이때 읽기나 듣기 텍스트는 한국인의 행동 특성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문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적 텍스트를 활용한다. · 학습자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읽거나 들으면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이해	<p>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습자는 제시된 텍스트를 학습한다. 텍스트에 처음 나오는 어휘, 문법, 표현, 발음 등에 대해 학습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한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교사와의 질의응답 및 연습문제를 통해 확인한다. 다양한 과제활동을 및 연습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평가	<p>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과제활동을 및 연습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 배운 내용에 대해 각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교사는 학생들의 말하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해 준다.
	<p>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배운 내용 및 활용 단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쓰기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제를 내 준다.

2) 방법적 지식

(1) 성취문화

방법적 지식으로서의 성취문화는 의사소통식 교수법 및 과제 중심 교수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실적 지식 측면에서 습득한 정보를 통해 해당 성취문화 항목과 연관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유의미한 과제 활동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과제활동은 주로 교재에서 배운 내용 및 언어 표현, 문법, 어휘 등을 연습하는 통제적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교재에 따라 단원의 주제와 어울리는 확장활동이나 심화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앞서 제시된 통제적 활동들이 단순한 언어 내용 및 기능 연습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확장활동이나 심화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학습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주로 명시적 설명을 통하여 성취문화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으며, 방법적 지식의 차원에서는 그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업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사소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교재에서 배운 기본적 지식 외에 추가적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고안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나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를 통해 비판적으로 문화를 인식하여 수용하는 능력까지를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방법적 지식으로서 성취문화의 수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표 33〉 방법적 지식으로서 성취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단계		수업 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자료(시각 자료, 간단한 텍스트) 및 교사의 질문 등을 통해 학습할 내용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교사는 학습 목표로 설정된 과제의 내용을 설명한다.
지식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학습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확인한다. 교사는 해당 항목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한다. <p>과제는 성취문화의 내용에 대한 부가정보 수집, 성취문화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 수행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짜활동, 그룹 활동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과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는 교사의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능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언어적이거나 방법적 측면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해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과제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한다.
분석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한 과제를 발표한다.
적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발표한 과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동료의 발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 서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종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수행 및 발표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자기 나라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 한국 문화뿐 아니라 동료 학습자 나라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평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 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쓰기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내 준다.

(2) 정보문화

방법적 지식으로서의 정보문화 항목의 수업에서는 현재 한국 문화에 대해 현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정보문화 항목은 현재 한국과 한국인의 구체적인 모습 및 생활을 반영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적인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형성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정이다.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정보문화를 형성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명시적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방법적 지식 차원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비교문화적 관점으로 문화 현상에 대해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활발한 의견 교환 및 토론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질 수 있으며 한국에 오기 전에 알고 있던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문화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다. 즉, 자기 문화 중심의 편협한 시각이나 문화사대주의, 국수주의 등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문화관을 갖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문화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기존에 지식의 전달자적 측면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학습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자 스스로 비판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의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방법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의 수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표 34〉 방법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단계		수업 내용
지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자료와 교사의 질문 등을 통해 학습할 내용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교사는 학습 목표로 설정된 과제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학습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확인한다. 교사는 해당 항목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한다. <p>과제는 한국 문화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발표 및 토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다.</p>
이해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과제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한다. <p>한국 문화와 자기 나라 문화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조사한다.</p>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수행한 과제를 발표한다.
적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발표한 과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p>같은 문화 항목에 대해 문화권마다 다른 형성 배경이 있음을 알고, 각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한 내용을 교환하고 공유하도록 한다.</p>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수행 및 발표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자기 나라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 한국 문화뿐 아니라 동료 학습자 나라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평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 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쓰기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내 준다.

(3) 행동문화

행동문화는 한국인의 생활양식 및 행동방식을 반영하는 문화 항목으로서 그 생활양식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지식 등의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방법적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어를 공부한 외국인들이 여전히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을 토로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언어 교재가 주로 사실적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한 문화권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행동방식을 만들 어온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매우 다층적이고 방대한 양의 지식을 요구하므로 교실 수업으로 학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교재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행동방식을 결정하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재를 통해 배운 사실적 지식이 방법적 지식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실적 지식의 구조화뿐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과정에 따른 단계 별 수업과정의 내용 구성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식과 이해 단계에서는 사실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에 대해 배웠던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해당 문화 항목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분석 단계에서는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와 자기 나라 문화를 비교하는 과제 활동을 통해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형성 배경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적용 단계에서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보고, 종합 단계에서의 토론을 거쳐 평가 단계에서 과제 활동을 하며 얻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방법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의 수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표 35〉 방법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 항목의 수업 구성

단계		수업 내용
지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한 자료와 교사의 질문 등을 통해 학습할 내용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한다. 자료는 한국인의 행동 양식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나 방송 등 동영상 자료를 위주로 구성한다. 교사는 학습 목표로 설정된 과제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와 학습자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문화 항목에 대해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고 확인한다. 교사는 해당 항목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한다. <p>과제는 한국인의 행동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발표하도록 한다.</p>
이해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과제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한다. <p>한국 사람과 자기 나라 사람들의 행동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그러한 특징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조사해 본다.</p>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수행한 과제를 발표한다.
적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발표한 과제의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p>각 나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종교적 요소 등 다양한 시각에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종합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수행 및 발표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자기 나라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 한국 문화뿐 아니라 동료 학습자 나라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평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 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쓰기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내 준다.

4. 교수-학습 활동의 실제

1) 사실적 지식

(1) 성취 문화

앞 절에서 논의한 문화 항목별 수업 구성 방안을 토대로 한국의 성취문화 중 ‘제주도’를 주제로 한 수업의 실제를 설계해 본다.

i) 지식 단계

먼저 지식의 도입 단계에서는 제주도의 여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 자료(사진, 그림, 안내문, 동영상) 등을 통해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모형에서 제주도라는 성취문화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화산섬, 용암동굴의 내용이 노출되도록 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는 학습 할 내용에 대해 추측해 본다.

① 이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곳에 대해 아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② 여러분 나라에도 이곳과 비슷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유명한 관광지나 아름다운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③ 이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다면 여행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④ 이곳에 가보고 싶습니까?

이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다음으로 지식의 제시 단계에서 교사는 제시될 텍스트에 포함된 어휘나 표현을 미리 설명하고, 제주도에 대한 읽기 자료를 제공한다.

- 어휘와 표현

화산 폭발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 화산이 폭발하다	동식물(동물, 식물)
화산섬	박물관
용암	볼거리
동굴	* 먹거리, 즐길거리
세계문화유산	토속음식
지정되다(지정하다)	숙소
	예약하다

약 -년 전(예)	-아/어여(서)
-에 의해 만들어지다	-(-이)기도 하다
-으로 지정되다(지정하다)	-는 것이 좋다
-을 중심으로	

- 읽기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도는 한반도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 화산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라산(1,950m)을 중심으로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과 해변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 박물관 등의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싱싱한 해물과 여러 가지 토속음식도 맛볼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 걸리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갈 때에는 교통과 숙소 등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ii) 이해 단계

이해 단계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제시된 텍스트를 함께 읽고 학습한다.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휘, 문법, 표현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어려운 발음 등에 대해 교사가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이해의 연습 단계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 및 연습문제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① 제주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 ② 제주도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 ③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④ 제주도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 ⑤ 제주도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iii) 평가 단계

평가 단계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학습자들에게 나눠주고,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소개할 만한 아름다운 여행지나 여러 자연 환경 및 자연 현상에 의해 형성된 특이 지형이나 볼거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활동지의 내용을 스스로 작성해 본다.

이때 과제 활동에 필요한 어휘나 표현, 고유명사 등 어려운 부분을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거나 함께 검색해 보는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동료 간 질문과 대답을 통한 동료지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여러분 나라에도 제주도와 같은 곳이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 * 화산 활동이나 태풍, 지진 등의 자연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곳,
아름다운 여행지 등.
- 이름 :
- 위치 :
- 특징 :
- 볼거리 :
- 먹거리 :
- 즐길거리 :
- 가는 방법 :
- 준비할 것 :

작성이 끝나면 각자 작성한 내용을 발표해 보고, 새로 알게 된 점이나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본다.

평가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배운 내용 및 과제 활동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과제를 내준다.

- 오늘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 여러분 나라의 여행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써 봅시다. (과제)

(2) 정보문화

사실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에서는 표준 모형에 제시된 절기와 세시풍속 및 한국의 보양식 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해 본다.

i) 지식 단계

지식의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주요 절기에 먹는 음식의 사진을 제시하고, 학습자는 사진을 본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이때 한국의 음식과 외국의 음식을 함께 제시하고, 학습자는 음식에 대해 아는 것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부럼, 삼계탕, 육개장(개장국), 팥죽, 불도장, 장어 요리, 소고기 스튜, 뜨양꿍]

학습자는 사진에 나온 음식에 대해 아는 점을 이야기하고, 자기 나라에도 한국처럼 특별한 날에 의미를 가지는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다음으로 지식의 제시 단계에서 한국의 세시풍속 및 음식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한다.

- 읽기 <한국의 세시풍속과 전통 음식>

한국에는 계절에 따라 전통적으로 행해지는 세시풍속이 있습니다. 세시풍속이란 집집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특별한 날에 축제와 같은 행사를 하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새해의 첫날은 ‘설날’이라 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올리고 떡국을 먹습니다. 그리고 15일을 ‘보름’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밤, 호두, 은행, 잣 등 껍질이 딱딱한 과일을 깨물어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럼을 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 년 동안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이도 튼튼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더위를 물리치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삼복(초복, 중복, 말복)에 삼계탕, 개장국 등을 먹었습니다. 한국은 농경사회로 농사에 꼭 필요한 소를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고 영양가가 높은 개고기를 먹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동지에는 팥죽을 쑤어 먹었는데, 팥죽은 맛도 좋지만 팥의 붉은색이 한 해의 안 좋은 일을 쫓아버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팥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계절에 따라 조상의 지혜가 담긴 세시풍속을 보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ii) 이해 단계

이해 단계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어휘, 문법, 표현 등을 통해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한다. 교사와 학습자는 질의응답 및 연습문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과 보충 설명을 한다.

- 어휘와 표현을 알아봅시다.

행해지다(행하다)	삼복
세시풍속	개장국
웃어른	농경사회
설날	영양가
세배	* 영양가가 높다
* 세배를 하다(올리다, 드리다) ⁶⁴⁾	손쉽게(손쉽다)
먹국	팥죽
보름	쑤다
밤, 호두, 은행,잣	* 죽을 쭉다
깨물다	쫓아버리다
* 깨물어 먹다	놓아두다
물리치다	조상

다음으로 이해의 연습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확인한다.

64) 교재에 따라 어휘, 문법, 표현(관용구 등)을 별도로 다루는 경우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어휘와 표현의 연관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배치하였다.

- ① 세시풍속이란 무엇입니까?
- ② 설날은 언제이며, 무엇을 합니까?
- ③ 보름은 언제이며, 무엇을 합니까?
- ④ 보름에 부럼을 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⑤ 여름에 개장국(보신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⑥ 동지에는 무엇을 합니까?

iii) 평가 단계

평가 단계에서는 다양한 과제활동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학습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학습자가 스스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한다.

- 여러분 나라에도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세시풍속이나 특별한 음식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 특별한 날 : _____
- 특별한 날의 의미 : _____
- 특별한 음식 : _____
- 음식을 먹게 된 이유나 배경 :

평가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의 풍습에 대해 이해한 내용과 자기 나라 문화와 비교하여 생각해본 결과를 정리하여 쓰기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다.

(3) 행동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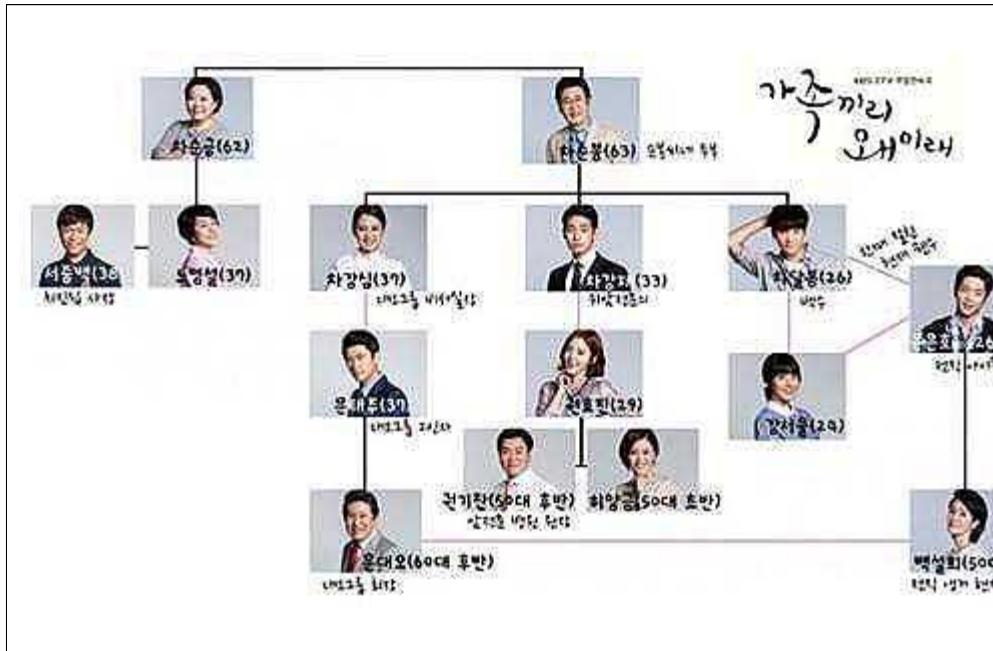
사실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에서는 한국어 초급에서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호칭’ 항목에 대한 수업 구성을 설계해 본다.

i) 지식 단계

지식의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한국 드라마에서 가족끼리 호칭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동영상의 내용을 보고 자기 나라의 호칭 방식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본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가족관계도를 활용하여 가족 호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다음으로 지식의 제시 단계에서는 한국의 호칭 문화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하고, 내용을 학습한다.

- 읽기 <한국인은 모두 가족인가요?>

한국 사람은 가족을 부를 때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부르거나 손위형제가 동생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을 부를 때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동생이 손위형제를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형, 누나, 오빠,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친한 이웃이나 선후배 사이에서도 가족 호칭을 사용합니다. 처음 만났거나 아직 친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을 부르거나 선배라고 부르지만 서로 친해지고 나면 형, 누나, 오빠, 언니 같은 가족 호칭을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로 친해지면 상대방을 가족처럼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ii) 이해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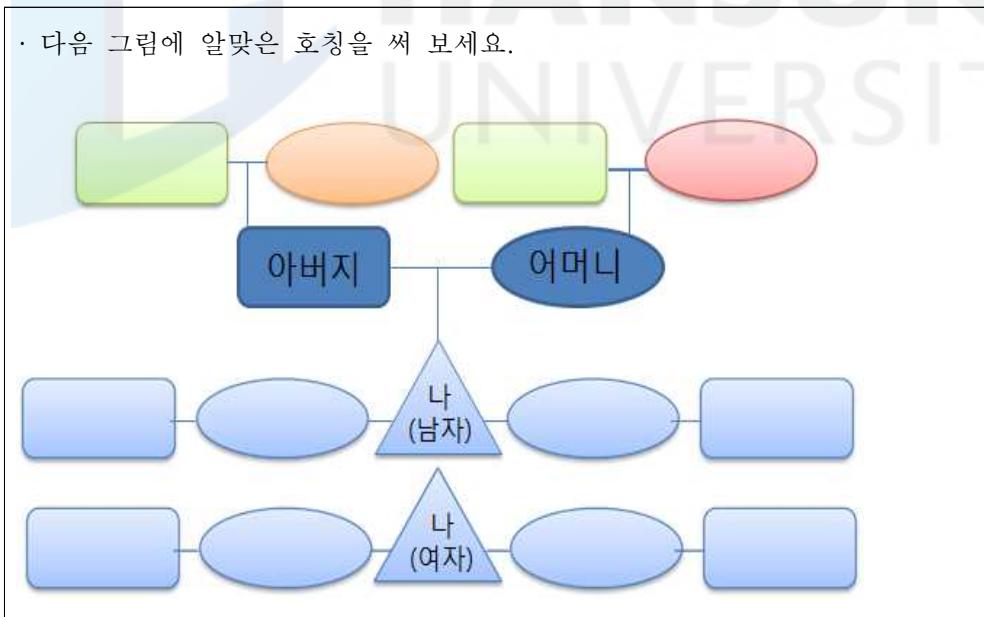
이해 단계에서는 텍스트에 나오는 어휘, 문법, 표현, 발음 등을 학습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 가족을 부르는 호칭을 알아봅시다.

할아버지	오빠
할머니	언니
외할아버지	동생
외할머니	여동생
아버지	남동생
어머니	남편
부모님	아내
형	아들
누나	딸

지식의 연습 단계에서는 위에서 배운 한국인의 호칭을 이해하고, 가족관계도를 활용하여 호칭의 쓰임을 연습한다.

· 다음 그림에 알맞은 호칭을 써 보세요.



iii) 평가 단계

평가의 활용 단계에서는 다양한 과제 활동 및 연습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말하기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한국의 가족관계 및 호칭의 쓰임에 익숙해지도록 충분한 연습을 하게 한다.

-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가족을 소개해 보세요.
나이, 직업, 외모, 성격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보기>

저희 가족은 모두 7명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 여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_____.

할머니께서는 _____.

아버지께서는 _____.

어머니께서는 _____.

오빠(누나)는 _____.

저는 _____.

여동생(남동생)은 _____.

마무리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에 대해 각자 이야기해 보고, 과제활동 결과를 쓰기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과제를 제시한다.

2) 방법적 지식

방법적 지식의 수업은 이전 단계인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유의미한 과제 활동들로 구성하며, 사실적 지식 차원의 수업 내용과 방법적 지식 차원의 활동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각 항목별로 지식-이해-분석-적용-종합-평가에 이르는 수업의 단계를 분류하여 수업을 구성해 본다.

(1) 성취 문화

성취문화에서는 앞서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학습한 제주도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에 대한 부가적 정보 수집, 여행을 위한 정보 구하기, 예약하기와 예매하기 등의 활동을 구상할 수 있으며, 이미 제주도를 여행해본 학습자인 경우는 여행 경험담 쓰기와 같은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행을 위한 정보 구하기 및 예약, 예매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 본다.

i) 지식 단계

지식의 도입과 제시 단계에서는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배웠던 텍스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가 제주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질의응답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제주도 관광지도를 시각자료로 제시하고 대략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

학습자는 지도에 표시된 관광지의 내용을 검색해 보고, 가는 방법, 숙소, 식당 등에 대한 부가 정보를 수집한다.

제주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여행 정보를 각국 언어로 제공하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를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주도 관광 안내 지도



줌말로 좋수다

**JEJU
TOURISM
ORGANIZATION**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Indonesia

ภาษาไทย

español

Copyright © 2011 JEJU TOURISM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만장굴[UNESCO 세계자연유산]

등록



세계적인 규모의 화산 용암의 침하운동으로 생성된 천연동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있다.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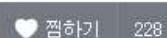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길

전화/이메일

064-710-7905/-

이용시간/휴무일

09시~18시



QR코드

소개

이용안내

여행코스

코멘트

주변정보

이용요금

- 개인
어른 : 2,000원
청소년·군인 : 1,000원
어린이 : 1,000원

ii) 이해 단계

제시한 과제를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수행한다.

시간이 걸리는 과제의 경우 숙제로 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iii) 분석 단계

분석 단계에서는 각자 수행한 과제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수집한 정보를 교환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iv) 적용 단계

개인 및 그룹별 과제 활동 및 토론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여행 계획서를 만들어 본다.

-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가보고 싶습니까? 계획을 세워 보세요.

여행 날짜 : _____

가는 방법 : _____

숙소 : _____

가보고 싶은 곳 :

- 1) _____
- 2) _____
- 3) _____

먹어보고 싶은 음식 :

- 1) _____
- 2) _____
- 3) _____

해보고 싶은 일 :

- 1) _____
- 2) _____
- 3) _____

v) 종합 단계

개인 또는 그룹별로 작성한 여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로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vi) 평가 단계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 단계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쓰기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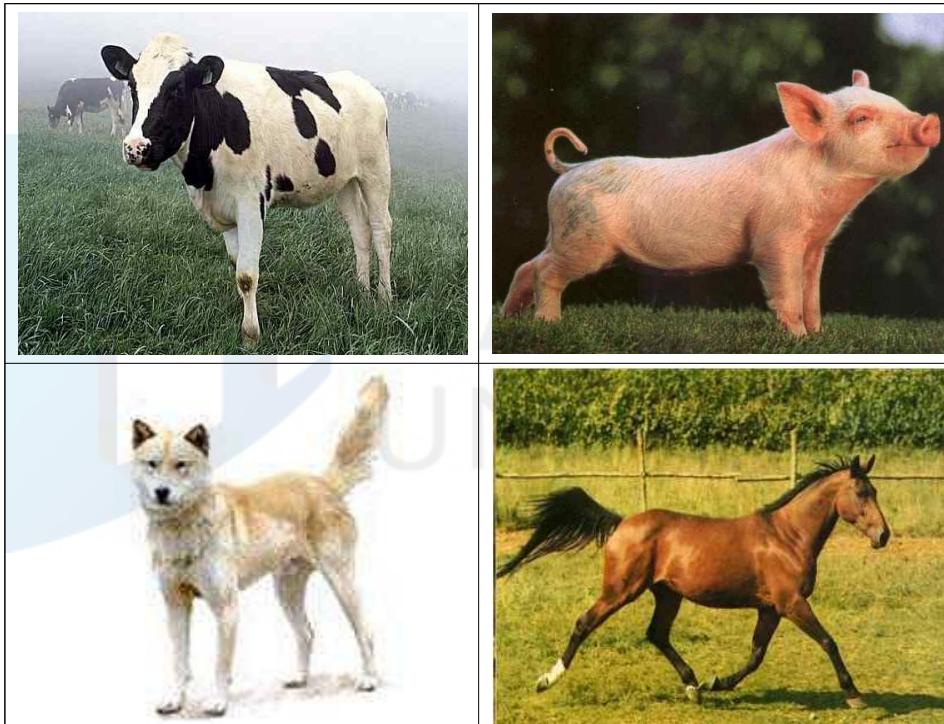
(2) 정보문화

방법적 지식으로서 정보문화의 수업에서는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배웠던 한국의 절기와 세시풍속 및 음식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관한 토론 수업을 구성해 본다.

i) 지식 단계

먼저 지식의 도입 및 제시 단계에서는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배운 내용에 관한 교사와 학습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수업 활동인 토론 주제에 대해 알려준다.

다음과 같은 시각 자료를 이용하여 각자 나라에서 음식으로 먹는 동물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한국과 비교하여 이야기해 본다.



ii) 이해 단계

지식의 이해 단계에서는 자기 나라의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에 대하여 수행한 과제 활동 결과를 발표해 보고 각자 의견을 이야기해 본다.

iii) 분석 단계

보신탕을 먹는 문화에 대해 토론해 본다.

학습자를 찬성과 반대의 두 팀으로 나누고, 같은 팀끼리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하여 써 보도록 한다.

- 보신탕 문화에 찬성 / 반대 하는 이유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5) _____

iv) 적용 단계

각 팀별로 작성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한다.

교사는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학습자의 언어 사용이나 토론의 방향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때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v) 종합 단계

종합 단계에서는 과제 수행 및 발표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자기 나라와의 같은 점과 다른 점, 한국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vi) 평가 단계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 단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쓰기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내 준다.

(3) 행동문화

방법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의 수업에서는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배웠던 한국의 가족 호칭 사용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내용에 관한 과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정보문화의 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행동에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를 토대로 확장 또는 심화된 과제활동을 통해 한국인의 행동문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 지식 단계

지식의 도입 단계에서는 사실적 지식 차원에서 배웠던 가족 호칭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한다.

지식의 제시 단계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한국인의 특성에 관한 읽기 텍스트를 제시한다.

- 읽기 <한국인의 호칭과 공동체 의식>

한국 사람은 친해지면 친한 이웃이나 친구끼리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면 선배에게도 형제처럼 언니, 오빠, 형, 누나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르게 된 걸까요?

한국은 예로부터 농사를 생업으로 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고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마을에서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서로 도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 살면서 서로 힘든 일을 도와주며 오랜 시간을 보내다보니 이웃도 가족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친구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부르게 되었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업이나 무역을 주로 하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한국처럼 공동체 의식이 강하지 않고, 개인주의적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ii) 이해 단계

지식의 이해 단계에서는 제시된 텍스트를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학습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어휘, 문법, 표현, 발음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

지식의 연습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자가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 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 ② 농경사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 ③ ‘공동체 의식’은 무엇입니까?
- ④ 농경사회와 상업(무역)사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 ⑤ ‘개인주의적 전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iii) 분석 단계

분석 단계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 문화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이끌어내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한국 문화의 특성과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한다.

- ①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 ② 그런 일을 하고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③ 한국과 여러분 나라 문화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iv) 적용 단계

지식의 적용 단계에서는 친밀감의 정도에 따라 호칭과 말투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알고, 선후배 사이의 대화를 반말로 바꿔 써본다.

영민 : 수미 씨!
수미 : 네, 선배님.
영민 : 어디 가요?
수미 : 지금 수업이 끝나서요, 점심 먹으러 가요.
선배님은 어디 가세요?
영민 : 나도 점심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수미 : 네, 좋아요.
영민 : 뭐 먹을까요?
수미 : 선배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먹어요.
영민 : 그럴까요? 그럼 내가 비빔밥 사줄게요.
수미 : 감사합니다.



영민 : 수미야!
수미 : 응, 오빠.
영민 : _____
수미 : _____
영민 : _____
수미 : _____
영민 : _____
수미 : _____
영민 : _____
수미 : _____

호칭과 말투를 바꿔 써본 후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각자 이야기해 본다. 평소 한국 학생들의 대화 모습에서 느낀 점이나 학습자가 직접 한국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호칭 및 말투에서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v) 종합 단계

방법적 지식으로서 행동문화 중 호칭에 관한 수업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가 수업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 ① 한국과 여러분 나라에서 가족을 부르는 방법은 어떻게습니까?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② 여러분 나라에서는 친한 이웃이나 친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한국처럼 가족 호칭을 사용합니까, 이름을 부릅니까?
한국과 비교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③ 한국과 여러분 나라의 호칭의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과 여러분 나라를 비교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vi) 평가 단계

평가 단계에서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종합 단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여 쓰기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다.

V. 결 론

최근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어 능력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문화 항목을 선정하여 교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가 여러 각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의 부수적 장치로서 물리적 현상이나 단순한 사실적 정보의 전달에 그칠 것으로써 이를 토대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 고유의 생각과 행동, 한국 특유의 생활양식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과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위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더 나아가 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적 성찰 및 학습자의 자아성장을 교육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하는 교육 개념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라는 개념을 언어 교육을 위한 부수적 장치 또는 부가적 정보로 간주하였던 그동안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교육의 대상으로 재인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환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항목 선정 및 배열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문화 지식을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조화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실적 지식은 주로 문화적 업적이나 성취물 등의 물리적 사물 및 문화 현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말하며, 방법적 지식은 사실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문화권 사람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 방식을 이해하여 실제 대화에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대처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 항목 선정에서는 한국 문화를 크게 성취문화, 정보문화, 행동문화로 분류한 기준의 연구를 따랐으며 이들을 다시 사실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라는 기준 안에서 구조화하여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안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성취문화에서는 미술, 음악, 문학 등의 문화적 업적을 다루고, 정보문화에서는 지리, 환경적 특성 및 역사, 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화적 정보를 다루며, 행동문화에서는 의식주,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의 생활, 예절, 관습 등 사람들의 실제 생활양식 및 행동 방식의 특성에 관해 다룬다.

이러한 문화 지식의 습득 과정은 주로 사실적 지식의 특성을 지니는 성취문화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반의 문화적 정보 및 문화권 특유의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정보문화를 거쳐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적 지식으로서의 행동문화 항목의 지식 습득으로 이행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사실적 지식은 내용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문화적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고, 방법적 지식은 과제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적 토론 활동을 통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발화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언어 교육의 부수적 정보에 머물러 있던 문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사실적 지식 위주로 이루어졌던 문화 교육을 방법적 지식의 측면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이 워낙 방대한 범위를 지니는 것인 만큼 한국 문화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일부 항목의 경우만을 예시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앞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의 위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한국 문화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 및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현

1. 국내문현

- 자료(한국어 교재)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08). 재미있는 한국어 1-6. 교보문고.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6). 서강 한국어 1A-B, 2A-B, 3A-B, 4A-B, 5A-B, 읽기 6, 쓰기 1-4. 서강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99). 한국어 1-4. 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3). 연세 한국어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0). 이화 한국어 1-1, 1-2, 2-1, 2-2, 3-1, 3-2, 4, 5, 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연구논저

- 강승혜 외. (2010). 한국 문화 교육론. 형설출판사.
- 강현석 외. (2005).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탐구 - 일선 교사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 강현화. (2008). 「한국어 교육학에서의 담화·화행 연구의 전망과 과제」.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11).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고영근. (1999). 텍스트이론 – 언어문화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아르케.
- 곽지영 외. (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권성미. (2013).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의 문화 항목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Vol.10 No.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권순희. (2010). 「다문화시대의 국어 문화 교육의 방향」. 세계한국어문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6. 세계한국어문학회.
- 권오현. (2003).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 – 한국의 학교 외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대행. (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 문화」. 국어교육연구 12.
- _____. (2008a).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언어문화학. Vol.5 No.1.
- _____. (2008b).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과제」. 민족문화논총 40.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_____. 김동환 외. (2009). 중학교 국어 1-1. (주)천재교육.
- 김동환. (2008). 「공유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Vol.31 No.-.
- _____. (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Vol.35 No.-.
- _____. (2010).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읽기텍스트 선정 전략 연구 – 문화 교육을 위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Vol.39 No.-.
- 김명옥. (2013). 「Bloom의 신 교육 목표 분류학에 기반한 초등 국어과 교육 과정 목표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성. (2010). 「개정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교과서 문화내용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진. (2009).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언어문화 교육 연구 : 맥락 활성화에 기반한 수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3.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 _____. (2010).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수현.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문화 교육에 관한 일고찰 :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연구. Vol.11 No.-.
- 김영봉·권순희 외. (2007). 교육학개론. 서현사.
- 김윤경. (2010).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한국어 교수법의 방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 일. (2010). 「‘춘향전’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욱 외. (2010). 한국어 교수법. 형설출판사.
- 김정숙. (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글학회.
- 김정자. (2014).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철. (2005). 「인접학문과 한국언어문화학의 연계성 - 문학 교육과 한국 언어문화 교육」. 국제학술대회 2005-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중섭.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 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 _____. (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_____. (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지혜. (2014).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 연구 : 다중 텍스트 활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Vol.63 No.-. 한국어학회.
- 김진호. (20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시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 김소월의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전공 박사학위 논문.
- 김현정·박정아 (2008). 「한류 애호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의 방향성 고찰」,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 훈. (2008).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신문 활용 방안 : 고급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희경. (2010). 「읽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교재 구성 방식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나정선. (2002).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경래. (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언어문화교육에서의 화용 내용 연구」 .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민현식. (1996). 「국제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 한국언어문화학 제1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외. (2006). 한국어교육론 1-3. 한국문화사.
- 박갑수. (2014). 한국인과 한국어의 발상과 표현. 도서출판 역락.
- 박경자 외. (1997). 언어교수학. 박영사.
- 박숙영. (2007). 「문화간 의사소통을 위한 가치문화 교육 방안」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순. (2002).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_____. (2002).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_____. (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 이중언어학. Vol.23 No.-.
- _____. (200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도서출판 월인.
- _____. (2008). 한국어와 한국어교육 : 한국어 교사가 알아야 할 지식. 한국문화사.
- _____. (2010).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림출판사.
- 박진용. (1998). 「국어과 교육의 텍스트 유형 분류」 . 청람어문학 20. 청람어문교육학회.
- 박혜정. (2008).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연구 - 초급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 배재원. (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신윤경. (2014).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 교육 연구」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배현숙. (200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서경혜. (2013).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인의 가치체계 연구 :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성기철. (2001).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12권 제2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a). 「언어와 문화의 접촉 : 언어 문화」.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4b). 「언어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 *한국언어문화학* 1-2.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5-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송금숙. (2002). 「한국어 읽기 교육의 텍스트 유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용실. (2012). 「한국어 문화 교육의 실태와 교육 방향 연구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교육 관점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 신승환 외. (2006). *근대의 끝에서 다시 읽는 문화*. 지혜.
- 신주철. (2003). 「한국 시 교육의 실제」.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안경화. (2001).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안미영. (2008). 「한국어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정신문화 연구* 31-3. 한국학중앙연구원.
- 안진숙. (2010).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 연구 : 고급 교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양민애. (2008).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의 이문화(異文化)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 양민정.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 9-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_____. (2007). 「동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화 활용의 문화교육 방안」. *국제지역연구* 11-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오세인. (2004). 「시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오승희. (2008). 「이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통해 본 새로운 문화소통 모색」. *언어와 문화* 4-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왕한석. (2005). 「한국 언어 문화학의 학문적 정체성」.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2007). *한국어와 한국 사회. 교문사.*
- 윤여탁. (2013). *문화 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 이경아. (2010). 「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읽기 텍스트 유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관규 외. (2005). 「한국어 교육학과 한국언어문화학의 연계성 구축」.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이명주. (2003). 「영화 ‘춘향전’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혜. (2004).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Vol.1 No.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5).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 문화 중심의 언어 통합 교육 모형 설계」.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이석주. (2002).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 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중언어학*. Vol.21 No.-.
- 이선이. (2003). 「문학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7). 「문화인식과 문화교육 –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제언」. *언어와 문화* 3-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승연, 장미경. (2011). 「고급 한국어 교재 내 읽기 자료의 텍스트 전형성 연구 - 사설, 칼럼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어문논집 Vol.64 No.-. 민족어문화회.
- 이재춘. (2010). 「관용구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 이중진, (2009). 「한국어 읽기 교재의 텍스트 구성방안」. 이중언어학 Vo.40 No.-. 이중언어학회.
- 임경순. (2009).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 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임철일. (2012).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교육과학사.
- 장경은. (2001). 「한국어교육을 위한 단계별 문화 내용과 교수 방법」.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장미경. (2012a).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난이도 평가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12b). 「담화 구조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텍스트의 난이도 평가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장소원. (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연계」, 한국언어문화학, Vol.9 No.2.
- 정대현. (1990). 지식이란 무엇인가 - 지식개념의 일상언어적 분석. 서광사.
- _____. (2000). 표현인문학. 생각의 나무.
- 조향록. (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2).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_____. (2004a). 「한국 언어 문화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Vol.1 No.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4b).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Vol.1 No.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5).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교육* 제 16권 제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11). 「한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접점 모색 : 한국언어문화교육론의 내용체계 구축 방안」.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1 No.1.
- _____.·강승혜. (2001). 「초급 단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수요목의 개발」. *한국어교육* 제12권 제2호 제2부.
- 최은영. (2005). 「수필을 활용한 한국 정신문화 교육 방안 연구 : 재미동포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주열. (2008). 「한국 문화 교육 접근 방법 연구」. *언어와 문화* 제4권 제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편.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한상미. (2005). 「문화 교육 방법론」.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 한 선. (2007).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 'TV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3-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_____. (2011). 「문화간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재영 외. (2005).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횡인교. (2008). 「외국인을 위한 문화 교육의 실제」.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2008년 비교문화연구소 가을학술대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_____. (200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언어와 문화 4-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_____. (2009). *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육 - 문화 교육방법론*. 한국문화사.

- A. Dean Hauenstein 저, 김인식 외 공역. (2004). 신 교육 목표분류학 : 전통적 분류학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서울 : 교육과학사.
- Anita J. Harrow 저, 김종선·김기웅 공역. (1978). 교육 목표분류학 : 심리운동적 영역. 서울 : 동화문화사.
- Berko 외 공저, 이찬규 역. (2003). 언어 커뮤니케이션. 한국문화사.
- Bloom, Benjamin Samuel 저, 임의도 외 공역. (1966). 교육 목표분류학 : 교육 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 1. 지적 영역. 배영사.
- _____. (1983). 교육 목표분류학 : 교육 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 1. 지적 영역. 교육과학사.
- Charles M. Reigeluth 편저, 최 육 외 공역. (2005). 교수설계 이론과 모형. 아카데미프레스.
- Elaine Baldwin 외 공저, 조애리 외 공역. (2011). 문화코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아카데미.
- Klaus Brinker 저, 이성만 역. (199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 Krathwohl, David R. 외 공저, 정범모 외 공역. (1967). 교육 목표 분류학 : 교육 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 2. 정의적 영역. 익문사.
- _____. (1990). 교육 목표 분류학 : 교육 목표의 분류 및 평가의 실제 – 2. 정의적 영역. 교육과학사.
- Lorin W. Anderson 외 공저, 강현석 외 공역. (2005). 교육과정 수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 Bloom 교육 목표 분류학의 개정. 아카데미프레스.
- Nancy Bonvillian 저, 한국사회언어학회 역음. (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Robert J. Marzano wj, 강현석 외 공역. (2005). 신 교육 목표 분류학의 설계.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 Robert J. Marzano 외 공저, 강현석 외 공역. (2010). 새로운 교육 목표 분류학. 원미사.
- Roger M. Keesing 저, 김경수 역. (1990). 현대 문화 인류학. 현음사.

2. 국외문헌

- Bloom, B. S., et al.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 Handbook 1. Cognitive Domain*. David Mckay Company, New York.
- Brewer, W. F. (1980). *Literary theory, rhetoric, and Stylistics : Implications for psychology*. In Spiro, R. J., Bruce, B. C. & Brewer, W. F.(Eds.). *Theoretical issues in Reading Comprehension*, Hillsdale, NJ:LEA.
- Brooks, Nelson. (1975). The Analysis of Foreign and Familiar Cultures. In Robert Lafayette ed., *The Culture Revolution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Lincolnwood, ILL.: National Textbook.
- Hammerly, H. (1986). *Synthesi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Blaine, Wash : Second Language Publications.
- Hendon, Ursula S. (1980). Introducing Culture in Elementary College Language Classes. *Modern Language Journal 64* (2).
- Jenks, C. (1995). *Culture*. Routledge.
- Krathwohl, D. R., et al. (1964).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 Handbook 2. Affective Domain*. David Mckay Company, New York.
- Reverse,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arle, John. (1975). A taxonomy of speech acts. In Gundersonk. (ed.),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9 : Language, mind and knowledge*.
- _____. (1976). The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
- Seelye, H. N. (1974). *Teaching Culture :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 Communication.* National Textbook Company.
- Stern, H. H. (1992). *Issues and Options in Language Teaching.*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1] 한국어 교재 및 선행연구의 문화 교육 항목

구분	문화 항목
성취문화	88올림픽, TV 드라마, TV 프로그램, 가요, 건축물, 겨울연가, 경복궁, 고려청자, 공연 문화, 과학기술, 광고, 금속활자, 남대문, 노래, 대동여지도, 대중가요, 도자기, 동요, 동화, 드라마, 만화, 무용, 문학작품, 문화유산, 문화재, 미술관, 민요, 민화, 발명품, 불교 예술, 불교 유적, 불국사, 비보이와 남사당, 난타, 서예, 서울의 박물관, 석굴암, 성황당, 심청전, 아리랑, 아파트와 현대 건축, 연, 연극, 염색공예, 영화, 옛 시조, 옛날이야기, 오성과 한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 일편단심 춘향이, 임꺽정, 전래동화, 전통 가옥, 전통 예복, 전통 춤, 전통무예, 전통미술, 전통악기, 전통의상, 전통혼례, 짚풀 공예, 춤, 충무로와 한국영화, 콩쥐팥쥐, 탈춤, 태극기, 태껸, 토끼의 간, 토정비결, 풍속화, 한국인이 사랑하는 애송시, 한글, 한지공예, 항아리, 호랑이와 곶감, 화문석, 훈민정음, 흥부와 놀부, 희곡 작품, 김구, 김홍도, 경제와 속담, 서당, 세종대왕, 신사임당, 유관순, 음악가, 이순신, 정주영, 화폐 속의 인물,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 박정희와 김대중, 한국을 빛낸 인물
정보문화	IMF, 가마, 건국신화, 건국 이후의 역사, 경제와 생활, 경주, 고대사회와 문화, 교육 제도, 국토, 그림 종류, 금강산, 금융, 기본 정치 체제, 남북관계, 남원, 남한과 북한의 차이, 다문화 사회, 한국, 땅(한반도), 무역, 민주 정치와 남북분단, 백두산, 법률, 북한 경제, 사회, 사회의 위계, 사회제도, 사회현상, 상징 및 제도,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 설악산, 세계 속의 한국, 식민지, 신라의 옛 수도, 역사적 사건, 왕조, 외교관계, 외국인을 위한 유익한 정보, 6·25 전쟁, 이산가족, 일제강점기와 근대사, 임진왜란, 자연과 한국인, 정치 문화, 정치 상황, 정치 제도, 정치인, 지방 행정, 태안의 기적, 한국문학(고전), 한국문학(근대), 한국 역사(시대), 한국의 20세기, 한라산, 현대사, 강릉 단오축제

<p>언어 문화</p> <p>가족 호칭, 가족 호칭어의 다른 쓰임, 감사표현, 감탄어, 거절하기, 겸양법, 경어법, 경조사 인사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사성어, 관용표현, 궁중어, 날씨와 속담, 높임말, 대화법, 동물 관련 속담, 동물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 명사형으로 끝나는 관용표현, 몸에 관련된 관용 표현, 몸짓언어, 문자, 어휘, 반말, 발음, 보도문, 부탁하기, 북한어, 비유법, 비유적 표현, 빈말 표현, 사과하기, 새해 인사, 색채 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의 의미, 생활 속의 관용표현, 소문과 관련된 속담, 속담에 나타난 경제 의식, 손가락으로 숫자세기, 인터넷 신조어, 언어에 나타난 가족주의, 유행어, 속어, 은어, 의성어, 의태어, 이모티콘, 인사말, 주어 생략, 지명과 관련된 관용표현, 지칭어, 직장 호칭, 직장에서의 인사, 통신어, 표준어와 방언, 풍자, 한국식 이름, 한국어, 한국어 어문규범, 한자성어, 호칭(이름/직함/친척/대명사/통칭적), 효와 속담</p>
<p>행동 문화</p> <p>일상 문화</p> <p>태안의 기적, 무용, 12간지, 24시간 식당, 24절기, 3년상과 49재, 가계, 가계부, 가라오케, 가마솥, 가방 들어주기, 가정교육, 가정생활, 가정통신문, 가족 관계, 가족 문화, 가족계획 표어 변천사, 가족사진, 감사 문화, 강화도 기행, 개성상인, 보부상, 개학 첫날, 거주문화, 건강 및 운동, 건강 음식, 게임, 결혼과 이혼, 경로사상, 경조사 예절, 더치페이, 계절 음식, 계절과 기후, 계절에 따른 세시풍속, 고궁 유적지 답사, 고맥락 문화, 공공시설과 제도, 공공질서, 공휴일, 과학과 미래, 관광명소, 관상과 사주, 관습, 관혼상제, 백일잔치, 돌잔치, 교실, 교제, 교통 문화, 교통요금 체계, 교통시설, 교통신호 체계, 교통질서, 교통표지판, 구절판, 국제결혼, 궁중음식, 권위주의, 그때 그 시절, 근면성, 근현대 사회와 문화, 금기사항, 긍정적 어휘와 부정적 어휘, 기독교, 기부 문화, 긴급 전화, 길거리, 길안내, 짐장, 김치와 막걸리, 김치의 우수성, 꽃미남, 꽃샘추위, 끈기, 나들이, 나라 이름, 국가, 꽃, 신분증, 나이와 서열, 낙천성, 난민문제, 날씨와 생활, 남녀관계, 남녀평등, 남성과 여성의 덕목, 남성우월주의, 남성의 가사 참여, 남성의 병역 의무, 남이섬 여행, 낯선 사람에게 말걸기, 내리사랑, 냄비문화, 네티즌 문화, 노동관, 노래방과 찜질방, 노약자석, 노점/길거리, 놀이동산, 놀이문화, 눈치, 다도, 다방, ‘다음에 밥 한 번 먹자’의 의미, 다이어트 열풍, 단군 이야기, 단풍놀이, 대기업, 대도시, 대안학교, 대외관계, 대중교통,</p>

	<p>대중매체, 대중목욕탕, 대중문화, 대표적인 세대, 대학로, 대학문화, 대학생들의 수입과 지출, 대학생활과 외국인, 도서관 이용, 돈, 동성동본, 동아리, 돼지꿈, 된장과 고추장, 두루미, 떡국, 떡볶이, 떡, 레저문화, 마라톤, 마을 문화, 많이 걸리는 병, 화병, 말다툼, 맞선, 매체, 명문대학교, 명절 음식, 명절 풍습, 명절, 추석, 설날, 공휴일, 명품외제선호, 모임문화, 문물, 문병, 문제 해결 방법 찾아보기, 문화 충격과 실수, 문화센터, 물가, 물건 구입, 미소, 미역국, 미용실, 민간요법, 민박, 민속 문화, 민속촌 견학, 바쁜 한국인들이 문화를 즐기는 방법, 박물관, 밥과 국물, 방 문화, 방구하기, 방문 예절, 방송국 견학, 방언, 방학, 배우, 버스 정류장, 벼룩시장, 별명, 병문안, 병원, 약국, 보물찾기, 보약, 복권 당첨, 복날, 복도, 복식, 봄꽃, 부동산을 통해 집구하기, 부조문화, 북한, 북한산 투어, 분단, 불고기, 비행기 표 예약, 빨리빨리 문화, 뿌리 찾기, 사계절, 사고와 떡, 사람 집 방문해 보기,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자주 하는 놀이, 사랑 받는 신입사원, 사랑과 결혼, ‘사랑의 열매’와 모금 문화, 사무실, 사물놀이, 사주카페, 사진관, 사투리, 사회생활, 사회와 예절, 산, 산신제 구경, 산업시찰, 산업화, 산하, 삼계탕, 삼일운동, 삼일절, 상차림과 식사예절, 새 학기 첫 날, 생일 축하 노래, 생일, 명절 음식, 생활 속의 녹색 성장,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서울의 대중교통, 서울의 명소, 서울의 외국인 마을, 서울의 지하철, 선비, 과거제도, 세계인의 새해 결심, 세시풍속, 송편, 쇼핑 문화, 수도, 서울, 숫자 4, 회식 문화, 스포츠 활동, 시간, 주소 쓰는 방법, 시대별 화제작으로 본 사회, 시장, 식당 예절, 식당 이용, 식사 예절, 식생활, 식습관, 신문, 잡지, 신체 접촉, 심야 쇼핑, 쿨링 문화, 쓰레기 분리, 씨름, 아줌마와 아저씨, 아파트와 투기, 앞서가는 정보문화(IT), 애완동물, 어른 호칭, 어버이날, 여가문화, 여유, 역마살, 연애관, 연중행사, 예약문화, 오락문화, 온돌과 좌식 생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을 위한 배려, 외래어,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인, 외식문화, 우편 제도, 운동과 건강, 운전문화, 월드컵과 축구, 유래가 있는 어휘, 유학, 유행, 패션, 윗놀이, 은행 이용, 음식 배달문화, 음식 이름과 맛, 음식 인심, 음식과 식사 예절, 음주문화, 의료 제도, 의류/패션, 의복문화, 의식주, 이사 떡, 인기 스타, 인사동, 인사법(인사와 악수), 인연, 인터넷, 인터넷 동호회, 인터넷 쇼핑, 임신과 출산, 입시 경쟁과 사교육, 입양, 자리 양보, 자연친화적 전통 정원, 자유분방한 멋</p>
--	---

	<p>과 여유, 작명, 잘못 건 전화, 잡채, 장(된장, 고추장, 간장), 장례식, 장마와 황사, 장맛, 장애인, 재래시장, 재미있는 선물 문화, 재미있는 전화번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항, 전세 문화, 전통 습속 문화, 전통음식, 한과 신명, 전화 예절, 절약, 절하기, 젓가락 사용, 정월놀이, 정월대보름, 제주도, 조선 시대의 신분 제도, 조직문화에 나타난 집단의식, 조화, 종친회, 향우회, 좌식 생활, 주5일 근무, 주거 방식, 주거 양식의 변화, 주도, 주부들의 주말, 주요 도시, 주요 전화번호, 주요 정당, 주차, 주택, 중매, 중세 사회와 문화, 지리산, 지리적 위치, 기후, 지형, 지역 문화재 탐방, 지역 축제, 지하철 이용, 직장 동료, 진돗개, 진로와 직업, 진정한 부자-경주 죄 부잣집, 질병과 체질, 집단 따돌림, 집단을 중시하는 결혼문화, 집들이, 집안 물건 사용, 집안 살림(집안일), 집의 구조, 짐질방, 참살이 문화, 책 이야기, 책거리, 철도와 항공 그리고 해운, 첨단기술, 첫인상, 체육대회, 체질과 성격, 초대와 방문, 추석, 축구와 붉은 악마, 축제, 출산문화, 출입국관리사무소, 취미 활동, 취업난, 친구, 친구 결혼식, 친구 호칭, 친족 문화, 친척 소개, 컴퓨터 검색, 코리아타운, 태권도, 택배, 택시, 테마 관광, 텔레비전 수리, 통과의례, 통신 문화, 특별한 날의 선물, 특산물 생산지, 파티문화, 판문점 관광, 패스트 푸드, 편의시설 이용, 편지, 포장이사, 풀꽃, 풍경, 풍물 배우기, 풍수지리, 피씨방, 하루일과, 하숙과 자취, 하숙방, 하숙생활, 하숙집 구하기, 학교생활, 학교 체육과 스포츠, 학교시설 이용, 학교의 위치와 크기, 학문, 한강의 기적, 한국,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한국, 한국인, 한국음식, 한국인과 이탈리아인, 한국인이 좋아하는 머리 모양, 한류와 한국 문화, 한류와 한류스타, 한복과 예절, 한복입기, 한석봉, 한약, 한옥 마을, 한의학, 한턱내다, 할인매장, 해님과 달님, 해외봉사, 행정구역, 향토 요리, 헌책방, 현대 가족, 혈액형과 성격, 흡연, 화폐와 물가, 환갑, 환경과 인간, 환불, 환율, 회식 문화, 휴가에 떠나는 명소 여행, 휴양지, 교육열, 백의민족</p>
가치 문화	<p>경로사상, 권위주의, 근면성, 금기사항, 기독교, 나이와 서열, 낙천성, 남녀관계, 남녀평등, 남성과 여성의 덕목, 남성우월주의, 냄비문화, 노동관, 외모를 중시하는 한국인, 언어에 나타난 가족주의, 성황당, 토정비결, 가족의 두 얼굴, 가족주의 경영, 가치관과 성격, 가치관의 변화, 감성적인 한국인, 감추기와 드러내기,</p>

	<p>개인/집단 갈등, 건강관, 고정된 성역할, 어른 공경, 공유문화, 관계문화, 관념과 가치관, 관료주의,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달라지고 있는 인생관, 신명,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장, 문화적 이질감, 미풍양속, 민간신앙, 반미/친미감정, 반일감정, 보수적 성향, 불교, 사고방식, 사상 문화, 샤머니즘, 서열문화, 선비사상, 선입견, 선후배 문화, 성과 결혼, 성과 사랑, 세계관, 세대차, 신바람 문화, 실학사상, 아들 선호, 어른에 대한 예절, 여성의 지위, 우리 의식, 우애, 유교와 불교, 음양오행사상, 의례와 관습, 의리, 이웃사촌, 전통적 미인, 정 문화, 제사문화와 가족 공동체 의식, 종교문화, 지역감정, 직업 풍속도, 집단주의, ‘체면’과 ‘눈치’ 속에 투영된 서열 의식, 체면문화, 촌수, 최고 지향, 충효 사상, 가족관, 특별한 대외 인식, 한국이라는 공동체, 한일 관계, 혈연, 자연, 학연으로 뭉치는 연고의식, 순혈주의, ‘홍길동전’으로 보는 사회상, 획일주의, 한과 신명</p>
--	---



[부록 2] 문화 등급화

〈문화 등급화 (1)〉

구분			등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정서					●	●	
		건강			●		●		
		성역할						●	
		가치관의 변화					●		
	사고방식	빨리빨리 행동		●					
		민간신앙			●				
		종교					●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음악		●	●			●	
		전통/현대 미술						●	
		전통/현대 공연		●	●				
	문학	문학작품					●	●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	●	●	
	역사적 인물	유명 인물				●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		●	●			
		무형 문화재	●						
		세계문화유산	●						
	상징물	한국의 상징				●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생활	공공기관 이용	●						

〈문화 등급화 (2)〉

구분			등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의생활		●					
		주생활			●				
		식생활	●	●				●	
		계절활동		●					
		경제활동	●	●			●		
	여가생활	여행		●					
		친목모임/동호회			●	●			
		스포츠				●			
	공동체생활	가정생활		●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언어생활	이름과 호칭	●	●	●				
		인사	●						
		한글과 한국어	●	●	●	●	●	●	●
		몸짓 언어		●					
한국 사회	세시풍속	명절		●					
		주요절기				●			
	관혼상제	관례/혼례		●		●	●		
		장례/제례		●		●			
	정치	남북관계					●		
		국제관계						●	
	경제	정치제도					●	●	
		경제정책		●				●	
	교육	교육열				●	●		
		교육제도		●		●			
		교육문제						●	
	사회	복지정책					●	●	
		사회제도					●		
		공휴일			●				
		사회문제					●	●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	●	●	●			
		대표 지역과 축제			●		●		
	교통	교통수단	●	●					
		교통체계		●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				●
	다문화사회	다문화 현상					●	●	

[부록 3] 한국어 급별 문화 항목

(1) 1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생활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개 숙이고 인사하기 ·악수하기 ·빈밀표현(어디 가세요?, 밥 먹었어요?)
			이름과 호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족호칭(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엄마, 아버지/아빠, 누나, 언니, 형, 오빠, 남동생, 여동생) ·사회적 호칭(OO 씨, 선후배 호칭)
	한국 사회	일상생활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차림(음식을 놓는 위치)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생활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이 자주 먹는 음식(밥, 김치, 짜개류, 국류 등) ·식기의 종류(밥그릇, 국그릇, 순가락, 젓가락 등) ·순가락과 젓가락의 사용용도 및 사용법(순가락은 밥과 국을 먹을 때 사용, 젓가락은 반찬을 먹을 때 사용)
		언어생활	한글과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 창체 원리
	한국사회	이름과 호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람의 이름 구성(성과 이름)
		경제	경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폐의 종류-지폐(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 만원, 수표), 동전(오백 원, 백 원, 오십 원, 십 원)
		지리	한국의 지리/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계절과 날씨

(2) 2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문화재	유적지(승례문, 경복궁, 불국사, 석굴암)
			무형문화재	한복, 강강술래
		세계문화 유산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 유적 지구,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한국의 혼한 성씨, 별명 ·호칭의 확대현상(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호칭을 사용하는 것: 언니, 오빠, 이모 등)
			한글과 한국어	·언어예절(존댓말과 반말)
			몸짓 언어	·비언어적 행위(사람을 부를 때의 손동작, 답답할 때 가슴을 치는 동작 등)
		일상 생활	식생활	·특별한 날 먹는 음식(생일-미역국, 합격/이사-떡, 결혼-잔치국수) ·식사예절(어른 먼저 수저 들기, 먼저 자리 뜨지 않기, 식사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먹기) ·음주예절(고개 돌리고 마시기, 술 권하기, 술 따르기)
			계절활동	·봄-벚꽃놀이, 가을-단풍놀이
	한국사회	교통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하기(버스 타는 곳, 버스이용 시 요금 지불 방법과 할인)
			교통체계	·교통예절(노약자석에 앉지 않기,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기, 앉은 사람이 서있는 사람의 가방 받아주기)
		지리	한국의 지리와 지형	·계절에 따른 날씨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생 생활	의생활	·전통의상(한복, 고무신, 짚신)
			주생활	·한국의 주거형태(한옥, 단독주택, 아파트, 원룸, 기숙사 등) ·전월세, 하숙/자취 ·온돌생활, 좌식생활
			식생활	·계절음식(삼계탕, 팥빙수, 냉면, 팥죽)
			경제활동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야시장,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공공기관이용(은행, 우체국, 동사무소 등) ·경조사(돌, 환갑 등)
	한국사회	교육	교육제도	·6-3-3-4 학제, 학기 시작 시기, 정규교육과정의 진학 나이, 의무교육제도
		교통	교통체계	·버스 종류, 버스 전용차선, 지하철노선 ·환승, 교통카드
		관혼 상제	관례/혼례	·성인식, 결혼문화(상견례, 결혼식, 결혼준비, 축의금 등), 결혼정보회사 등
			장례/제례	·장례식, 제사 지내는 방법 등
		세시 풍속	명절	·설(세뱃돈, 설빔, 차례, 성묘, 떡국, 만두) ·추석(달맞이, 차례, 성묘, 송편)
	외국인의 한국생활	사회 생활	공공기관 이용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외국인등록증 등

(3) 3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 음악	·사물놀이, 탈춤, 부채춤, 판소리, 민요
			전통/현대 공연	·탈춤, 부채춤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무형문화재	·전통혼례, 농악 등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이름과 호칭	·친가친척관계, 외가친척관계 ·친족호칭(친가와 외가의 가족호칭)
			한글과 한국어	·사물에 비유한 표현(긍정적 표현: 마음이 바다처럼 넓다, 천사 같다, 개미처럼 일하다 등, 부정적 표현: 호박처럼 생겼다, 꼼같이 우둔하다, 돼지같이 먹다 등)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방문예절(집들이 선물)
	한국인의 가치관	학교생활	·동아리, 소개팅,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대학축제	
		직장생활	·회식문화, 뒤풀이 문화, 직장 야유회와 제육대회, 직장내 예절 등(약속하기, 직책 부르기 등)	
	한국사회	통신	과학 기술의 발전	·통신언어(문자 보내기, 이모티콘 사용하기) ·인터넷에서의 연락망(소셜네트워크-SNS) ·통신예절(댓글문화, 인터넷 예절, 인터넷 실명제)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상 생활	경제활동	·재리시장(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경동시장, 가락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등) ·홍정과 덤 ·지불방법(현금과 카드, 일시불과 할부)
			여가 생활	·친목 모임/동호회 ·조기축구회, 등산모임, 인터넷의 여러 가지 동호회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가족형태(대가족, 핵가족/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딩크족 등)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 방식	빨리빨리 행동	·음식배달, 퀵서비스 ·경제발전의 원동력(인터넷, 건설, 정보통신의 발달)
		한국사회	지리	·한국의 위치 및 지리적 특징 ·대표지역과 축제 ·서울, 부산, 경주, 제주도 등에 대한 소개(위치, 기후, 지역적 특징 등) ·행정구역(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8도) ·공휴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 개천절 등)

(4) 4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도자기, 사찰, 탑, 공예품, 예술품 등
	한국의 예술과 문학	예술	전통/현대음악	·K-POP
행동			전통/현대공연	·난타, B-boy, 점프, 비빔밥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신조어, 유행어, 속어, 줄임말, 통신 언어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	
	여가 생활	스포츠	·인기 있는 운동(축구, 프로야구, 농구 등), 응원(붉은 악마) 등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 방식	민간신앙	·금기행동(다리떨기, 헌숨 쉬기, 턱 괴기, 웃사람에게 말대꾸하기, 뺨간색으로 이름쓰기, 문지방 밟기, 시험 전 미역국 먹기 등) ·기피숫자4, 선호숫자3, 7	
정보	한국인의 생활	여가 생활	친목모임/동호회	·찜질방,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한국사회	세시 풍속	주요절기	·대보름: 부럼 깨물기, 단오: 창포에 머리 감기, 그네뛰기, 삼복: 개장국/복죽 먹기, 동지: 팔죽 먹기 등
			관례/혼례	·상견례, 결혼준비과정 ·전통혼례식과 현대결혼식, 축의금, 어울리는 옷차림
		교육	장례/제례	·장례방법(매장, 화장, 수목장), 풍수지리, 장례절차, 부조, 어울리는 옷차림 ·제사상 차리기(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과 상차림 방법), 제사지내는 순서, 어울리는 옷차림
			교육제도	·대학 입학시험, 학군 ·외고, 특목고
		교육열	민간신앙	·조기교육, 대안교육, 평생교육(낮은 문맹률, 높은 대학진학률) 등
	한국인의 가치관	사고 방식	한국의 상징	·사주, 고사, 굿, 부적, 무당, 점쟁이, 토정비결, 해몽, 궁합, 떠, 풍수지리, 손없는 날
	한국의 문화유산	상징물	한국의 상징	·국가(애국가), 국기(태극기), 무궁화, 한글, 아리랑

(5) 5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사(조선후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역사적 인물	유명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폐 속 인물, 역사적 위인 한국의 대통령, 스포츠 스타, 한류 연예인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담 여러 가지 색채어(예: 파랗다, 새파랗다, 시퍼렇다, 푸르스름하다 등)
정보	한국인의 생활	일생 생활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의 종류(간장, 된장, 청국장, 고추장) 김치의 종류(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오이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백김치 등) 떡의 종류(백설기, 인절미, 송편, 가래떡, 쑥떡, 절편 등) 전통음료의 종류(식혜, 수정과, 매실차, 국화차 등)와 전통주 각 지역의 유명음식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태크, 자린고비, 기부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情), 한(恨), 신명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요법, 보약, 침, 한의원, 목욕(대중탕) 등
			가치관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美)의 기준의 변화 등
	한국사회	관혼 상제	관례/혼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애(미팅, 맞선, 중매, 결혼정보회사)
		교육	교육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시, 과외, 기러기 아빠, 고3병, 조기유학
	한국의 문화유산	문화재	유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놀이(강강술래, 널뛰기, 옷놀이, 닭싸움, 제기차기, 공기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얼음땡 등)

(6) 6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민지배, 한국전쟁, 남북분단, 민주화, 경제발전
	한국의 예술과 문화	문학	문학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래동화(권선징악의 동화-콩쥐와 팽쥐, 흥부와 놀부 등) ·시대를 반영한 고전시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리랑(각 지역 아리랑의 특징) ·전래동요(까치, 두껍아 두껍아 등) ·동요(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 옹달샘)
			전통/ 현대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미술(동양화: 김홍도, 신윤복 작품 등) ·현대미술(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용표현, 비유표현
정보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국제결혼, 여성결혼이민자, 한민족 등
			사회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종량제, 자동차 요일제, 신분증명제도, 출산 장려정책 등
		사회	사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중독, 자살, 청년실업, 이혼율 급등 ·고령화, 저출산, 성글맘, 가족형태 변화
	한국인의 가치관	가치관	성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 가부장적 사고방식 ·맞벌이부부, 남성의 가사참여, 육아분담 ·남성의 군복무의 의무
			가치관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관의 변화(선후기업, 평생직장, 직업선정기준) ·세대차이
			가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연과 지연, 혈연, 계, 이웃사촌 ·‘우리’의 사용(우리나라, 우리집)
		사고 방식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 종교의 신도분포
	한국 사회	자리	대표 지역과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의 단오제, 경주의 신라문화제, 남원의 춘향제, 여주의 도자기축제, 보령의 머드축제, 태백산의 해돋이축제 등
		정치	정치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선거(직접선출), 대통령의 임기 ·정부조직(대통령-국무총리-장관, 국회, 의원)
			남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8선, 비무장지대(DMZ), 핫밸 정책, 통일, 남북교류(남북회담, 이산가족, 금강산관광)
		경제	경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회	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7) 7급

유형	교수 내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시
성취	한국의 예술과 문학	문학	문학작품	·전국신화, 설화, 전설, 민담
행동	한국인의 생활	언어 생활	한글과 한국어	·격언, 고사성어
	한국 사회	사회	사회문제	·빈부 격차, 도농 격차, 지역차, 지역감정, 환경문제 등
				·친일/반일 감정, 친미/반미 감정
		정치	국제관계 정치제도	·대선, 지역색, 뇌물, 공천, 정당 문화, 주요 정당
정보	한국의 역사	시대별 역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	·한국의 경제성장 ·물가 안정정책, 고용정책 ·대외정책, IMF, 자유무역협정(FTA)
				·유신헌법, 군사정권, 인권의식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촛불시위
				·한국 과학발전의 변천사 ·반도체, 정보통신산업
		통신	과학의 발전	·주입식교육, 대학 진학 중심교육, 사교육문제 ·교권추락, 체벌금지
		교육	교육문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출산장려 정책
		사회	복지정책	

[부록 4] 이중진(2009)의 한국어 읽기 교재의 급수별 텍스트 유형 제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제보 텍스트	안내문 (교통- 공사 표지판, 간판), 초대장, 일기	안내, 공 고문(학 교행사), 일기예보	사유서, 이력서, 신문기사, 실험 보 고서	신문기자, 실험보고 서, 기행 문, 독후 감, 감상 문(영화, 음악)	신문기사, 각종 보고서, 진술서, 부고, 신간소개	각종 보고서, 진술서, 부고, 서평
호소 텍스트	신청서, 지원서, 처방전, 이미지 광고	상품광고, 요리법, 신청서, 지원서, 처방전, 사용설명 서, 청구 서	상품광고, 요리법, 신청서, 지원서, 처방전, 사용설명 서, 청구 서	사용 설명서, 청구서, 추천서, 홍보-광 고글, 포어	사용 설명서, 청구서, 논평, 사설	논평, 사설, 탄원서, 설교, 법률 텍스트
책무 텍스트	약속, 협 약글 (휴대폰 문자, 이메일, 쪽지, 편지)	품질 보증서 (휴대폰, 전자사전, 컴퓨터)	품질 보증서 (각종 전 자제품, 가전제 품), 계약 서	계약서 (고용, 아 르바이트, 임대)	합의서, 승인서	승인서, 각서, 선서문
접촉 텍스트	감사편지, 축하카드 (생일, 합격)	감사편지, 사과편지, 축하카드 (출생, 이사)	축하카드 (출산, 이사), 연하장	축하카드 (회갑, 승 진), 연애편지, 위로편지	연애편지, 조문편지, 격려편지, 환영사	조문편지, 환영사, 각종 애경사 편지
선언 텍스트	회원증, 학생증, 외국인 등록증	회원증, 각종 증명서, (입학, 졸 업, 출생)	각종 증 명서(입 학, 졸업, 출생), 독 촉장	독촉장, 해약고지 서, (성 혼) 선언 문, 학위 증서	위촉장, 해임장, 유언장	유언장, 판결문, 상속증서

작품 텍스트		수필	수필, 소 설, 전래 동화	현대 단편소설, 전래동화, 시, 단군신화	현대 중편소설, 전래동화, 시, 시조, 희곡	고전소설, 희곡, 영화대본, 시조
-----------	--	----	----------------------	------------------------------------	--------------------------------------	-----------------------------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Korean 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Taxonomy of Cultural Knowledge

Ryu, Hyun-J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provide a method of teaching Korean culture within the confin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communicating in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tly.

The need for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increasing. Although this need is prevalent, it is still not enough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from current Korean textbooks. This shift from current Korean textbooks is important, as the textbooks at present are focused on linguistic knowledge such as the grammar, vocabulary, and expressions. This linguistic-based teaching fails to provide enough cultural knowledge about Korea for the learners.

This dissertation i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cultural knowledge in learning language and aims to give a discriminatory method of teaching Korean culture.

For this method, the 'culture' is re-conceptualized to the 'knowledge'

as an educational object by research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bout the culture and the education. Cultural knowledge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factual knowledge and methodological knowledge. This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taxonomy of knowledge and subdivided into details which can be utilized in Korean textbooks.

Factual knowledge refers to general information about cultural objects and facts. Methodological knowledge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ways of lif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Methodological knowledge can be helpful for learners as it teaches learners how to act naturally and communicate in Korean proficiently.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offer a discriminatory method of teaching Korean culture by changing the focus from factual knowledge to methodological knowledge. Korean culture is subdivided into three forms of culture – culture of achievement, culture of information, and culture of behavior.

This dissertation is significant as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education and attempts to change the perspective on culture from simply being the "additional information" for language learning to the subject of language education. This dissertation suggests a revitalization in the structure of teaching Korean culture from fact-based to method-based teaching.

The result of this dissertation is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anticipated future studies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for proficient communi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Another expectation is that there will be many other studies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focused on various subjects such as how to teach the detailed items of Korean culture and how to meet the various demands of learners.

【Key word】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culture, cultural education, cultural knowledge, taxonomy of knowledge, factual knowledge, methodological knowledge

